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10일)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천년을 바로 세워 한국불교 중흥을

새해, 새날이 밝았다.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맞는 새해는 진정으로 여법한 시절이기를 바란다. 잘못되고 어긋난 것들을 바로 고치고 맞추어 눈물보다 웃음이 훨씬 많은 시절이 도래하기를 발원해본다. 새해는 천년을 거꾸로 지내온 경주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에 더욱 많은 마음이 모여 잃어버린 천년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발원한다. 그렇게 바로 세운 불상 하나가 많은 일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의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는 그날을 그려본다. 새해 첫 햇살 앞에 마애불을 세워본다. 간절한 발원이다. 또 염원이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그래픽**

마애불 바로 모시고 상월 순례 동력모아 韓불교 굴기 원년으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3년 계묘년, 한국불교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가 본격화되며, 장장 43일간의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당장 2월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1일 "간절한 서원으로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셔 천년을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공식화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는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주요 역점 사업이다. 현재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와 제37대 집행부 핵심사업들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지휘하는 미래본부(舊 백년대계본부)가 전담한다.

마애불 바로 모시기의 슬로건인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 미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로 확장됐다. '과거 천년'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의미한다.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일은 천년을 세워 그 공덕으로 개인들은 서원을 성취하고 나라는 부강한 강대국의 위상을 확립하며 불교를 다시 중흥시키겠다는 신실한 원력"이 담겼다.

'미래 천년'은 진우 스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주요 불사를 말한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이 같은 사업들을 총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올해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에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증명으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위원장을 맡고, 교구본사 주지 · 중앙종회의원 · 주요신도단체장 · 명상 전문가 · 교계언론 등이 참여하는 범불교적 조직이 될 전망이다. 추진위는 사업에 따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추진단과 미래추진단으로 분할돼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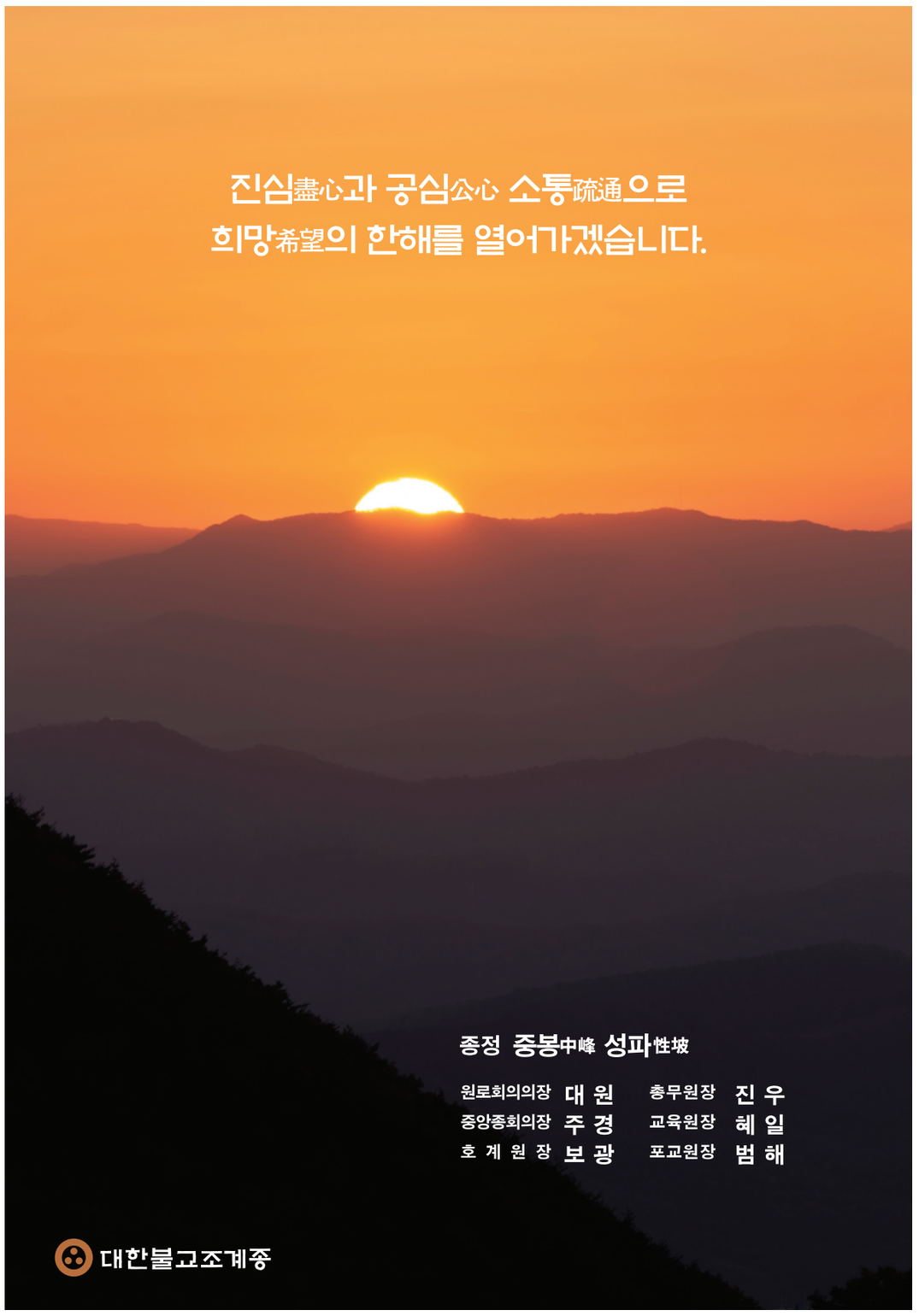
이에 앞서 조계종 미래본부는 1월 11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들어간다. 준비위원회에는 종무기관장, 교구본사 주지, 중앙종회의장단 · 분과위원장, 교계언론 대표 등 14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우 스님 직접 지휘 미래본부서
마애불 입불, 명상센터 건립 추진
범불교적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 중

성만제 미래본부 차장은 "주요 역점 사업인 마애불 바로 모시기는 준비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기도법사단이 마애불 현장에서 기도정진에 들어갈 것"이라며 "또한 전국 사찰에서 열암곡 순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종 연구 · 홍보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월결사 순례의 '화룡점정'이 될 인도순례도 한국불교 굴기를 상징하는 불사가 될 전망이다.

〈2면에 계속〉



2023년 신년특집호
A·B·C 섹션 76면 발행

신년특집 A9 · 10 · 11 · 12
MZ포교하는 MZ스님



상월결사 인도순례 C1~11



신년 불교동화 B5
신년 법어 B13 · 14 · 15
데스크초대석 A5
조계종 원로의장 대원 대종사



리더에게 聽하다 B1 · 2
박범훈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



동국대 20대 총장 후보 윤성이 · 윤재웅 · 임중연 '압축'

총추위 회의서 선출… 1월 5일 이사회서 총장 선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제20대 총장 후보로 윤성이 現 동국대 총장, 윤재웅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학장,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이상 가나다순)가 최종 선출돼 이사회에 추천됐다.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혜일)는 구랍 2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한 최종 후보 3인을 선출했다.

선출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윤성이 現 총장, 윤재웅 다르마칼리지 학장, 임중연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최종 선출됐다. 이들 후보들은 득표수와는 상관없이 무순으로 법인 이사회에 추천됐다. 3인의 후보 추천을 받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는 1월 5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제20대 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후보가 3인으로 압축됨에 따라 후보들이 내놓은 학교 발전 공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성이 "불교산업진흥원 설치 등 추진"

재임에 도전한 윤성이 現 총장은 '글로벌라이즈 동국(Globalize Dongguk)'을 슬로건으로 동국대를 '공헌'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허브대학으로 성장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동국대의 불교문화콘텐츠 프로그램수를 2023년 10개에서 개교 120주년을 맞는 2026년까지 108개로 늘리고 불교국책사업 수주액을 108억 원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대학평가 100위 이내 학과를 2026년까지 5개로 확대하고 국내대학평가 순위를 5위로 상향시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윤 총장은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응하는 교육사업 확대 △건학이념 구현의 외연을 국내에서 세계로 확장 △불교산업진흥원 설치 △지역사찰과의 협업 통한 미래불교 초석 마련 △BMC 특성화 전력 및 승단 복지사업 연계 등을 공약했다.

윤 총장은 "'불교중흥 동국발전' 목표 아래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응하는 건학이념 구현 교육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불교정신 기반 융합교육과정 개발, 불교 명상과 문화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산업진흥원 설치를 통해 불교문화유산 공헌활동을 진작하고 BMC


윤성이


윤재웅


임중연

캠퍼스의 의 · 약학 특성화 전략과 종단 승려복지사업을 연계해 종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종학불사 120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종단 120개 본말사 교류 네트워크 연계된 지역미래불자육성 장학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Need-Base 전원 장학프로젝트와 취 · 창 · 학120프로젝트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걱정없이 공부하고 취업하며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놨다.

윤재웅 "종립대학 건학이념 교육 강화"

윤재웅 다르마칼리지 학장은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의 대학'을 비전으로 국내 5위, 글로벌 100위 대학을 발전 목표로 삼았다.

윤 학장은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해 △불교교육학 체계 구축 △건학이념 교육 일상화 △명상교육 표준화 및 융합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대장경 사업 등 국책사업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학장은 "불교교학과 현대교육학을 결합한 '불교교육학' 교육이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시키려 한다"면서 "남산 걷기명상(行禪) 프로그램과 합장 · 공양기도 등을 일상화해 불교종립대학의 건학이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간 확충을 위해 BMC캠퍼스 시설을 개선하고 현 테니스장 부지에 기숙사 신축과 혜화문 일대 로터스관 착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구조혁신과 인수합병을 통해 학교 재정 규모를 4000억 원대로 확장하고, 발전기금 10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윤 학장은 "동국대는 붓다의 지상명령으로 설립된 학교로, 붓다의 실천적 삶을 이 땅에 구현하려는 실천도량이다. 이것이 동국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의 핵심"이라면서 "불교교육학의 체계를 세우고, 현재 · 미래교육과 어떻게 상생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제가 꿈꾸는 동국교육의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화된 교육 · 경영이론을 뒤따라가면 구성원들은 기계부품처럼 마모된다. 동국대는 기능주의적 프레임에 벗어나 '마음의 향상'을 지향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중연 "아시아 불교종립대학 허브로"

임중연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한국 대학, 글로벌 동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한국문화 세계화와 글로벌 인재 육성에 매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를 통해 국내 대학평가 순위를 5위로 끌어올리고, 4년간 모금액을 1000억 유치하며, 숙원사업인 로터스관을 착공하겠다는 핵심목표도 제시했다.

임 교수는 '건학이념 실현'을 위해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아시아 불교 종립대학 허브 구축 △국제화 및 ESG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융합 인재 양성 △기업 맞춤형 국내 및 해외 취업지원시스템 확대 △창업모태펀드 확충을 통한 투자 지원 인트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아시아 불교종립대학 연합을 구축하고 불교 분야에서 세계적인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교육을 발전시키고, 글로벌 인재들과 교류를 통해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융합인재를 양성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해 이끌어 갈 수 있는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네르바 스쿨의 장점을 반영한 교환학생 제도를 개발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 단결과 외부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모금액 1000억 원 달성과 로터스관 착공도 약속했다. 임 교수는 "매주 1개 기업과 3명의 기부자를 연결하고 각 학과 · 연구소 단위의 기업과 MOU를 지원하며 해외 동문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로터스관을 우선 착공하고 글로벌기숙사 확보 등을 통해 선순환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국보' 승격

문화재청 구랍 27일 지정 공고
백제代 '불교공예 정수'로 평가
고대 사리장엄 연구 절대 사료


국보로 승격된 익산미륵사지 사리장엄구의 금동제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백제시대 불교공예의 정수로 알려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보물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하고,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 등 고려 · 조선시대 전적, 근대 등록문화재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구랍 27일 밝혔다.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탑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의 사리공(불탑 안에 사리를 넣을 크기로 뚫은 구멍)에서 나온 유물이다. 출토 사리장엄구는 639년(백제 무왕 40년)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 사리봉영기와 함께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 사리내호,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았던 청동합 6점을 포함해 총 9점으로 구성돼 있다.

사리장엄구 중 금제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 · 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새겨져 있는데,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己亥年, 639)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설화에서 구체적으로 나아가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힌 계기가 됐다.

사리장엄구 중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몸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이다.

사리장엄구 중 청동합은 구리와 주석 성분의 합금으로 크기가 각기 다른 6점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하나에는 '달솔(達率) 목근(目近)'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이를 통해 달솔이라는 벼슬(2품)을 한 목근이라는 인물이 시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명문을 바탕으로 시주자의 신분이 백제 상류층이었다는 사실과 그가 시주한 공양품의 품목을 알 수 있어 사료적 가치와 함께 백제 최상품 그릇으로 확인돼 희귀성이 높다.

문화재청은 "백제 왕실에서 발원해 조성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석탑 사리공에서 봉안 당시 모습 그대로 발굴돼 고대 동아시아 사리장엄 연구에 있어 절대적 기준이 된다"면서 "7세기 전반 백제 금속공예 기술사를 증명해주며 동아시아 사리공예품의 대외교류를 밝혀주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66과 〈대방광불화엄경소〉 권88는 고려 11세기에서 12세기 동안 만들어진 불교경전이다. 조선 성종 대에 조성된 〈불조역대통재〉 22권 14책도 보물로 지정됐다. 신성민 기자

대불청 회장 장정화 · 대불련 회장 유정현

장정화 "지구 지회 함께 성장"
유정현 "젊은 불자 양성 보탬"


장정화


유정현

장정화 제31대 대한불교청년회장이 구랍17~1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76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32대 회장에 재선출됐다. 총 투표수 86표 가운데 78표를 받았다.

새로 시작하는 2년의 임기 동안 대불청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장정화 회장은 "새로운 각오로 소통에 나서 지구, 지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계층 포교사업 외에 재정자립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간 법우들과 함께 대불청 발전에 최선을 다했기에 연임됐다고 생각한다"며 "100년이란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정화 회장은 경북예천 출신으로 대불청 경북지구 예천지회 부회장, 경북지구 사무처장, 중앙부회장,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제61년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중앙회장에는 동국대 불교학부 3학년 유정현 씨가 당선됐다. 대불련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승희)는 구랍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중앙회장을 선출했다.

유정현 회장은 동대부여고 재학 중 불교동아리 파라미타 활동을 했으며 2019년 동국대 불교대학 불교학부에 입학했다. 2020년 동국대 불교동아리에 입회, '불교유적답사회' 기획부장을 역임했고 청년 대학생 불자 조직 리더 워크숍 청년대학생전법단 역사문화순례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유정현 회장은 "젊은 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인식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1면에 이어〉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지난 3년여 간을 준비 과정을 거쳐 비로소 이뤄지는 것이어서 불교 안팎의 기대가 모여지고 있다. '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순례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3일간 진행된다. 순례코스는 인도, 네팔의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지까지 부처님 8대성지를 순례하는 길이며 그동안의 상월결사 순례와 마찬가지로 길위에서 먹고 자고 행선하며 부처님처럼 전법 수행을 펼친다.

상월 인도순례 2월 9일 시작
43일 대장정…불교 역량 결집
문화 교류행사, 세미나 예정

순례는 인도 현지에서의 이동 후 2월 11일 부처님이 성도 후 처음 설법한 사르나트(녹야원)에서 입재식이 진행된다. 이후 2월 23일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 2월 25일 최초의 결집장소인 칠엽굴과 영축산이 있는 라즈기리, 2월 26일 라즈기리의 나란다대학, 3월 1일 부처님이 여러 안거를 보낸 가장 사랑하던 도시 바이샬리, 3월 8일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라, 3월 14일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3월 20일 부처님 가르침이 남아있는 기원정사의 쉬라바스티 등을 거친다.

하루 행선 거리는 24~30km로 현지 42박 중 텐트에서 29박, 별도 숙소에서 12박을 머물게 된다. 3일차에는 경전에 나오는 항하사 설화를 바탕으로 갠지스강에서 약 4km를 배로 이동하는 과정과 녹야원, 마하보디대탑, 죽림정사, 쿠시나가르 등에서는 대규모 법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매일 행선은 새벽 3시에 출발하여 묵언 속에서 진행된다.

상월결사 인도순례에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문화교류행사 등 한국불교 역량이 집결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동국대는 2월 25일 인도 라지기르에서 인도 날란다대학과 함께 '순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국제학술대회에는 6개국 전문학자들이 참여해 순례 의미 등을 되짚을 예정이며, 대회 이후에는 동국대와 날란다대학의 MOU도 체결된다. 조계종은 순례 회향에 맞춰 직접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현지를 찾을 예정으로, 연등회 전시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홍보, 사찰음식 시연 · 만찬 등 다양한 교류행사도 추진된다.

25돌 종지협 "평화 · 공생 위한 재도약"

구랍 21일, 한국의집서 기념식
자승 · 원행 스님 공로패 수여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며 종교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진우, 이하 종지협)는 구랍 21일 서울 한국의집에서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인류의 평화와 공생, 행복을 위한 재도약을 위해 종교계가 열심히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종지협 공동대표 의장 진우 스님은 그동안의 활동을 높이 치하하고 "각각의 종교가 이념체계와 문화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종교가 추구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같다"면서 "정의와 평화, 인류의 행복을 위해 각 종교계는 종교를 찾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을 가르치고 공동체감을 형성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물질중심의 가치관, 사회적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변화 속에서 공동체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가르침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대현 문체부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종교간 유대와 화합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종교 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종지협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들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이어졌다. 10,11,12대 세 차례 대표의장으로 단체 발전에 초석을 놓은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14,15대 대표의장 원행 스님, 13대 대표의장 김희중 대주교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자승 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원행 스님을 대신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문화사업국장 대우 스님이 대리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대표의장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공동대표인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등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불교환경연대 홍보대사에 남상일 · 박희진

12월 23일, 본부서 위촉식
"소욕지족 삶 최선" 다짐

국악인 남상일 씨와 가수 박희진 씨가 불교환경연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사진〉

불교환경연대는 구랍 23일 본부 그린담마홀에서 위촉식을 개최하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남상일 씨와 박희진씨는 신심 깊은 불자예술인으로서 앞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불교환경연대를 알리고 예술을 통해 부처님의 생명살림 가르침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남상일 씨는 "평소 공연을 다니며 일회용품이 함부로 쓰이는 게 걱정됐다"면서 "불자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박희진씨도 "소욕지족하며 홍보대사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악인 남상일 씨는 국악대세 아이콘으로 불리우며 대중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국악인이다. 문화예술, 방송, 교육 등의 분야를 막론하고 대중들에게 열정적인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KBS 한국방송대상' 문화예술인상,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가수 박희진 씨는 BBS 불교방송 전 영신의 아침저널 고정패널을 맡고 있다. 지난 부처님오신날 평택 미군기지에서 진행했던 봉축 법회식 날 찬불가 무대를 꾸며 참석한 대중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임은호 기자



팔만대장경 DB화 ·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 '본격화'

문화재청 예산 1조 3508억원 확정
팔만대장경 디지털 목록 구축 추진
미인경본 인경 후 디지털 목록 전환

월정사 설립 전시관 국립시설 변모
상반기 리뉴얼 시작해 하반기 개관
문화재관람료 지원에 421억원 편성
해묵은 관람료 갈등 해소 도움될 듯


해인사 장경판전에 있는 팔만대장경 경판. 이를 인경해 DB화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오대산 왕조실록 · 의궤 박물관 전경. 국립시설로 전환되며, 이후 오대산 사고본이 환수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디지털 자료 목록(DB)화 작업이 추진된다. 또한 불교계 숙원사업이었던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 의궤의 월정사 환지본처가 비로소 올해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관람료 지원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해묵은 갈등 문제 해소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구랍 26일 "2023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2.4% 늘어난 1조 3508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본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1494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421억 원), 고도 보존 및 육성(21억 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 원), 문화재 재난예방(21억 원) 등 지역의 문화재 보존 · 활용 강화 및 문화재 안전관리를 위해 573억 원이 증액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으로 미래 문화자산 보호기반 구축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품격 있는 활용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데이터에 기반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11억 원) △문화유산 원형기록 3차원 자료 목록(DB) 구축 · 개방(142억 원)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90억 원)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 보급(43억 원)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35억 원) 등이 추진된다.

해인사에 따르면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 사업은 팔만대장경 중 인경이 이뤄지지 않았던 경판을 인경한 뒤, 디지털 자료를 목록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석심 해인사 종무실장은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화 사업은 꾸준히 논의가 있어왔고, 진행된 바도 있다"면서 "다만 디지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오래전 DB들은 현재 활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앞으로 대장경 DB구축은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국민적 대작 불사"라고 설명했다.

지역과 현장 중심의 문화유산 관리 사업에는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 사업(15억 원)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지원(421억 원) △지역 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268억 원) △수도권 및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123억 원)등이 진행된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제자리 찾기는 불교계의 숙원으로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환지본처를 위해 '오대산 왕조실록 · 의궤 박물관'을 건립하기도 했으며, 환수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최종적으로는 월정사는 '오대산 왕조실록 · 의궤 박물관'을 국립시설로 전환키로 했으며, 올해 중으로 국립화 작업이 이뤄진다.

이병섭 월정사 기획실장은 "월정사의 '오대산 왕조실록 · 의궤 박물관'은 올해 3~4월 중 리뉴얼 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국립시설로 전환돼 개관될 예정"이라며 "오대산 사고본 왕조실록과 의궤는 국립전시관 전환 · 개관에 맞춰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지원으로 421억 원이 편성된 것도 큰 의미다. 이는 2022년 4월 문화재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며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시 해당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부터 전국 문화재 관람료 사찰들이 관람료를 감면하면 이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종단의 노력으로 문화재관람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도 "지원 방식이나 정산 문제 등 협의할 사안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당 상묵 대강백 추모다례와 부도비 제막식

구랍 24일 강화 전등사에서
대중 3백여 명 참석해 봉행
이번 재발간한 〈금강경 강설〉
경전 봉정식도 함께 거행해


일주문 옆 부도전에서 봉행된 인공당 상묵 대강백 스님 부도비 제막식 모습.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는 구랍 24일 무설전에서 인공당 상묵 대강백 제22주기 다례재를 봉행했으며, 이어 부도전서 상묵스님 부도비도 제막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다례재는 헌향과 헌화 헌다에 이어 인공당 상묵 대강백의 생전 육성법문 및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례재에 앞서 재발간한 인공당 상묵 대강백의 〈금강경 강설〉을 부처님 전에 봉정하는 봉정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등사 조실 세연 스님과 회주 학롱 장윤 스님을 비롯해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 쌍봉사 회주 영조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달마사 회주 진화 스님, 능인학원 이사장 법광 스님, 호법부장 현민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무량회장 진각 스님,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상묵 스님의 제자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례재를 마친 대중들은 사찰 입구의 부도전으로 자리를 옮겨 인공당 상묵 대강백 부도비 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불국사 승가대학원장인 덕민 스님은 행장 소개를 통해 1,989자로 구성된 비문을 한자씩 모두 읽으며 생전에 친분이 깊었던 상묵 대강백 스님을 추모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고성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상묵 큰스님은 근현대 교학에 지평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교학의 당간지주를 아주 높이 세운 눈밝은 종장이셨다"며 "오늘 이 부도비를 제막함으로서 스님께서 평소 지녔던 진면목과 인천의 안목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유불선의 진수가 이 비속에 담기게 되었다"고 극찬했다.

이어 전등사 회주 학롱 장윤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은사 스님께서 입적하신지 올해로 22주기를 맞는다. 좀 더 일찍 부도비를 만들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하지만 스님의 평소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수행정진하는 것만이 이런 아쉬움을 덜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제막된 부도비 비문은 불국사 승가대학원장인 덕민 스님이 짓고, 글씨는 문봉선 서예가가 썼으며, 부도비는 대한석상 이재순 석장이 제작했다.

한편 인공당 상묵 대강백은 1953년 공주 마곡사서 서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1966년 연주암 주지, 1985년 경주 불국사 강원 강주 역임, 1994년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에 이어 1995년 승가대학원 교수와 전등사 회주 등을 역임하며 경전포교에 매진했다. 1995년부터 오전에는 간경, 오후에는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을 금분 사경하며 정진했으며, 2000년 12월 28일 제자와 대중스님들을 부르시고,

사대금리주(四大今離主)
진인화중소(眞人火中笑)
심마시하물(甚磨是荷物)
개중무불조(箇中無佛祖)

이라는 열반송을 남긴채 법납 47세, 세납 64세의 일기로 입적했다.

강화 전등사=김주일 기자

여수 향일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빼어난 해돋이 경관 명소 유명
여수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여수 향일암 대웅보전 전경.

남해를 대표하는 해돋이 명소인 여수 향일암이 '명승'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어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자연유산인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구랍 20일 밝혔다.

'여수 향일암 일원'은 남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해돋이 경관과 하늘과 맞닿은 봉황산(금오산의 모산)의 지평선, 여수만 건너 남해 금산 등 수려한 해상경관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자연 조망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또한, 거북이(금오산 지형)가 경전(향일암)을 등에 짊어지고 남해 용궁으로 들어가는 지형적 형상과 거북이 등껍질 무늬의 암석들, 해탈문 등 석문(石門) 그리고 기암절벽 사이의 울창한 동백나무숲이 서로 조화를 이뤄 그 자체의 경관도 빼어나다.

이번 명승 지정에 여수 향일암과 여수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여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은 "향일암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출 명소이자 4대 기도처"라면서 "역사적, 자연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으로 지정된 만큼 보존 ·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1979년 상 · 하백도 지정 이후 40년 만에 여수 지역에서 또 한 곳의 명승이 지정됐다"면서 "향일암과 문화재청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일암과 주변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문화관광투어 상품을 개발하는 등 명승의 가치를 알리는 방안을 계획중"이라며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향일암 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양행선 광주지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조계종 종정예하 방장 중봉 성파대종사
주지 이산 현문

율주 우설 덕문
유나 보탑 천진
강주 인 해
노전 지 범
율원장 도 암
염불원장 영 산
보살선원장 노 암
총무국장 현 덕
기획국장 혜 명
교무국장 청 우
재무국장 현 담
사회국장 석 운
포교국장 인 경
호법국장 효 일
박물관장 송 천
원주 범 용
농감 서 일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2023 필진 소개

현대불교신문이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강화했다. 논설위원들을 보강했으며 경전교리를 비롯해 문화 · 불교의례 · 인문학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신규연재들도 확대했다. 신년 신규 필진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신임 논설위원들은



법산 스님은

1945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15세에 남해 화방사에서 출가했다. 1980년 대만 중국문화대학 철학연구소에 입학해 6년간 수학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1986년 동국대 불교대학 선학과 조교수에 부임한 스님은 2010년 정년퇴임까지 25년간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했다.

보조사상연구원장, 한국선학회장, 인도철학회장, 한국정토학회장 등 주요 불교학회의 학회장과 학교법인 동국대 제40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명법 스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미학과에서 석 ·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해인사 국일암으로 출가한 스님은 현재 각 교육기관 등서 미학과 명상, 불교교리를 강의하고 있다. 다양한 수행문화단체 등과 철학 세미나를 비롯해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 〈미국 부처님은 몇 살입니까?〉 〈미술관에 간 붓다〉 〈은유와 마음〉 등이 있다. 현재, 해인사 국일암 감원으로 주석 중이다.



백도수 교수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크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동국대 대학원에서 인도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책임 연구원, 조계종 포교원 포교위원 등을 지냈으며, 제18회 조계종 역경상 · 제2회 전법학술상을 수상했다.

현재 능인대학원대 교수와 월정사 화엄선연구소 책임연구자문, 고요한 소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삶과 사유

임병학 교수의 '꽃차와 사상의학'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임병학 교수가 꽃차와 사상의학을 주제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심신의 치유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 사상의학은 마음론이자 기(氣)철학을 통해 건강한 삶을 밝히고 있다. 꽃차는 꽃을 기본으로 식물의 뿌리, 줄기, 잎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꽃차는 우리 민족의 대용차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기운을 좋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한다. 연재에서는 꽃차에 대한 기본정보, 꽃차의 약성, 꽃차와 마음 · 기(氣)작용, 꽃차의 음용법, 사상인별 음용소감, 꽃차의 음용 사례 등을 소개한다.

효민 작가의 '서도로 새기는 불교 경구'



부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 본 연재는 그 중에서 대중이 실생활에서 가슴에 품고 살면 좋을 문구들을 서예를 통해 소개한다. 효민 작가는 대한민국 서예문화협회 초대작가이면서 와룡미술관 설비 추진위원장이다.

필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실생활에 접목하여 편안하게 대화의 글로 또 서로 소통하는 내용으로 글을 엮을 예정이다. 서예라는 道와 佛法의 만남이다.

소설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영화 '관상'의 원작자인 백금남 작가의 신작 소설이다. 붓다의 모습을 그리려는 금어가 자신이 그려내는 그림을 통해 절대 경지를 보려 한다. 무위자연의 상태, 즉 붓다의 경지에 가 있지 않으면 절대의 모습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작품은 붓다가 남긴 지혜의 칼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붓다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이다. 지혜의 칼은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는 칼이다. 필자는 1985년 제15회 삼성문학상을 수상한했다. 이후 장편소설 〈십우도〉와 〈탄트라〉로 주목받았다. 소설 〈유마〉는 32년 만에 탈고한 작품으로 화제가 됐다.

경전교리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역임한 반야불교연구원장 지안 스님이 〈승만경〉에 이어 〈능엄경〉을 강설한다. 〈수능엄경〉 또는 〈대불정경〉이라 부르기도 하는 〈능엄경〉은 전 10권으로, 전체 경전에 걸쳐 수행의 근본대의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하고 있다. 〈능엄경〉을 소화엄이라 말해왔듯이 대승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융화 · 회통하여 여러 가지 수행체계를 폭넓게 설해 놓고 있다. 대 · 소승, 현 · 밀교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경전이다. 지안 스님의 꼼꼼하고 적확한 강설이 또 한 번 기대된다.

지휴 스님의 '능가경 강설'



사단법인 여시아문 선원장을 맡고 있는 지휴 스님이 새로운 형식의 강설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에 이어 〈능가경〉 강설에 나선다.

〈능가경〉은 여래장사상 형성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전으로, 불교의 여러 학파의 교설을 풍부하게 채택하여 혼합시켰으며, 여러 교설들이 어떻게 종교적인 경험 속에서 결부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경전이다. 일찍이 선종에서 많이 채택되었는데, 중국 선종의 초조인 달마가 중요하게 여겼다.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설'



경북 영양 연화사 주지인 구선 스님이 〈묘법연화경〉을 강설한다. 20여 년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스님은 〈법화삼부경 제1부 무량의경〉 등 다수의 저서를 발간했다. 묘법연화경은 '묘각을 이루는 방법', '정토불사를 이루는 방법', '정토불사 이후에 일어나는 여래장계의 변화'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경전 중에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룬 경전은 〈묘법연화경〉이 유일하다. 이것이 묘법연화경의 가치이다. 이 주제들을 다루면서 묘각 이전의 수행절차에 대해서도 짬짬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획연재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전통 목조건축의 단청 문양과 벽화 등을 20년 넘게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는 노재학 작가가 불교장엄 중에서 목조각의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불교장엄에서 목조각, 혹은 목공예 분야는 불상, 불단, 닫집, 광배, 꽃살문, 목각탱, 목어, 화반, 전패, 현판 등 다채롭다.

한국산사 목조각 장엄에 대해 분야별 조형원리를 설명하고, 분야별 주목되는 걸작 하나를 뽑아 조형에 담긴 본질과 아름다움을 소개한다. 한국산사가 간직한 목조각 걸작들을 하나씩 찾아간다.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불교의례는 수륙재 · 영산재 · 예수재 등 대형 재회(齋會)에서부터 일상의 수행 · 생활 의식에 이르기까지, 사부대중의 종교적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의례'와 '의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현재의 규범적인 모습만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전승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한 것은 물론, 다채롭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중생과 함께해왔다. 불교 의례의 여러 면모와 상징성을 다각적 관점에서 살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속과 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살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그 위상과 특성을 조명해본다.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불교는 지혜와 행복의 가르침이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말씀을 모아 놓은 팔만대장경은 인류 최고의 보물창고이다. 그러나 대장경은 너무 방대하여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이 연재는 팔만대장경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깨달은 마음인 선(禪)의 입장에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지혜를 찾아 전해보고자 한다. 연재를 통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필자는 현재 불교인재원과 고양 흥국사에서 참선을 안내하고 있다.

기획연재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깨달음의 현상들은 불교 경전에 적혀 있고, 이는 불교미술로 도상화됐다. 깨달음의 접경에 있는 그 생생한 모습들을 담아낸 국보 · 보물급 불교회화에 내포된 미학을 불화 전문가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가 소개한다.

이안의 '미디어 인 붓다'



세상에는 볼 것들이 너무 많다. 각종 OTT부터 개봉 영화, 드라마, 공연 등등…. 미디어 콘텐츠의 홍수 속에 불교적 내용과 해석이 담긴 작품들이 없을까. 〈삶이 물었고 영화가 답했다〉의 저자 이안 영화평론가가 불교적 미디어 콘텐츠를 소개한다.

불교인문학살롱

불교와 인문학의 통섭은 시대적 과제가 된지 오래다. 인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성찰하는 학문이고 불교는 삶의 본질을 알아가는 데 있다. 불교가 인문학과 폭넓게,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이유다. 이처럼 불교가 가지는 인문학적 가치는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고,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전문 필진들이 동서양의 고전, 주요 사상가들의 사상을 불교와 인문학으로 풀어낸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사부대중일동



신흥사 교육기관 /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재단	춘천불교방송
· 신흥사 향성선원 · 백담사 무금선원 · 백담사 기본선원 · 신흥사 신도회 · 신흥사 불교대학(원각사) ·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 재단법인 성준장학재단	• 반야노인요양원 • 반야어린이집 • 룸비니어린이집 • 연꽃어린이집 • 춘천노인요양원(연화마을)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속초시노인복지관 • 금강반야마을	• 춘천 영서지역 FM100.1Mhz • 속초, 고성 FM93.5Mhz • 양양 FM97.1Mhz • 강릉, 동해, 삼척 FM104.3Mhz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

“‘화두’ 안 들리고 끊어지면 ‘사형수’와 같아”

데스크 초대석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

조계종 원로의장 대원 스님은 말 그대로 현대 한국 선불교의 살아 있는 큰 스승이다. 대원 큰스님은 여든이 넘는 노령에도 요즘도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서 여름과 겨울, 여섯 달의 안거 때마다 방부(房付)를 들인 후학들과 똑같이 용맹정진을 한다. 노구에도 아랑곳 없이 구도역정에 있어서 만큼은 아직도 현역인 대원 스님은 출가 후 제방 선원을 돌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당대의 내로라하는 선지식을 모시고 수행하며 공부를 점검받았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대원 대종사는 신년인터뷰를 위해 찾은 구랍 23일 “코로나 등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고 있는 요즘일수록 더욱더 선을 통해 참나를 바로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결코 놓치지 말라”며 끊임없는 수행 정진을 당부했다. 이어 대원 스님은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에게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나를 바로 보고 나 자신부터 개혁한다면 종국에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하나 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겸 법문을 지상중계 한다.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6년 만 14세의 나이에 상주 남장사로 출가(은사: 고암 스님, 계사: 동산 스님)하여, 1958년(만 16세)에 사미계를, 1962년(만 20세)에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일대시교를 이수한 뒤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 받았으며, 21년간 제방선원을 다니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2001년에는 오등시민선원을 개원했으며, 2014년 조계종 대종사 법계를 품서받았다. 이후 2017년 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에 위촉됐다. 그리고 현재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법어집으로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와 〈진흙속에서 달이 뜨네〉 등이 있다.

대담 및 정리=김주일 본지 편집국장, 사진=박재완 기자

머무르는 바 없는 응무소주
진리의 무아 세계 이생기심
마음으로 양변이 없음 알고
밖으로 자비로운 마음 써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모든 중생들에게 이 소식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목전에서 이 소식을 확연히 깨달아 아신다면 영원히 대안심입명처(大安心立命處)를 수용할 것이요, 머무름이 없이 머물 것이며, 무심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장자 머리 위에 해와 달을 걸고 광명을 대천세계에 비추니 천하가 태평하고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청풍무종적(淸風無蹤跡)하고
(맑은 바람은 지나가도 자취가 없고)
백운자거래(白雲自去來)한데
(흰 구름은 스스로 오고 가는데)
통신무장애(通身無障碍)하며
(몸을 통하여 걸림이 없으며)
명주자희롱(明珠自戱弄)이로다
(밝은 구슬을 스스로 희롱함이로다)

아시겠습니까? 부처가 있는 곳에 가서는 머무르지 말고 지나가고, 부처가 없는 곳을 만나거든 급히 지나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란 말입니다. 이 두 길을 여의고 대중은 바로 일러보십시오. 우리는 두 양변을 벗어나야 합니다. 양변서 놀아나면 우리 인생은 자유로운 생활을 못합니다.

지식에도 무식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지식은 양변의 시비를 갖고 있어서 불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나 자신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밖을 향해 해결하려고 하면 도리어 전도몽상을 이룹니다. 나를 바로 보면 모든 것에 걸림 없는 큰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시작도 멋지고 중간도 멋지고, 끝마침도 멋지게 합니다. 또한 과감하게 모든 것을 책임질 줄 압니다.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유와 무가 융합하는 것을 중도라 이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첨단 과학 시대가 오늘날 인류에게 생활의 편리함을 준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무한한 불안과 공포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벗어난 세계야말로 인류에게 영원한 편안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응무소주이생기심’

그러면 지식을 벗어난 세계는 어떻기에 그렇게 영원한 편안함과 즐거움과 복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부처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요, 신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요, 사람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중생에게 머무르는 것도 아니며, 성품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에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진여자성이라고 이름 붙인다면 응무소주라는 머무르는 바 없는 그 실체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누구나가 다 평등합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어떻다고 말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불가사의한 세계를 이생기심(而生其心)이라 하고 그 세계를 밖으로 드러내서 마음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드러내서 쓰는 사람은 내가 없는 무아의 차원이라 하기도 하고, 그것을 무아라고도 하며 무주라고 하기도 하고, 머무르는 바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무아와 무주의 마음 쓰는 것을, 무한대한 마음을 밖으로 쓰는 것을 곧 대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아와 대자비의 그 마음을 밖으로 쓰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야말로 천국이고, 극락세계를 정착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차원의 세계로 발돋움하는 것이며, 여기에서는 3차원, 4차원, 5차원 어떤 차원도 벗어난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애자재합니다. 이것을 서로가 걸림이 없는 세계라고 합니다.

걸림이 없는 세계

그러면 걸림이 없는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눈만 마주쳐도 척 알아차리고 다 압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통해버리죠. 그래서 융합이 됩니다. 그 세계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 오늘날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직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다 내 책임이요 합니다. 만약 모든 직장인이 다 스스로가 똑같이 내 책임이라고 같이 들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게 해결됩니다. 양변의 마음을 벗어나려면 우리는 응무소주이생기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뭔지, 나란 존재가 뭔지를 바로 알면 그 사람은 응무소주를 알게 되고, 그 때 자기의 무한대한 무아 · 자비의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본래 응무소주라는 무아의 세계에서는 귀천이 없고 고하도 없지만, 오늘날 이 세계에는 귀천도 있고 고하도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왜일까요? 응무소주라는 이 무아의, 자비의 마음을 널리 밖으로 옮겨 쓴 사람은 쓴 것만큼 무한대하게 밖으로 창조하게 되지만, 그 마음을 도외시하고 버리고 중생의 양변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고 나쁜 것을 가리고 따지고 좋은 것은 내가 차지하고 나쁜 것은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로는 밖으로 크게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은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무소주이생기심의 마음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지식정보 사회, 첨단 과학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정말 영원한 행복과 편안함을 정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지식이 다시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에 의해서 잠식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또 새로운 지식을 개발해서 드러내면 오늘날 쓰는 이 지식은 다시 잠식돼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우리들이 응무소주의 이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자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이 확실히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자기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깨달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박 인터뷰

△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내 앞에 앉기 전에 선에 대한 것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이를 아시겠습니까. 선이란 것은 문자를 떠난 차원의 세계라서 오늘 산승이 이 자리에서 선이 어떻다 말로 하고 이야기 하게 되면 바로 저 자신도, 그리고 큰 허물을 짊어지고 똥바가지를 뒤집어쓰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선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열반, 즉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려면 항시 번뇌 망상이란 이름의 도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화두가 일념으로 이어지면 살고 화두가 끊기면 죽은 물건이니 산 사람이 아니지요. 마음이라 함은 그 어떠한 물건도 아니니 여러분이 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망상이 탁 일어날 때 이를 알아차리는 놈이 무엇인고 참구하다보면 대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화두에 집중하는 과정인 ‘참구’에 있어, 사부대중 모두를 목에 줄을 매단 ‘사형수’라고 일컬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신지요.

망상과 번뇌라는 도적에 덜컥 사로잡히는 순간이 바로 사형대 스위치가 작동하는 때이니 화두를 일념으로 이어지게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화두가 일념삼매에 들면 생명이 살아 있는 것이고 망상으로 인해 화두가 안 들리고 딱 끊어지면 그것은 사형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즉 화두가 안 되고 일념이 안 되는 사람은 깨닫지도 못했고, 죽은 시체나 다름없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 탓’ 보다 ‘내 탓’을 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관계와 잘못이 없어도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책임지지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군자입니다. 훗날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좋은 리더로 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대형 참사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흔들림 없는 사태 수습은 오로지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불심’이야말로 사회 혼란 해결의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잘못된 일이 닥쳤을 때, 그게 잘못됐는데 그 문제에 급급하고 거기서 골몰할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나의 ‘불심’으로 잠시라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방안과 방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불교의 三寶 佛(쌍둥이 비로자나부처님), 法(팔만대장경), 僧(희랑대사상)
모두를 국보로 보유한 최초의 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주지 연암 현응 대화상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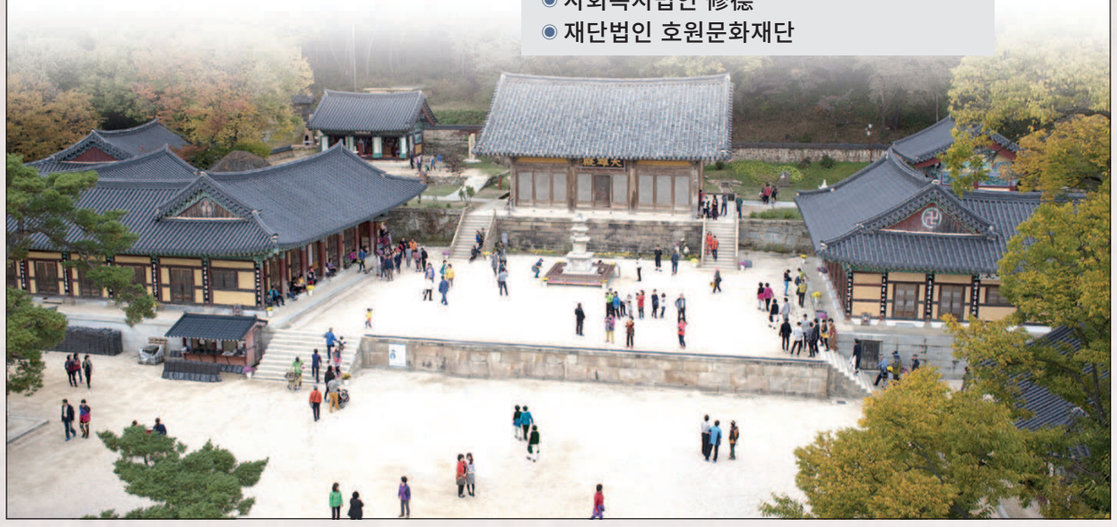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사회복지법인 修德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전화 (054)429-1700~3, 429-1713~15 팩스 (054)436-3174



2023 謹賀新年 계묘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회 주 임담 의현
주 지 능 종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전화 053)980-7900 / 팩스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海寺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금산도영 총 무 화평 사 회 우림
회 주 취산도법 기 획 광진 포 교 제환
주 지 월강일원 교 무 석초 호 법 덕림
부주지 시산원혜 재 무 여찬

17교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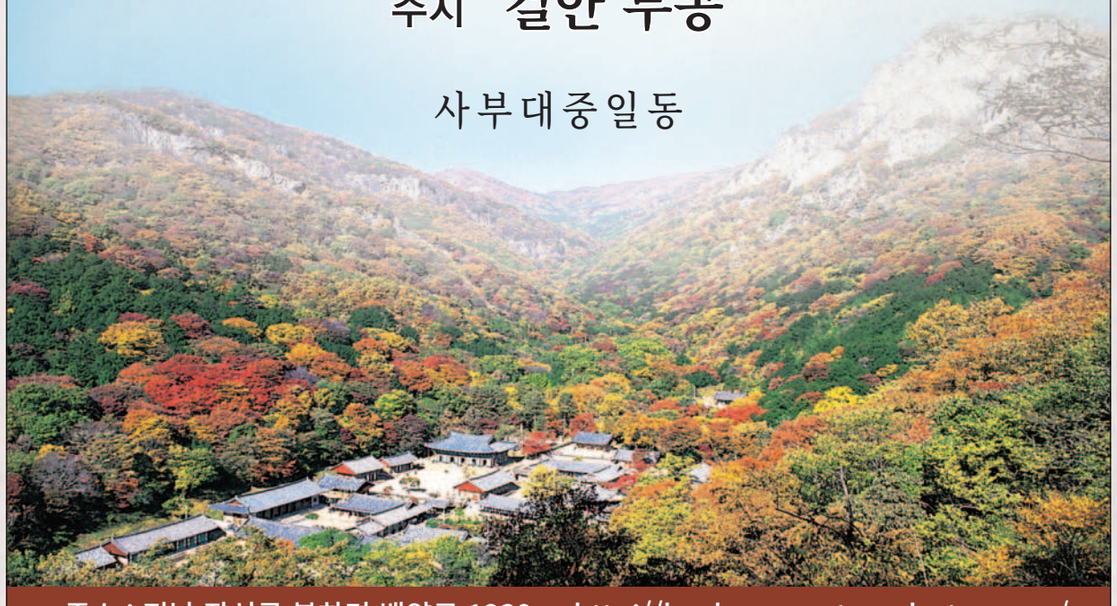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부설 운영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연꽃유치원·남양주시 노인복지관·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경기 남양주 아동전문 보호기관·구리시 장자 어린이집·구리 인창 경로식당·구리 실버인력뱅크·학대피해 아동쉼터 희망둥지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 ·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갤러리 리유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반야스터디 카페
  - 담마 북까페

주지 경 우

사부대중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 구 장 능 원
부교구장 종 원

대한민국 육 · 해 · 공 군 군 승 일동
대한민국 육·해·공군 예비역 군승단 일동
대한민국 국 군 불 교 총 신 도 회 일동
대한민국 국군예비역불자연합회 일동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무심 보광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0길 87
목동 사무국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 765-2701 팩스 (02) 741-1385

2023 謹賀新年 계묘년

대한불교조계종

봉 녕 사

봉녕사승가대학 ·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주지 진 상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전화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 주 명 성
주 지 진 성
율 주 일 진
학 장 운 산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 우현 광우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46
전화 055-246-8393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 대자유치원 055-245-0108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불지사

주지 청계 정인

앞서가는 가르침, 부처님 따라하기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2
전화 055)262-6663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화개산 반야사

주지 종오 혜명

신도회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전화 055)282-7402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신흥사

조실 영 규
주지 호 법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원동로 2282-111
대광전 보물 1120호 / 대광전 벽화 보물 1757호

2023 謹賀新年 계묘년

함안불교연합회신도회

함안불교사암연합회, 신도회, 바웃다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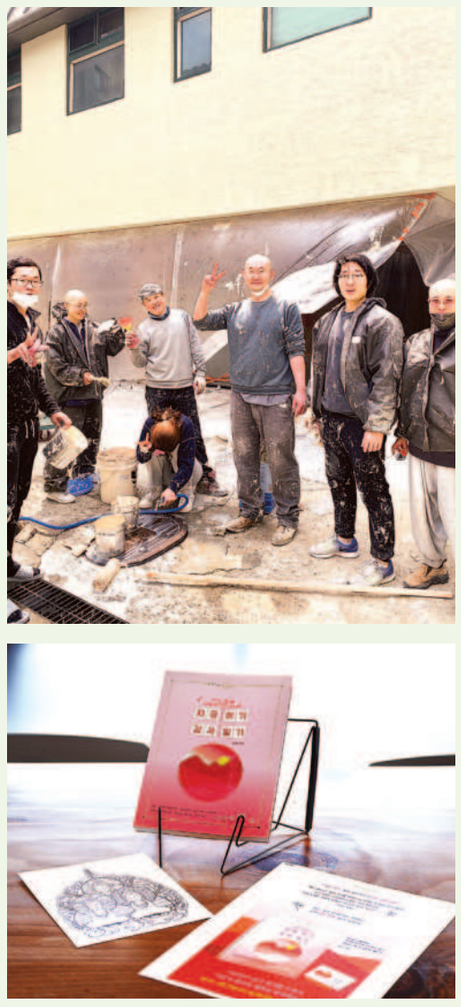
신도회장 조용찬
부 회 장 박성하

총무 신현숙
차장 김상곤

신도회일동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번지
전화 055)584-0033












‘세상 힙한’ 세대 마음돌봄에 MZ스님들 나섰다

프롤로그 MZ포교하는 MZ스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힙’ 한 세대는 MZ세대다.

사회학적으로 ‘세대’는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전개하는 일정 폭(幅)의 연령층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MZ세대는 1980~1994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M세대)와 1995~2004년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한다. 현재 20~30대의 연령층이 이에 해당한다.

MZ세대는 최신 트렌드를 따르며 소비능력이 가장 뛰어난 세대로 평가된다.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 대두로 정보의 보편화 속에서 자라 합리성을 주장하고, 자녀들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 탈권위, 개인의식, 자기주장이 강하다. 환경과 평등과 공정, 사회정의 등에도 관심이 많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SNS로 소통에 능하고,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이기도 하다.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나아가서는 인간관계도 포기한다고 해서 MZ세대에 앞서 ‘N포 세대’로 표현되기도 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에 이슈에 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류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낮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기에 MZ세대들은 자본과 거리가 먼 것으로 느껴지는 종교에 대해서 냉정하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한국갤럽이 2021년 조사한 종교인 비율을 보더라도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의 종교인 비율은 2004년 45%에서 2014년 31%, 2021년 22%로 급감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인데, 이러한 세대를 대상으로 포교하려면 불교의 과학적, 철학적, 합리적 특징들을 부각시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행이 이웃종교에 비해 불교의 호감도는 높다. 불교에 대한 호감을 표한 이들은 20%로 가톨릭 13%, 개신교 6%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를 답한 이들도 61%에 달한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여가 스포츠 등 종교의 기능을 대신하는 대체종교 증가, 종교 커뮤니티를 대신하는 다양한 플랫폼 출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 건강, 화합 등 MZ세대가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불교가 지닌 사상은 적절하게 맞닿아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좋은 사상과 가르침을 지니고서도 이들에게 이러한 가치를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을 통해 중생들의 고뇌를 들었고, 그들의 어려움에 일종의 솔루션을 제공했다. MZ세대를 위해 불교계가 단순히 신도를 늘리겠다는 전법 포교 개념이 아닌, 세대 공감과 가치 확대를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현대불교신문이 신년특집 ‘MZ포교 MZ스님’을 통해 청년세대 포교에 나선 MZ세대 스님들을 만났다.

‘세상 힙한’ 청년과 예술의 성지 서울 홍대 중심가에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명상센터 ‘저스트비 템플’을 운영중인 **준한 스님**, 장병들과 새벽 보초를 함께하는 ‘꽃스님’ 군종장교 **범정 스님**, 대학생 포교에 뛰어든 진짜 대학생 스님들의 모임 **‘칠불회’**, 청년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길 바라는 서원으로 ‘감사일기’ 책을 펴낸 **한산 스님** 등이 바로 그들이다.

MZ세대들의 마음돌봄은 동년배들인 본인들에게 맡겨달라는 MZ세대 스님들은 “일상생활에서 동년배간의 공감대 형성”을 중요한 포인트로 꼽았다.

2023 謹賀新年 계묘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조계종 원로의원·회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천
원 장 덕민 선원장 종우
교 무 정수 재 무 성심
포 교 성제 호 법 상락
사 서 성주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 분당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 불국사 템플스테이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전화 054)746-9912~4 / 팩스 054)746-1476

MZ포교 MZ스님

청년 주인인 '힙한' 템플…스님은 거들뿐

저스트비 템플 주지 준한 스님

www.instagram.com/justbe_temple

1년 간 도반들과 직접 리모델링
108배 하는 게스트하우스 오픈
덕숭총림 수덕사 포교당 등록도

스님은 예불·기도·청소 역할 뿐
다양한 프로그램들 청년 주도로
새로운 포교모델 확산되길 기대



서울 홍대 인근 개원한 저스트비 템플은 현대적 승가를 모토로 한 수행 놀이터를 꿈꾼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매일 새벽 5시 30분, 죽비소리와 함께 108배를 하는 게스트하우스. 아침 식사 전 좌선과 명상, 요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저녁에는 다도와 프리댄스, 드로잉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듣기만 해도 '세상 힙(Hip)한' 게스트하우스가 젊음과 예술의 성지 홍대 인근에 문을 열었다. '저스트비 템플(JustBe Temple)'로 불리는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이다.

저스트비 템플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방향을 만들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수행 놀이터'이자 현대적 승가를 모토로 2022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에 문을 연 게스트하우스 포교당이다. '세상 힙한' 것들이 모여 있는 듯 한 저스트비 템플 중심에는 주지 준한 스님이 있다.

"감정적으로 막히고, 단절되고, 불안하고,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는 느낌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고 있죠.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죠."

저스트비 템플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준한 스님은 룸메이트와 함께 자신들의 공간을 명상실로 꾸몄다. 친구들을 초대, 함께 예불 드리고 차를 마시고, 불교 철학을 토론하며 '명상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꿈꿨다.

금강경 번역 아르바이트 도중 맺은 '푸른눈의 수행자' 현각 스님과의 인연으로 출가한 준한 스님은 해인사승가대학과 율원을 졸업하고 출가자의 삶에 충실했다. 이후 룸메이트도 출가하면서 수년 전 함께 꿈꾼 명상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저스트비 템플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1년 여름, 관광객이 들끓던 홍대 인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스트하우스가 코로나19 사태 속 폐업하면서부터다. 준한 스님은 1000일 기도 회향을 100일 앞둔 어느 날, 건물주로부터 기도요청을 받았고 주소를 보는 순간 자신의 그림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룸메이트였던 백담 스님, 그리고 뜻을 같이 하던 젊은 청년들과 함께 6층 건물의 전체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건설 경험이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경비 절감을 위해 건축을 전공한 준한 스님을 필두로 벽을 부수고, 페인트를 칠하고, 전구를 고르는 것까지 하나하나 직접 했다. 그리고 13개월 후, 저스트비 템플이 문을 열었다. 덕숭총림 수덕사 포교당으로 종단 등록도 마쳤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인 저스트비 템플은 1층은 안내데스크와 다도, 독서공간 2층과 3층은 템플스테이와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1인용 숙소, 4층 사무실, 5층 부처님을 모신 법당으로 구성됐다.

법당에서는 매일매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108배, 차담, 염불, 프리 댄스, 드로잉, 소리 목욕(Sound Bath)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열린다.

"은사 현각 스님께서는 기존 포교방식도 존중하지만 젊은 친구들과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면 함께 공부하고, 살고, 먹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저는 무언가를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이가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준한 스님은 "저스트비 템플의 주인은 청년들"이라고 강조했다. 본인을 비롯해 상주하는 5명의 스님들은 예불과 기도를 하고 이곳을 다녀가는 이들을 위해 밥하고 청소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다양한 저녁 프로그램은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 주도로 이뤄진다.

한국 전통 불교문화와 젊은 청년들의 콜라보가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증거다.

준한 스님은 새로운 포교모델로서 저스트비 템플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정적인 수행 위주의 포교에서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중심이 되길 바란다.

준한 스님은 "점차적으로 저스트비 템플은 균형과 창의성, 그리고 자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에 더 많은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허브가 되고자 한다"면서 "음악, 디자인, 건강관련 첨단기술, 청년 프로젝트 등을 하며 수행 놀이터 저스트비 템플에서 함께 놀자"고 말했다.

"새벽보초 함께하는 게 군포교 노하우"

'꽃스님' 군종장교 범정 스님

www.instagram.com/kkochsnim

진해기지사령부 해안사 '꽃스님'
장병에 형이자 친구 같은 존재
"군대, 포교에 가장 좋은 터전"

인생 가장 힘든 시기 부대끼며
관계 맺기로 행복 주는게 포교
SNS 통한 일상공유 인기몰이


범정 스님은 장병들에게 형이자 친구 같은 존재로 시선을 맞춰 나간다.

경남 창원 진해기지사령부 해안사(海安寺)에는 '꽃스님'이라 불리는 스님이 있다. 부대 내 군법당에서 법회를 주관하고,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며 정신력 함양 및 사기를 돕는 역할을 하는 군종장교 범종 스님이다.

15살이었던 2008년, 막냇동생과 구례 화엄사로 들어와 절 생활을 시작한 범정 스님은 우석 스님을 은사로 2012년 사미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2017년 현역으로 입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

중앙대 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던 스님은 "군대야말로 젊은 청년들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고 포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이다. 어린 나이에 큰 경험치가 될 것"이라는 은사 스님의 조언으로 제대 3년 만인 2021년 군종장교로 자원입대했다. 두 번째 군 생활을 한지 2년째, 스님은 지금 군인이자 스님, 두 가지 소임을 해내고 있다.

신병들을 위한 법회가 있는 날이면 군복을 차려입고 법회를 진행하는 범정 스님은 장병들에게 형이자 친구 같은 존재다.

'빡센' 군 생활을 이미 해본 경험 때문일까. 시선을 맞춰 다가가는 스님의 온화한 소통 방식은 장병들의 군 생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죠. 복지 혜택이 예전에 비해 좋아졌다고 하지만, 지금 젊은 장병들은 예전을 알지 못하죠. 새벽 보초가 힘들다는 걸 알기에 저도 새벽에 나가곤 해요. 간식을 한 번씩 건네주는 것도 노하우 중 하나죠."

인생에 있어 가장 힘겨운 시기인 군복무 중 몸을 부대끼며 만나는 스님에게서 감로수 같은 부처님 가르침만큼이나 더 없는 위안과 힘을 받는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범정 스님은 "장병들에게 포교해야지 하는 마음은 애초에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머리를 깎은 스님이 때로는 군복을, 때로는 승복을 입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포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 누가 오지 않더라도 가사장삼 수하고 예불을 드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무신에 흰색 양말을 항상 깨끗이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SNS도 마찬가지다. 현재 4000여 명의 팔로워를 가진 스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군 생활뿐 아니라 행자시절, 요가, 차담, 포행, 도반들과의 이야기 등 일상을 공유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근저에는 부처님 말씀이 녹아져 있다.

범정 스님은 "장병들에게 불교를 그저 가르치고 주입시킨다고 해서 포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그보다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님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포교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군에서 장병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에 제대에 대한 생각도 잠시 접어뒀다는 스님은 "꽃 같은 수행자가 되고 싶다"는 말했다.

"기약 없는 누군가에서 제가 품은 향을 맡게 해주는 꽃다운 수행자. 그래서 저는 꽃이 되고자 합니다."

2023 謹賀新年 계묘년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보 운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 유네스코 등재 확정

www.beomeo.kr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 (051)508-3122

청년 마음속 피어난 촛불 같은 존재 희망

동국대 19학번 스님들의 모임 칠불회

www.instagram.com/with_7bul

"대학생은 뭘 좋아할까" 화두
또래에 불교 알린단 원력으로
더불어 배우고 성장위해 결성

SNS · 환경 커피 캠페인 등
청년 눈높이 맞는 활동 통해
학교 내 스님 이미지 개선도


2019년 결성 후 동국대를 넘어 전방위로 청년세대를 만나고 있는 칠불회.

"아직 경전을 다 꿰고 있지도, 명법문 명설법도 하지 못하지만 미래세대 포교에 대한 도전과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걸요?"

20 · 30 대학생 스님들이 또래 청년들에게 불교를 알리겠다는 원력 하나로 똘똘 뭉쳤다. 동국대 19학번 스님들의 모임 칠불회(회장 세광)다.

칠불회 중심에는 회장 세광 스님이 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출가한 세광 스님은 동학사 승가대학에서 미래세대 포교를 펼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후 동국대 19학번으로 입학하자마자 도반 스님들에게 "같이 포교하자"고 설득해 칠불회를 탄생시켰다. 2030 MZ세대 스님들이 또래 대학생들과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모임 이름을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뜻에서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에서 따온 만큼 칠불회는 "대학생과 청년은 뭘 좋아할까?"를 화두로 3년간 캠퍼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19년 결성 얼마 후 코로나19를 만나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지만 칠불회는 환경 커피 캠페인, DIY만들기, 인스타그램 '위드칠불' 운영, 헌혈과 쓰레기 줍기 같은 봉사활동, 상월청년회 지도법사, 축제 참여, 기부금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청년세대들에게 다가갔다.

"칠불회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동국대 내에서 스님의 이미지 개선' 이었어요. 때문에 학생들과 한번이라도 인사를 나누고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었던 활동들로 구성했죠."

막 강원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해 호기롭게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만해도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포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에 부풀어 있었다. 처음 출가할 때, 부처님처럼 깨달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큰 착각이었음을 곧 알게 됐다. 대학생들에게는 종교보다 취업이 먼저였고 경제적 문제가 더 큰 관심이었다. 게다가 닥친 코로나19는 다양한 대면 콘텐츠를 준비한 칠불회 스님들의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칠불회는 괜히 MZ세대 스님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각자의 강점과 재능을 살려 교육, 홍보, 봉사 등으로 팀을 나눴다.

조계종 교육원이 실시하는 승가결사체 인증제도에 지원, 당당히 자격을 얻었고 이후 손소독제를 만들어 나누는 활동을 시작으로 SNS 소통과 온라인 법회를 시작했다. 변하는 시대에 맞게 청년들이 선호하는 모습으로 다가간 것이다.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소정의 선물도 준비해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자기계발소모임과 대학 법당에서 법문을 하기도 했고 상월청년회에서 지도법사로도 활동했다.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불교를 알릴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해서일까. 어느 순간부터 대학생들의 피드백이 이어졌다. 얼굴은 알지만 미쳐 말을 걸지 못했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듣노라고 먼저 인사를 해왔고 대학교 커뮤니티에는 스님과 관련된 긍정적인 게시물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칠불회장 세광 스님은 "대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대학생 스님들의 작고 소중한 고민들이 모여 칠불회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MZ세대들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칠불회 스님들 대부분은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다. 회장 세광 스님과 유정 스님은 군승이라는 큰 뜻을 품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석사과정에 들어가는 스님, 본사에 돌아가 소임을 맡을 스님도 있다. 그렇지만 해체는 아니다.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칠불회의 활동은 더욱 빛날 수 있다는 게 세광 스님의 설명이다.

세광 스님은 "칠불회는 청년들에게 마음속에 피어있는 촛불 같은 존재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촛불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모두의 앞길을 밝혀주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바로 지금 일상서 행복 발견하길 서원"

'지금여기 감사일기' 펴낸 한산 스님

www.instagram.com/oma.openmind

온라인 카페서 일기 수행 제안
펀딩 초과 달성…책 출간까지
명상 차용 '분노일기'에 눈길

경제적 자유 꿈꾸는 MZ세대들
내면 정신건강 집중 모습 보며
마음 다스리는 프로그램 계획도


청년들이 일상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감사일기'를 펴낸 한산 스님.

"청년들을 비롯한 현대인들을 위한 포교 방안, 특히 종교를 초월해 누구나 지금 바로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서원으로 책을 만들었죠."

최근 창작 명상서 '지금여기 감사일기'(그봄 출판사)를 출간한 한산 스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카페 '100일 감사 일기'를 운영하며 종교를 초월해 회원들과 함께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 수행을 제안, 지금까지도 온라인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카페를 계기로 1년의 준비 끝에 '지금여기 감사일기'(이하 감사일기)를 출간했으니 감사일기에 대한 스님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출가 전 출판사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중앙승가대 재학시절 1인출판사 '이층버스'를 창업하던 경험이 있는 한산 스님은 이번에는 직접 저자로 나섰다. 감사일기를 출간하며 스님은 MZ세대답게 불교계에서 흔치 않는 펀딩에 도전해 눈길을 끌었다. 책 출간 기금 모연을 크라우드 펀딩인 '텀블벅'에서 진행한 것. 펀딩은 목표 금액을 541% 초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인 MZ세대로서, 이에 맞는 포교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이 적중한 것이다.

"이 시대에 석가모니부처님이 태어나셨다면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다양한 역할을 하는 스님과 불자들을 존중하고 응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온라인 카페를 통해 요즘 MZ세대의 대다수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습을 보았다는 스님은 "밖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지만 안으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기를 바라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정신건강에 집중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를 다스리기 위한 상담과 명상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스님은 감사일기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실천을 고스란히 담았다. 수행자로 살아가며 경험한 마음공부의 내용을 소중한 이에게 직접 전하듯 에세이로 남겼고 매일 새로운 주제로 사유의 길을 제안했다. 특히 '분노 일기'가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한산 스님은 "분노는 지혜의 다른 명칭이며 감사 일기와 함께 분노 일기를 쓰다 보면 오히려 분노를 내려놓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어 지혜 일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책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일기의 가치를 전하고 싶다는 한산 스님은 새해시작과 함께 감사일기와 연계해 청년들을 위한 마음을 다스리는 글쓰기, 그림, 명상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북토크도 개최하고 싶다는 게 스님의 바램이다.

한산 스님은 "각종 프로젝트들은 모두 수행의 길이 아님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춰보길 바란다"면서 "스스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주변에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MZ포교 MZ스님

2023 謹賀新年 계묘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TEL 051)746-2256, 744-48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245-7 성담사 TEL 055)867-9999

한국 불교, 위기의 MZ세대 껴안을 수 있을까?

MZ포교하는 MZ스님



'죽고 싶은데 왜 떡볶이를 먹고 싶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2018년 낯선 제목의 베스트셀러가 등장했습니다. MZ세대의 끝자락에 걸쳐 있는 필자도 이해되지 않는데 X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이 감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한국에서는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동양인, 동서양 반반인 그리고 서양인 사람들이 섞여서 서로를 불편해하는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자란 노인 세대는 동양인의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농촌에서 유년기를 보낸 후 도시에서 산업화를 겪고 자란 부모 세대는 동서양이 반반 섞인 세계관을 가졌고 철저하게 서양식 교육을 받고 자라난 손자 세대는 서양인의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분명 한핏줄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모였으니 공감보다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에 동양인 스님과 동서양 반반인 스님, 그리고 서양인 스님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다만 재가에 비해 갈등이 덜 표출되는 이유는 동양의 세계관을 가진 어른들의 세계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스님들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전원일기를 시청하며 자라난 어른 세대들이 무한도전을 보며 자라난 MZ세대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MZ세대 스님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승단이 과연 청년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MZ세대가 받은 고통의 유산

청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88만 원 세대, N포 세대'

'MZ세대'라는 용어가 쓰이기 전 청년 세대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대들의 평균 월수입이 88만 원이라는 점을 꼬집어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애와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3포, 정규직 취업과 내 집 마련도 포기해야 한다는 5포, 건강과 외모 관리도 포기해야 한다는 7포, 인간관계와 희망도 포기해야 한다는 9포, 앞의 9가지를 포기했으니 마지막으로 삶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는 10포의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N포 세대입니다. 혹시 이러한 포기가 개인의 근성 없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세대 자체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기성세대에게 물려받은 유산일 뿐입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MZ세대는 자립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이후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음)들은 '지금 아니면 평생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이다!'라는 공포심으로 대출을 통해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였는데, 대출이자가 갑자기 높아진 상황이 되어 경제적 자립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MZ세대가 주류로 나설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MZ세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산소를 사서 마시는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편의점에서 청정 지역의 상표가 붙어 있는 산소통을 구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환경 파괴는 심각해졌습니다. 틱낫한(Thich Nhat Hanh, 1926-2022) 스님은 생애 마지막 저서인 〈지구별 여행을 마치며〉를 통해 기성세대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셀 수 없이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잠시 빌린 지구에 온갖 해악과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에게 지구를 돌려줄 때가 되니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청년들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을까?

'비혼'이라는 용어는 X세대와 함께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MZ세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비혼'이 아니라 '비연애'를 추구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비혼과 비연애는 자유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혈연과 학연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며 직면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관계들 속에서는 취향을 존중해 달라는 '취존(취향 존중)'을 외치며 버티지만, 피할 수 있는 관계는 굳이 스트레스받으며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갈등보다는 자유를 선택하는 심리가 비연애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음이 유지되고 호기심이 많은 10대에서 30대까지,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는 40대까지는 굳이 관계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즐거움이 많습니다. 즐거움의 영역을 말 그대로 '개취(개인의 취향)'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취향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시기가 지난 뒤 중년으로 접어들면 외로움이라는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청년층의 1인 가구가 자유라면 중년층의 1인 가구는 외로움입니다.

비혼 · 비연애 전문 승단, 1인 가구 노하우 MZ에 전할수 있어
기도 수행 대해 체계적·과학적·논리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MBTI 명상게임' 선방 아닌 메타버스 세상 명상 센터 어울려
MZ세대의 욕구·문화 초점 맞춘 재가 포교사 양성에도 관심을

필연적으로 독거(獨居) 그리고 독고(獨孤) 가구로 살아가야 할 MZ세대가 맞닥뜨릴 외로움에 대해 한국불교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승단은 비혼과 비연애의 전문가들입니다. 27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비혼으로 살아가며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외로움을 견딘 이들입니다. 승단은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노하우를 MZ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수행하면 외로움이 극복된다!"

이런 뜬구름 잡는 듯한 윽박지름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수행할 때 더욱 자유로워지고, 왜 외로움이 극복되는지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도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간관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혈연과 결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정(人情)이 아닌 도정(道情)을 원동력으로 형성된 관계를 통해 청년들의 외로움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간화선에서 MBTI로, 선방에서 메타버스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MZ세대는 출가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세대에서 비혼과 비연애를 추구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둘째, 현실에 대한 염리심이 있습니다. 셋째, 자아 탐구에 대한 욕구가 높습니다. 만약 한국 불교가 MZ세대의 성향과 욕구에 걸맞은 콘텐츠를 그들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청년 불자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MZ세대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의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 유형 검사)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일상의 대화는 물론, 공적인 업무를 볼 때도 MBTI를 자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왜 MBTI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청년들은 MBTI를 통해서 나 그리고 너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아와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이전 세대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에 대해 알고 싶을 때는 점을 치러 갔습니다. 청년 세대들은 이전 세대가 선택한 명리학이 아닌 MBTI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MBTI 결과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기의 단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명상'에 관한 앱을 설치하고 5분, 10분 동안 수식관과 마음챙김 수행을 마치 게임처럼 합니다.

좁디좁은 고시원 방에 외롭게 갇혀 살며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세대가 공유한 문화를 통해 자아 탐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해 끊임없이 자기 계발에 열중합니다. 더불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일상에서 올바른 습관과 루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어느 세대보다도 MZ세대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합니다. 다만, 불교에서 MZ세대에 맞는 적절한 콘텐츠와 플랫폼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디지털 원주민)라고도 불리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간화선'이 아닌 'MBTI 명상 게임'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명상 센터는 버스도 다니지 않는 산속 선방이 아니라 메타버스(Metaverse) 세상 속 명상 센터가 어울립니다. 단언컨대 부처님의 설법 방식인 비유설법을 현대적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MZ세대는 불교에 열광할 것입니다.

MZ세대 포교사 양성의 길

MZ세대들에게 불교를 전달하기 적합한 주체는 또래 스님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승단 구성원 비율로 볼 때 현실적으로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MZ세대 재가 포교사 양성이 함께 가야합니다. 청년 불자가 적은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극소수의 청년 불자를 대상으로 MZ 포교사 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종단 차원의 포교사 교육과정이 있지만, 이는 MZ세대 포교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MZ 포교사 교육은 철저하게 MZ세대의 욕구와 문화에 초점을 맞춰야만 그 효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청년은 청년에게 그들의 문화로 콘텐츠를 공유할 때 적절한 비유설법이 가능합니다.

세대별 포교는 사실 전 연령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와 같이 세대를 세분화하여 각자의 연령대에 어울리는 추천 경전들을 선정하고 눈높이를 맞춘 포교 방법과 그들의 문화로 재탄생한 콘텐츠를 갖추어 잠재적 또래 불자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불교가 청년 세대를 위한 포교 전략과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단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Z세대 포교에서 활로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위기에 빠진 MZ세대는 불교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기에, 적절한 콘텐츠로 불교를 재해석하여 MZ세대 포교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MZ세대 스님과 함께 MZ세대 재가 포교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원빈 스님은 2005년 해인사서 출가, 중앙승가대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현재 행복문화연구소 소장, 산청 송덕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유튜브 방송 '원빈스님의 행복문화연구소', '붓다스쿨' 채널 운영한다. 주요저서로 《불교인문학 극락추천서》, 《나를 더 나답게》, 《굿바이, 분노》 등이 있다.



대한불교천태종

부산 광명사

부산 천태종 초석이 된 도량!
천태일승묘법의 가르침이 밝게 빛나는 관음기도도량

주지 변춘광

사부대중일동

신도회장 이재동 부회장 하진홍 전순선

총무위원 전병숙 교무위원 이재은 재무위원 김영훈 박숙희 박난영 사업위원 김상호 기획위원 변기홍
복지위원 김회승 홍보위원 박종희 문화위원 김풍진 부녀위원 이수남 금정지회장 정대영 북구지회장 손인환 동래지회장 문병원
다도회장 김영미 합창단장 박점숙 봉사회장 권기범 원회회장 최경숙 연등회장 강외란 청년회장 최민석

법회안내
정기법회 매월 2주 오전 11시
법화산림법회 매월 1주·3주 일요일 오후 9시
생활명상법회 매월 4주 일요일 오전 11시
천태차문화대학 월 3회 금요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51 전화 051)581-1331 팩스 051)512-7261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울산 시민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
사람과 예술·전통 그리고 상생

울산태화복합문화센터

함월산 백양사 주지 산옹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암연합회

자 문 월파(문수사), 눌암(법륜사), 지용(남산사)
상임자문위원장 덕진(정토사)
회 장 산옹(백양사)
감 사 혜안(성불사)
상임부회장 혜원(해남사)
부 회 장 보화(월봉사), 문성(옥천암)
태암(관음사), 본명(등룡사)
종현(신흥사), 종선(청룡암)
천조(석남사)

총무부장 효암(여여선원)
교무부장 양관(동축사)
재무부장 범허(화장사)
사회부장 덕송(도솔암)
포교부장 정진(태안사)
복지부장 명조(선암사)

부설
울산불교교육대학 학장 진응(내원암)
울산사암연합합창단 단장 기탁(화봉선원)

회원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51(신정동) 성수빌딩6층
전화 052)266-3318~9 팩스 052)261-128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호국도량

울산 신흥사

주지 종현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지 지은 산옹

신도회일동



영남최고의 관음기도도량

천성산

미타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주진로 379-61
전화 055)365-4184

대한불교조계종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성철스님 기념관

산청 겁외사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불국정토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회주 원택스님
주지 일학스님

겁외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

주 지 대휴당 녹원

신도회장 김종인, 손경례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전화 055)356-0124 부산포교원 051)516-3000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1-23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오후5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거제 신광사

주 지 선 안

신도회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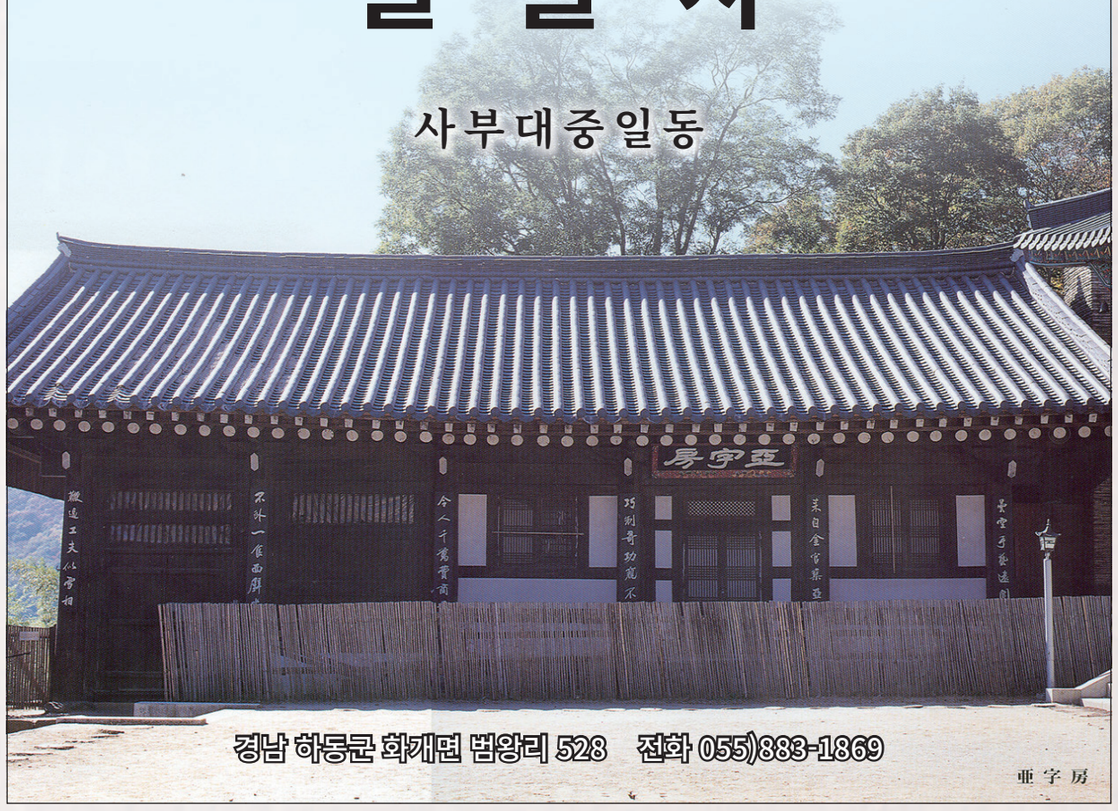


신광사 수목장 상담문의 : 1855-0494, 010-2094-0580 경남 거제시 사등면 오랑2길 108

대한불교조계종

칠 불 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528 전화 055)883-1869

2023 謹賀新年 계묘년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전화 055)746-8162 팩스 055)746-7825

태국서 불교·이슬람교 공존 마을 화제

거주구 분리 않는 평등한 생활
불교식 이슬람 사원 조화 상징
최근 이슬람 개종 늘어나지만
지역 안정 유지 강한 결의보여

박영빈 객원기자


불교도가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카오 모스크. 사진출처=시사통신사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한 테러로 끊임없는 긴장이 이어지는 태국 남부에 불교도와 이슬람교도가 손을 잡고 사는 지역이 있다. 지난 12월 18일 일본의 '시사통신사' 등 외신들은 두 종교가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태국 남부의 모습을 보도했다.

태국 남부 파타니주. 말레이시아에 가까워 태국 최남단으로 불리는 이 지역은 인구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태국에서 보기 드물게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타니주엔 오래전부터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이슬람 무장세력의 테러가 이어져오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다. 실제 파타니주의 많은 지구들은 불교도와 이슬람교도의 거주구가 나뉘어 분쟁사태의 발발을 막고 있다.

이 중 사이카오 지구는 최근 불교와 이슬람교가 함께 살아가는 모범적인 모습으로 꼽히고 있다. 태국 정부는 사이카오 지구에 대해 "두 개의 신앙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의 모범 지구'가 되는 지역사회"라며 평가하고, 다른 지구들에 대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이카오 지구장인 아담은 "모두가 평등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사이카오 지구는 주민 4270명의 58%가 불교도, 42%가 무슬림으로 두 종교의 인구 비율이 거의 반반씩인 것도 이유로 꼽히지만 사이카오 지구는 다른 지구들과는 달리 거주구가 분리되지 않았다. 아담은 "두 종교가 섞여 서로 이웃하며 사는 것 역시 서로의 이해에 중요하다"며 거주구를 분리하는 것이 오히려 반목의 큰 이유라고 지적했다.

파타니주에서 종교 간의 조화를 목표로 하는 NGO를 이끄는 라마이 마나칸은 공존의 비결로 언어를 꼽았다. 태국 남부에서는 불교도가 태국어와 남부방언, 이슬람교도는 말레이어를 쓴다. 그런 사이카오 지구는 양 교도 모두 남부방언을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사이카오 지구의 두 종교가 교류해 온 오랜 역사도 중요한 이유다. 지구 내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은 17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이슬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불교도가 설계하여 태국의 전통건축 양식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슬람교도들이 별다른 건축적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두 종교 간의 조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담 지구장은 두 종교간의 공존에 대해 "우리 지구를 다문화 사회 지구라고 부른다. 그러나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두 종교를 믿는 이들이 서로 다르다고 나누는 관점이라 생각해 달갑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 아담은 "우리는 종교에 관계없이 장기간 공존해 온 사이카오 주민"이라며 함께 살아가는 한 지역 공동체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조화에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슬람교도와 결혼한 불교도 대부분이 개종하면서 이슬람교도 비율이 서서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슬람 사원의 종교학교에 통학하는 이슬람교도의 아동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공용어인 남부방언을 대신하여 이슬람교도들의 공용어인 말레이어를 모어로 사용하고 있다. 한때는 거의 없었던 머리카락을 덮는 쓰개인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도 늘어나 이슬람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아담 지구장은 "우리는 대대로 함께 해 온 사이카오 공동체, 분쟁을 원하는 외부세력으로부터 지역을 지키겠다"며 두 종교가 함께하는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내비쳤다.

日, 오사카에 사찰 품은 호텔 건립

천년 고찰 미츠테라 사원
사찰의 새로운 접근 기대


칸데오 호텔 오사카 신사이바시 호텔 투시도. 사진출처=칸데오 호텔

일본 오사카에서 사찰을 품을 호텔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돼 화제다. 구랍 16일 일본 주요 언론 '마이니치 신문'은 불교 사찰과 고층 호텔을 통합하는 재건축 프로젝트 소식을 전했다. 도시형 호텔 '칸데오 호텔즈 체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칸데오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는 오사카의 고찰, 미츠테라 사원을 새롭게 단장한 '칸데오 호텔 오시카 신사이바시' 건설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 호텔은 180개의 객실과 사우나, 노천탕 등을 갖춘 지상 15층, 지하3층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불교문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최신 시설을 갖춘 숙박 공간이 융합되어 있는 곳이다.

2023년 11월 26일 개점을 예고한 '칸데오 호텔 오사카 신사이바시'는 지상 1층부터 3층까지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여 미츠테라 사원을 그대로 품을 예정이다. 호텔 투숙객은 사원을 지나 호텔 로비에 진입할 수 있다. 미츠테라 사원에서는 아침예불, 명상, 사불(寫佛), 사경을 통한 수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칸데오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사의 데루아키 호즈미 사장은 "이곳은 호텔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지만, 불교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츠테라 사원 주지 카가 데츠로 스님은 "2020~21년 칸데오 호텔 예비 공사 때 사찰 보존을 위해 사찰 전체에 구조물을 올렸다. 사찰이 온전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호텔의 필로티와 지붕은 새로운 결계로써, 사찰의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며 "부처님 위에서 머무는 것이 투숙객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젝트는 불자들의 불심을 강화하고 호텔을 방문하는 모든 투숙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사카 주오구에 위치한 진언종 오무로파의 미츠테라 사원은 나라 시대인 744년에 15대 일왕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십일면관음을 모시고 있다. 본당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오사카 공습 때 파괴되지 않았고 1808년에 마지막으로 재건되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중노년 성적소수자 모이는 절

주지스님은 60대 트랜스젠더
성적소수자 안식처 되길 바래


절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쇼젠지의 성적소수자 신도들. 사진출처=NHK뉴스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담론과 대화가 불교계에서도 자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노년층의 성적소수자들이 모이는 사찰이 일본에서 화제다. 주지스님부터 트랜스젠더인 사찰, '쇼센지'에 대해 구랍 16일 일본의 'NHK 뉴스'가 특별보도했다

오사카 모리구치 지구에 소재한 성소수자들을 위한 사찰 '쇼센지(性善寺)'. 2019년 초 문을 연 쇼센지는 주지인 시바타니 소슈쿠 스님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스님은 "성소수자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찰,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찰, 성소수자들의 경조사를 맡아줄 수 있는 사찰을 취지로 건립했다"면서 "예전의 자신과 같은 입장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며 쇼센지의 문을 연 계기를 전했다.

실제 스님은 출가 후 성전환 수술을 받고, 호적과 승적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면서 종단 내에서도 큰 반발과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은사스님과 당시 총무원장 스님의 지지와 배려로 일본 진언종 역사상 최초 트랜스젠더 스님이 됐다.

스님은 지난 2017년 쇼센지의 설립을 공식발표하고, 속가의 별채를 개조하여 사찰을 세우려 했으나, 마침 오사카의 한 비구니 사찰이 빈 절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찰을 인수해 쇼센지로 다시 탈바꿈 했다. 스님은 사명에 대해 '다양한 젠더(性)는 선한 것(善)'이라는 신념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사찰 문을 열고나서 다양한 성적소수자들이 쇼센지에 모이기 시작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매달 2차례의 재일에 맞춰 법회를 봉행하고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며 고민을 스님에게 상담하거나, 다른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응원해주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 특히 이곳 쇼센지는 중노년층 성적소수자들이 모여 신행활동을 함께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소슈쿠 스님은 "지금 젊은 성적소수자들은 비교적 커밍아웃에 대한 오해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내 동년배의 중노년의 소수자들은 평생 커밍아웃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나이가 있을수록, (커밍아웃) 할 수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며 사찰에 모이는 중노년 성적소수자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50대 후반 성소수자 불자는 "이 절을 찾고서야 내 자신을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오랜 세월 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도량"이라며 쇼센지가 주는 편안함을 이야기했다.

소슈쿠 스님은 "중노년의 성적소수자들은 대부분 가족에게 자신을 숨기고, 연인을 사귀지도 않은 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떠나길 바란다"며 성적 소수자들의 마지막을 돌보는 절이 되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문화유산 약탈

국제단체로 위장한 파키스탄 요원에 의해


바미얀 불상 유적 근처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 사진출처=로이터

12월 17일 인도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은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문화유산 약탈 소식을 전했다.

'아시아의 심장'으로도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정치적 불안정과 내전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특히 10세기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불교 유산이 대다수이며 이 문화유산은 잘랄라바드 석굴, 하이박 석굴, 바미얀 석굴 세 지역에 집중 분포 되어있다.

최근 바미얀 불교 유적지는 국제 협력 하에 활동하는 전문 기관들의 수치 복원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유네스코와 이탈리아 문화부는 바미얀에서 불상 복원 작업을 벌이고 있는 이탈리아의 문화유산단체 LaGeS(Laboratoria di Geografia Sociale)가 파키스탄 출신 요원의 불법 도굴로 인해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밝혔다.

LaGes의 관계자는 "요원들은 언론인, 고고학자, 연구원, 유네스코, 유엔 등 국제단체 대표자로 위장하여 바미얀 불교 유적지 근처에서 일한다. 그들은 각자가 속한 지역의 고대 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 도굴을 자행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페샤와르로 밀수해 회색시장에 판매한다"고 전했다.

LaGeS는 바미얀 불교 유적지 복원 프로젝트에 파키스탄 노동자의 고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민재 객원기자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 전			종무원장	진 성
수석부의장	청 명			부 원 장	연 수
부 의 장	혜 일			총무국장	현 진
종회의원	법 륜	원 경		교무국장	법 성
	송 월	혜 담		재무국장	지 오
	도 홍	법 윤		문화국장	법 진
	혜 신	혜 경		사회국장	영 전
	원 만	정 수		주재기자	문선희
	보 경	법화심			

전북종도일동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 장 영산 혜안(작법보유자) 조교수 대경 법정 감 사 송월 법원·원경 정수
부회장 벽담 도홍 총 무 원각 법진
교육원장 도정 정호 재 무 공보 지오

영산 작법 보존 회원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지리산 만일결사

실상사 사부대중공동체 합장

문의 : 063-636-3031
주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129
홈페이지: www.silsangsa.or.kr

경 국가지정문화제 '명승' 지정 축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연규

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전화 010-644-4742 www.hyangiram.or.kr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 성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113번길 11
전화 062)961-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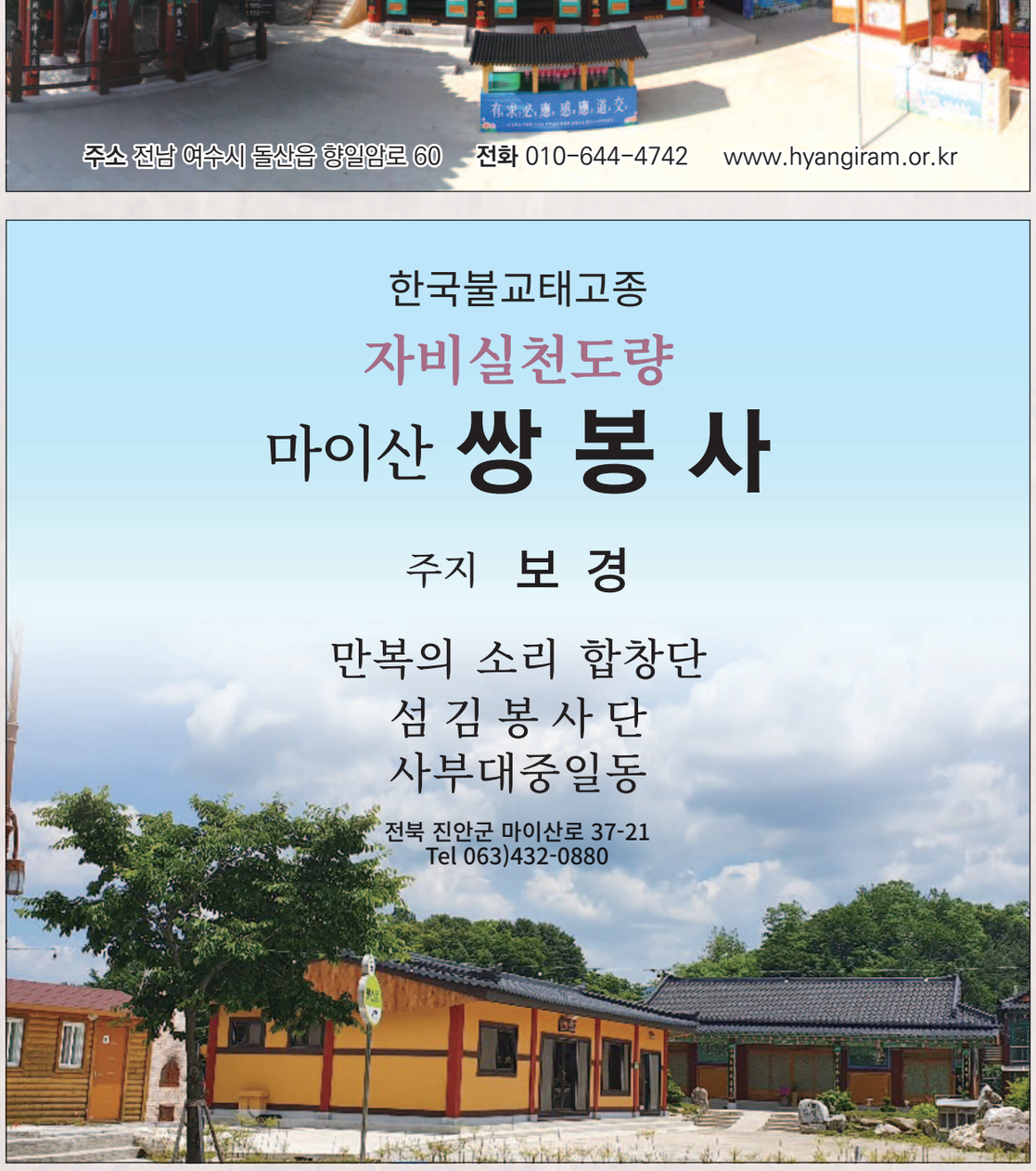
한국불교태고종

자비실천도량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 경

만복의 소리 합창단
섬김봉사단
사부대중일동



전북 진안군 마이산로 37-21
Tel 063)432-0880

전북불교회관



조 실 금산도영
회 주 취산도법
교구장 월강일원
주 지 제 환

부 설
화엄불교대학
룸비니어린이집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 063-277-3497
홈페이지 : https://www.jbbulgyo.org/

2023년 1월 1일 일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18호 | A17 | 전면광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구게 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 공덕이 더 수승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금강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밑 주차가능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부지 : 4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가능 ●매가 : 30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촌집
- 위치 : 경북 봉화군 법전면
- 조립식 주택 대지 117평, 건평 23평, 주차가능
- 가액 2,800만원

010-6249-45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150m)
- 3층 건물에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 도시가스 난방, 가전제품(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 일체)
-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5백만원

010-9231-6825

조그마한 사찰 양도 및 전·월세 안내

- 보증금 : 2천만 원
- 매 월 : 20만 원
- 몸만 오시면 됨 (일체 구비 됨)
- 양도합니다.

010-3938-4646

선불사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감천면 감천사무소에서 200m
- 대지 : 대지 70평
- 법당, 요사채 (임법당) 각각 1동
- 가액 : 5천만원

010-6243-1627

사 찰 안 내

경남 합천군 대병면 합천호수로 합천호수 아래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옛굿당)이 옆에 있습니다.

- 대지 : 410평, 임야 217평
- 요사채 52평, 법당 16평 가건물
- 가액 : 3억 2천만원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유계리
- 계곡물 흐르는 청정지역 대지 : 388평
- 대웅전 요사채 1동 산신각 용왕당 1동
- 가액 : 3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4123-7594

사찰·암자안내

- 위치 : 부안 개암사 앞산 청자박물관, 바닷가 5분거리(3천평 개발가능)
- 토지 5만평, 한옥 1채
- 가액 3억 5천만원(일시불 2억원) 급 양도, 나머지는 산림청 매각대금으로 잔금 완납
- 자연원시림 보존 잘됨, 계곡, 기암절벽, 야생 차나무, 100년 이상된 홍송 수천그루, 부귀 풍수 대명당
- 돌탑을 쌓을 수 있는 옥돌 수천톤 산재 보존

010-9647-0723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사 찰 안 내

소승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십 수년 간 도심빌딩에서 포교당을 운영해온 학승입니다.
포교당 건물 재건축으로새 인연처를 찾고 있으니 사찰양도 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단독주택의 임법당도 가능합니다.

010-2194-8008

양평 전원주택지 및 선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331-24번지 일대 (100평, 200평, 360평 등 평수 다양)
- 특징 :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진입도로 포장 완료, 토목공사 완료, 전망 및 조망 매우 좋음(평당 70만원)
- 참선(명상)자리 : 약 2500평 (계획관리+보존임야)
- 특징 : 개인 수행 정진하기 좋고 조용함, 필요시 인 · 허가 가능(매수자가 비용 부담)

향후 투자성 A급 평당 15만원,
계획관리 약 1400평 나머지 보존임야

010-2215-3657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원정 승 정 석혜암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법륜, 석우암, 석정호, 석법광, 석종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의전원장 석법도 어 산 장 석도암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 원 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성덕 감찰부장 석성현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회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회
부 회 장 석효성 부 장 석지현 국 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도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명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진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성각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공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홍보부장 원명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경기부장 자운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전남부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18호 | A18 | 전면광고

만약 근기가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며 많이 듣고 널리 알아서 불도를 구하는 이 있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는 경을 설할지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화경 방편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육효 강의

4개월 완성

비구 비구니스님(비법전수)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185-53

054-972-1080
010-2622-434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바라, 피리, 극락무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추천-책이름 검색해보세요!!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광복사 결혼상담소

짝을 만나 행복을

은평구 수색로 22길 20

010-5624-1365
02-306-7988

세종 명리심리 철학원

사주, 신년운세, 궁합, 택일, 작명
자녀진로, 적성, 진학, 취업, 진로

010-6593-2953

문자, 카톡 상담 환영합니다
톡상담 ID : sejong77

불상제작(용품) 전문점

(오래된) 불기, 불서 고가매입

법당철거, 법당제작, 탱화, 동북, 개금

-사찰 사고 팝니다-

010-9177-7842

강원도와 충북 제천 사이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사찰(절)에서
염불기도로 업장은 소멸하고 몸과 마음은 힐링하며 후회 없는
회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나이, 학력, 성별 상관없이 출가를 하실분 모십니다.

연락처 010-8945-1424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청국장 판매합니다

스님께서 주문하시면 10% 할인 해드립니다.

010-2089-4143
010-9692-5775
약사사 공덕화 보살

능 가 사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70세 이하, 숙식제공, 출퇴근 가능 (강화군)

010-5301-8613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 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출강 및 통신 2023학년도 제32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2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3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홈페이지 : http://pubsa.net FAX : 02)737-530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행 근본대의 구체적·심도 있게 설해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① 능엄경(楞嚴經)은 어떤 경인가?

〈능엄경〉의 본래 이름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 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다. 줄여서 〈수능엄경〉 또는 〈대불정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10권으로 되어 있는 이 경은 역자가 반날밀제(般剌密諦)로 되어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으로 보고 있다. 물론 〈능엄경〉 전래에 대해서 인도에서 전해졌다는 전설이 있기는 하다. 관정부(觀頂部)에 속해 있던 이 경이 중인도의 나란타사에 비장(秘藏)되어 있었다고 한다.

왕명에 의해 이 경이 타국으로 유출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다 당 중종 신룡(神龍) 2년(705)에 반날밀제가 범본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와 광주(廣州) 제지사(制止寺)에서 번역하였다는 설이 있다.

원제목에 들어 있는 뜻을 살펴보면 대불정(大佛頂)은 위없는 무상정각을 부처님의 정수리에 비유해 표현한 말로 깨달음 당체(當體)를 나타내는 말이다. 여래밀인(如來密因)은 여래의 과덕(果德)을 얻는 비밀스러운 인행(因行)이라는 말로 밀(密)은 경 7권에 설해져 있는 능엄신주(楞嚴神呪) 곧 다라니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성불의 인(因)이 된다하여 밀인이라 한 것이다.

수증요의(修證了義)에서 수증이란 닦아 증득한다는 말이고 요의란 이치를 끝까지 다 설파한 대승의 법문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법의 근본 이치에서 보면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데 닦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어, 없는 것을 의지하여 있는 것을 닦는 수행이 된다. 이것이 수증요의이다.

제보살만행(諸菩薩萬行)이란 모든 보살의 온갖 수행법을 지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살만행이다. 육바라밀을 실천 삼현십지(三賢十地)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원만히 이룬다는 뜻이다.

'수능엄(首楞嚴)'이란 범어 수랑가마(suramgama)를 음사한 말로 '수능'이란 모든 것에 구경임을 뜻하는 말이고 '엄'이란 견고하다는 뜻이다. 일체사필경견고(一切事畢竟堅固)라 번역해 왔는데 수능엄정(首楞嚴定)을 두고 한 말이다. 또한 이 수능엄정이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 곧 불성(佛性) 그 자체를 두고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능엄경〉은 예로부터 많은 주소(註疏)가 나왔다. 당·송·원 청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80여 가지의 주석서(註釋書)가 나왔다. 〈능엄경〉이 대승의 폭넓은 교의를 담고 있는 경전이며, 특히 선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시되었던 경이다. 중국의 선종 종파마다 중요하게 여겼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능엄경〉을 의지한 선학이 연구되었으며, 특히 고려 때 청평(淸平)거사로 알려진 이자현(李資玄, 1061~1125)이 〈능엄경〉을 의지해 선을 닦아 '능엄선(楞嚴禪)'이라는 말이 나왔다.

〈능엄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생겼던 신라시대에 이미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이 송나라에 들어가 화엄의 대가였던 정원(淨源) 문하에서 수학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여러 경론 가운데 〈능엄경〉도 함께 전래되었다고 한다.

의천은 선종 6년(1089년)에 건덕전(乾德殿)에서 능엄도량을 개설하여 1주일 동안 법회를 열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능엄경〉의 대의를 기탁염 발묘명(棄濁染 發妙明)이라 하여 혼탁한 오염된 마음을 버리고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지혜를 계발하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10권의 전경에 걸쳐 수행의 근본대의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해 놓았다. 〈능엄경〉을 소화엄이라 말해왔듯이 대승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융화·회통하여 여러 가지 수행체계를 폭넓게 설해 놓고 있다. 대·소승과 현교·밀교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경전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묘법연화경' 수지독송, 부처님 친견하는 일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① 묘법연화경의 가치

〈묘법연화경〉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주제는 묘각을 이루는 방법이다.(본문 化城喩品) 두 번째 주제는 정토불사를 이루는 방법이다.(본문 序品) 세 번째 주제는 정토불사 이후에 일어나는 여래장계의 변화이다.(본문의 提婆達多品과 從地涌出品)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룬 경전은 〈묘법연화경〉이 유일하다. 이것이 〈묘법연화경〉의 가치이다. 이 주제들이 앞으로 다룰 〈묘법연화경〉의 내용이다. 이 주제들을 다루면서 묘각 이전의 수행절차에 대해서도 짬짬이 들여다 볼 예정이다.

묘각을 이루려면 그 이전에 견성오도와 해탈도, 보살도와 등각도를 성취해야 한다. 견성오도와 해탈도는 생멸수행이다. 이는 생멸심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그것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취해야 하는 깨달음이다. 생멸심은 의식, 감정, 의지이다. 보살도와 등각도는 진여수행이다. 이는 진여심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진여연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취하는 깨달음이다. 진여심은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이다. 생멸수행을 통해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을 체득하고 진여수행을 통해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을 공여래장으로 전환시킨다. 생멸수행의 방법과 진여수행의 방법은 무량의경을 통해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먼저 〈무량의경〉을 설하시면서 견성오도와 해탈도, 보살도와 등각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런 다음에 〈묘법연화경〉에서 묘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묘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과거불로부터 수기를 받아야 한다. 둘째는 등각도를 성취해서 불이문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는 불세계의 초대를 받아야 한다.(본문 化城喩品) 과거불로부터의 수기는 부처님을 친견해야 이루어진다. 중생이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한계성을 극복해 주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을 제시해 주셨다. 〈묘법연화경〉을 믿고, 읽고, 쓰고, 외우는 사람들은 이미 수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본문 授記品)

〈묘법연화경〉을 읽은 공덕으로 우리는 이미 묘각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춘 것이다. 묘각을 이루는 세 번째 조건인 불세계로의 초대는 두 가지 갖춤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갖춤은 수기불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수기불의 감응이다. 수기불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키는 것을 억불(憶佛)이라 한다. 〈관 무량수경〉에 이르시기를 부처님은 대적정(大寂靜)과 억불심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다. 〈묘법연화경〉으로 수기를 받은 중생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수기불로 삼는다. 때문에 이 중생이 억불을 할 때는 그 대상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면서 이미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지어 주셨다. 때문에 그 인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일대사인연'이란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시는 이유이며 목적이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어 청정함을 얻게 하고, 중생에게 부처님 지견을 나타내 보여주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일대사인연'이라고 하셨다.(본문 方便品) 이런 인연으로, 우리는 이미 묘각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법을 갖추고 있다. 묘각을 이루는 두 번째 법인 등각은 스스로가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다. 등각도를 이루려면 대적정문(大寂靜門)과 대자비문(大慈悲門)을 성취해야 한다. 대적정문으로 공여래장을 이루고 대자비문으로 불공여래장을 이루어서 불이문에 들어가면 등각도를 성취한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① 달마가 혜가에게, 질문의 어리석음(上)

자신의 질문 속에 모든 답 있어

혜가 스님이 달마대사에게 물었다. "도를 얻고자 하면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관찰하는 한 가지가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한다(觀心一法 總攝諸行)."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치우침 없는 본연의 마음이며, 이 본연의 마음에 개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한다면 항상 깨어있음에 전념하게 된다. 본연의 마음에 개입하는 것은 오온의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 치우침 없이 새겨진다면, 달리 마음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는 것이 없어진다.

화두 공부는 기본 이해도 없이,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좌복에 앉아 무작정 의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앉아서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듯 읊조려도 본래 앵무새인지라 금방 앵무새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문득 다시 사람 소리를 내어본들 어찌 그것이 사람 소리이겠는가.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은 것처럼 잠시 편안해져 텅 빈 것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혼자 히죽 웃으며 좋아하겠지만, 바로 경계가 나타나면 소리부터 크게 내지르고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회피하려 한다. 아닌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고요함에 빠져들기를 반복하는 것을 화두공부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몸도 오랜 시간 동안 화두공부하면서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지금 수행자들이 겪는 일이 안타까워 몸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가면서 몇 자 적어보려 한다. 하지만 인연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기를 당부한다.

화두공부라는 것은 직접 지도해 주는 스승에게 의심되는 것을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계합하지 못하였을 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그 자리에서 바로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밀밀하게 점검하는 일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진전이 있게 된다. 그러나 요즘은 질문은 접어두고 화두를 받아와서 억지로 의심하려고 하니, 더더욱 어려움이 생긴다.

너무 머리를 써서 열을 올려 집중하느라 상기병이 생겨나고, 앉는 것조차 두렵게 되어 고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의심을 두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기는 일이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진실하게 새겨 보아야 한다. 가르침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퇴전 없이 자연스럽게 화두가 들린다. 세상의 학문도 어려움에 봉착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기본원리를 다시 되짚어 복습해야 자연스럽게 복잡한 원리가 풀리는 것과 같다.

수행이라는 것은 바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화두는 실마리를 놓치지 않고 문답 이전의 일을 마치는 일인데, 대부분 공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시체를 안고, 살았나 죽었나 살피면서 지견(知見)만 드높인다. 열심히 한다지만 그 '열심히 한다'는 지견이 생사(生死) 앞에서는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물음과 스승의 즉답에 왜 계합하지 못하였나가 화두공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수행자들이 이 핵심을 놓치고 만다. 심지어 이 핵심이 왜 중요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만큼 서두르고 급한 마음만 있는 것이다.

백장 스님은 마조 스님에게 코를 비틀리고, 다른 시자에게 말하기를 "마조 스님께 코를 비틀렸는데 철저하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운다"고 했다. 임제 스님도 황벽 스님에게 60방을 맞고 계합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입을 열려는 순간 맞은 60방은 대체 무엇에 대한 답이란 말인가! 그런데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물음은 돌아보지 않고 선사가 왜 그 답을 하였는지를 찾으려고 하니, 세월을 보내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자신의 질문을 회광반조(廻光返照)한다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말이다. 〈계속〉

〈(사)여시아문 선원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WWW.JONGJEONG.COM

본회는 불타의 회삼귀일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하여 한국불교종단 최고 지도자인 각종단 스님들의 모임으로서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며, 광도중생과 안심입명으로 세계인류평화와 국가 사회의 이바지 하고자함을 목적으로 1995년 4월 15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본회는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대법회(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위령천도대법회, 일본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위령대법회(일본관음사),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위문 및 보살수계식(논산), 불우이웃돕기 등 수백회의 각종 법회를 국내외에서 봉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사회각층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 할 것입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고문단

대장로 : 정각 대종사 (재)일붕종 종정
삼중 대종사 대한불교자비종 종정
의천 대종사 대한불교선화종 종정
혜우 대종사 일광조계종 종정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인이사진

대표이사겸회장 : 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수석이사부회장 : 정산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기획이사부회장 : 월성 대종사 (사)대한불교교종 종정
재무이사부회장 : 도우 대종사 대한반야불교조계종 종정
상임이사부회장 : 정일 대종사 한국근본불교해동종 종정
호법이사부회장 : 지엄 대종사 통불교화엄종 종정
전법이사부회장 : 영월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조계종 종정
섭외이사부회장 : 법조 대종사 세계불교미륵이안종 종정
행정이사부회장 : 호암 대종사 대한불교총원효종 종정
종규이사부회장 : 동봉 대종사 세계불교육조조계종 종정
유나이사부회장 : 도연 대종사 대한불교성덕종 종정
국외이사부회장 : 월단 명사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차석이사부회장 : 보안 명사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종정

법규이사부회장 : 정림 대종사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종정
외호이사부회장 : 법혜 대종사 금강조계종 종정
호계이사부회장 : 법흥 대종사 (재)세계불교미륵대종 종정
이사 : 혜승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청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이사 : 일웅 대종사 국제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무각 대종사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종정
이사 : 지환 대종사 국제불교금륜종 종정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정
이사 : 법휴 대종사 대한불교보리달마종 종정
이사 : 도오 대종사 대한불교묘법연화조계종 종정
이사 : 명암 대종사 대한불교관법조계종 종정

이사 : 옥당 명사 국제상좌부조계종 종정
이사 : 혜능 대종사 대한불교법황종 종정
이사 : 법하 대종사 대한불교신계종 종정
이사 : 도원 대종사 (사)한국불교법사종 종정
회장사서실장 : 삼하무착
사무총장 : 서병열
기획실장 : 전성배
사무국장 : 배영희

※ 입회비 및 년회비 결제한 회원만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48번길 45.16-1호(비래동) 전화 : (042) 285 - 1227
●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81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 (02) 756 - 1227 팩스 : (02) 774-1487 ● 부.경사무처 : 불광사. 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전화 : (055) 364-4747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韓國佛教太古宗

僧正院

僧正 慧雲, 知足, 錦龍, 圓默, 智山

元老會議議長 道光
首席副議長 大隱
次席副議長 雪雲
議員 德山, 錦龍, 鏡潭, 覺林, 南坡, 靑山, 明月, 智弘, 雪山, 法宣, 智性, 智山, 保惠, 世明, 智玄, 東佑, 東杓, 觀正

中央宗會議長 法潭
首席副議長 法信
次席副議長 法輪

護法院長 導鶴
副院長 瑞虎
委員 惺應, 晩愚, 六和, 松憲, 淸虎, 慧學, 智峰

初審院長 錦潭
副院長 明願
委員 法能,古潭,羨覺,杲峰,蓮虛

中央選擧管理委員長 九山
副委員長 慈明
委員 法一, 智海, 鶴山

總務院長 虎溟

行政副院長 善慧
敎育副院長 一蘆
財經副院長 能解
總務部長 道惺
敎務部長 正眼
財經部長 曉能
文化部長 圓悟
社會部長 現潭
弘報部長 晴空
糾正部長 眞華
校任·傳法師部長 心圓

宗策委員長 智弘
敎育院長 法眼
布敎院長 法京
考試委員長 才弘
法規委員長 慧周
社會福祉院長 休完
東邦佛敎大學學長 常眞
敎學處長 哲悟
全國信徒會長 裵錫瑩
靑年會長 李承潤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謹賀新年

大韓佛敎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김무원
총무부장 김갈수
교무부장 정도웅
교육부장 구성해
재무부장 지설혜
사회부장 이개문
규정부장 박거홍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세운
종의회부의장 김경천
황세열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전송 (043)420-7399 | www.cheontae.org

계묘년 새해아침

한국불교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일대사인연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한국 정통밀교 종단입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사감원장 법일 정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 전화 02)552-1080~3 | www.chongji.or.kr

총인 경정

통리원장 도진
종의회의장 덕운
현정원장 능원
교육원장 효명
총금강회장 정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 전화 (02)913-0751~4 | 팩스 (02)913-0755

진기 77
2023년
癸卯年

종조 열반60주년 다시 종조정신으로!

/참회/화합/혁신/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2023 謹賀新年 계묘년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금송
T.055)747-1300 F. 055)747-130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93번길 7, 301호(유니언빌딩, 신안동)

정성윤 변호사 — 민사, 기사 전문
정동윤 변호사 — 형사, 부동산 전문
박상희 변호사 — 이혼, 형사 전문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도를 위한 고문변호사"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총무원 : 전화 02)739-4780

◈ 불.법.승 ◈

(宗)대한불교 삼보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금산	부 종 정	회천	원로부원	정공. 정민
호법원장	호신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법융
고시원장	해룡	부 원 장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법도	교육원장	홍인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평산		

종회의원 법융,법성,평산,호신,홍인,법종,보각,도오,지일,법우,수산,도연,해곤,해봉,법전,도율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청암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재무부장	도능	교화부장	
총무국장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예술국장	보인	사 무 장	목련해

교구원장 수산,법인,보산,불광,도연,용현,법송,지원,청광,정륵 (전국 16개 교구)

학 인 모 집
불교의례·범패·어산·바라·작법무
종립기관 승가대학 교육원·염불원

■ 삼보조계종:
총무원 경남김해시 호계로499번길4
전화 055-338-0089 / 팩스 055-333-1880

2023 謹賀新年 계묘년

사)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 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 정 **정일**
대한불교 법보 조계종 종 정 **향운**
사)함께 가는 길이 사 장 **혜상**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해 동 자 비 원 원 장 **만호**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 정 **해일**
대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일 산 자 비 원 원 장 **도일**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각 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

2023 謹賀新年 계묘년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 무 국 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포 교 원 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의 전 원 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습득

전 종도 일동 합장

총본산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만수산 승가사 총무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곡로 15번길 5(서래암) 전화 051)552-8554, 556-0278~9 팩스 556-8551 seunggajong.co.kr

부산불교문인協, 제25회 실상문학상 시상식

대상 보우 스님 · 정옥금 공동수상
구랍 26일 부산일보사서 시상식



제25회 실상문학상 대상 수상자 보우 스님(왼쪽 두 번째)과 정옥금(오른쪽 두 번째).

부산불교문인협회(협회장 차정연)가 시상하는 제25회 실상문학상 대상에 보우 스님과 정옥금 시인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부산불교문인협회는 구랍 26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실상문학상 운영위원회 이사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심사위원장 능지 스님, 이석래 부산문인협회장,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장과 부산지역 문학계를 이끄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우수상은 이석란 시인, 정정옥 시인, 작품상은 감정말 시인, 고순옥 시인, 김순옥 시인, 김현옥 수필가, 조영경 수필가 등이 수상했다. 공로상은 이석래 시인, 원력상은 양원식 시인이 수상했으며, 손순이 시인에게 감사패, 신인상은 엄순남 시인이 수상했다. 김선희 이장옥 정지우 정명희 시인, 발달장애시인 이봉우 배수진 시인도 시화전 작품상을 받았다.

운영위원회 이사장 혜총 스님 "삼계에 태어남은 오로지 마음으로 되는 것이니 마음을 깨달으면 삼계에 있어도 곧 삼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악업은 오로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니 마음을 잘 거둬 고뇌에서 벗어나자"고 법문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학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가 훌륭한 포교"라며 "보다 많은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정연 부산불교문인협회장도 "실상문학상은 이사장 스님의 원력과 불자 문인들의 열정이 만나 최고의 권위를 지닌 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오늘 시상식을 계기로 보다 많은 이들이 불교문학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대상을 수상한 보우 스님은 1992년 〈시세계〉로 등단하여 부산문인협회, 부산시인협회,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으로 〈그 산의 나라〉 〈다슬기 산을 오르네〉 〈목어는 새벽을 깨우네〉 〈화살이 꽃이 되어〉 등이 있으며, 현재 부산 감천문화마을 관음정사 주지로 있다.

정옥금 시인은 1996년 월간 〈한맥문화〉로 등단하여 부산문인협회, 부산불교문인협회, 부산여성문학인협회 등에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부산문학상 본상을 비롯해 낙동강 문학상, 한맥문학상, 문예시대작가상, 을숙도문학상 본상 등을 수상했으며, 〈그대 푸른 가슴에 사다리를 세우고〉 〈깊고 뜨거운 시의 길목〉 〈할매들의 마실〉 〈사막꽃〉 등을 펴냈다.

보우 스님은 "오대보궁의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2019년 1월 29일 입재한 천일기도가 어제인 12월 25일 회향했다"며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니 수많은 분들이 바로 생불같다. 부처님들께 축하를 받으니 더욱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옥금 시인은 "아직 문예의 깊이가 더 있어야 하지만 이런 영광을 안아 송구스럽다"며 "25년간 변함없는 원력으로 상을 주시고 계신 혜총 스님께 감사하다. 부산불교문인들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계속 진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25회 실상문학상은 대상 후보자 5명과 우수상 후보자 2명 등 치열한 경쟁과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됐다. 심사위원장 능지 스님은 "회원 전원이 불심 연마의 고삐를 놓치지 말고, 문심 개발에 온 힘을 쏟아 으뜸 문인협회로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지유 대종사 6년 만에 禪說

함허 선사 금강경 서문 주제로
구랍 27일 입재, 5일간 설법해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는 구랍 27일 경내 보제루에서 방장 지유 대종사를 모시고 '함허 득통 선사의 금강경 서문 선설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지유 스님의 득통 선사 주제 특강은 2016년 범어사 개산일 특별법문 이후 6년 만의 설법이다.

이날 지유 대종사는 마음공부의 수승한 공덕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유 대종사는 "망상 집착에 걸려 스스로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근본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 속"이라며 "생각 여부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한다. 마음속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입재법회에는 수많은 대중들이 모여 방장 지유 대종사의 법문을 듣고 〈금강경〉 속 가르침을 되새겼다.

이날 법문에 이어 지유 대종사는 구랍 31일까지 5일간 특강을 진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의 이번 법석은 범어사 대중들의 수행 정진을 독려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연말연시에 방장 스님으로부터 직접 법문을 듣고 새해 정진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자리이다. 그렇기에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법회 참석이 가능했다.

한편, 이번 성도일 전후 펼쳐지는 이번 법석은 금정총림 범어사 대중의 원융화합과 일심수행에 전념할 것을 발원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함허 득통 선사'(涵虛 得通)는 나옹, 무학 스님의 법맥을 이어 조선조에서 불교를 지킨 스님이다. 배불정책에 맞서 〈현정록〉을 짓고 〈원각경소〉와 〈금강경오가해설의〉 등을 지어, 어려운 시기 불맥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특강의 주제인 '금강경 서문'은 송나라 때 편찬된 〈금가경오가해〉를 대조해 교정하여 서문을 붙인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誼)〉의 서문 부분으로 조선조 배불정책에 대응한 불교의 구심점을 〈금강경〉의 가르침으로 꼽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통도사 화엄산림 회향법회 봉행

한 달 동안 화엄법문 등 이어져
前 전계사 혜남 스님 회향 법문
원동중 드림야구단에 500만 원



통도사(주지 현문)는 구랍 22일 경내 설법전에서 '임인년 화엄산림 대법회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입재법회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이어졌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30여 명에 이르는 제방 원로 대덕 스님들이 통도사를 찾아 각 품을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하루 두 차례 화엄 법문을 이어갔다.

회향법회에는 영축총림 前 전계사 혜남 스님,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법회는 관욕과 상단불공, 축원, 혜남 스님의 회향법문, 전달식, 인사말, 시식 후 동참 위패 봉송의식으로 화엄산림의 모든 일정을 회향했다.

혜남 스님은 "사람은 누구나 말과 행동과 몸짓과 마음으로 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무재 7시로서,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보시라고 하는 것이 꼭 재물이나 물질로만 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에서 깨어나 얼마든지 베풂과 나눔으로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자비의 마음을 바탕으로 수행과 정진의 길을 가시기 바란다"고 법문했다.

주지 현문 스님은 "옛 어른스님들께서 어린 저에게 복을 짓는 방법은 남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길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한 달간 법사스님들께서 많은 법문을 해주셨지만 간단한 이 두 마디를 실천에 옮긴다면 추운 겨울 한 달간 다닌 것에 대한 위로가 될 것이다"며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회에서 현문 스님은 원동중 드림야구부에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원동중 야구부는 2011년 창단해 2013, 2014년도 대통령배 전국야구대회 우승, 2022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우승을 거두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야구를 통해 지역을 빛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서 송석중 언양요양병원원장에게 통도사 자비원 이사로서 자비원의 발전과 입소자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참위패 봉송의식후 현문 스님은 "오늘 같은 날씨를 청량한 날씨라고 한다. 이 청량한 날씨는 우리 마음 자체도 청량하고 영가님들도 청량해져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셨을 것"이라며 "화엄산림 법회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불연이 함께하시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사상구불교聯, 회장 이 · 취임식

성림 스님 신임 회장에 취임
사상구청에 이웃돕기 물품전달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는 구랍 26일 르네상스호텔 5층에서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前 회장 성문 스님과 신임회장 성림 스님, 보운 스님(부산불교연합회회장), 장제원 사상구국회의원, 조병길 사상구청장, 윤숙희 사상구의회의장, 심인택 사상구연합회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행사는 심인택 신도회장의 봉행사를 시작으로 △장학금수여 △이웃돕기물품전달 △이임사 △임명장수여 △회기전달 △골로패 수여 △취임사 △임명장수여 △치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성문 스님은 이임사에서 "회장이라는 중한 소임을 맡은 지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회장소임을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제방의 원로 대덕스님들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오늘 취임하시는 성림 스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스님들께서는 부처님의 정법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림 스님은 취임사에서 "먼저 지난 6년 동안 연합회를 잘 이끌어주신 집행부스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수행력도 부족한 저에게 회장소임을 주신 것은 젊은 사고로 연합회를 화합하고 불법 홍포와 보현행을 실천하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문화공연활동으로 불교문화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공연문화를 승화시켜 사상구민과 불자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불국토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운 스님은 "사상구연합회는 매년 연말연시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희망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경로잔치와 장학금전달 등 자비행을 실천하신 성문 스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 취임하시는 성림 스님께서도 이 행보를 이어받아 사상구연합회가 더욱 발전하고 역량 있는 모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력을 다해 주리라 믿는다"고 치사했다.

이어 사상구연합회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상구청에 라면 100박스와 김 70박스를 전달했다. 그리고 사상구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구청, 동사무소, 봉사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된 37명의 학생에게 각각 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사상구연합회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약 3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불우이웃돕기, 군장병 위문 등 모범적인 지역불교연합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천불정사, 누림주간보호센터 개원

구랍 18일 준공 및 개원식 봉행
건축면적 176.14㎡ 총 4층 규모
일상생활 힘든 어르신 생활지원



부산 천불정사(회주 고담)가 구랍 18일 경내 법당에서 누림주간보호센터 준공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기능회복, 일상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누림주간보호센터는 연면적 428.16㎡ 건축면적 176.14㎡ 규모로 총 4층 규모의 건물이다. 1층과 2층에는 누림주간보호센터 사무실 및 생활실이 있으며, 공양실과 어르신의 휴게공간이 있다. 3층은 오피스텔로 활용되며 4층은 누림주간보호센터 직원 휴게실 및 창고이다.

이날 행사에는 고담 스님(천불정사 회주), 법경 스님(천불정사 주지), 조민호 누림주간보호센터장, 경선 스님(前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춘광 스님(천태종광명사 주지), 설운 스님(태고종원로회 차석부회장), 김재윤 금정구청장, 백종헌 금정구국회의원, 최봉환 금정구의회의장, 이정민 천불정사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이정민 신도회장의 고불문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환영사 △자비의 쌀 전달 △임명장수여 △센터장인사말 △치사 △격려사 △축사 △승보공양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고담 스님은 환영사에서 "천불정사는 오랜 세월 지장도량으로서 효를 으뜸으로 여기고 수행해 왔기에 오늘에 이르러 더 큰 신심과 원력을 세워 이웃 어르신들을 나의 어버이 같이 잘 모시고자 주간보호센터를 설립하여 부처님의 자비행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비록 시작은 작지만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전 직원, 천불정사 자원봉사 신도님들 모두가 합심해서 매일 매일 지복을 누리는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천불정사의 (사)고담정토문화원은 금정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과 자비쌀 1000kg을 전달하고 조민호 법사를 누림주간보호센터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수여식을 진행했다. 이어서 고담 스님의 불교발전을 위한 노력과 자비실천행을 치하하며 누림주간보호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경선 스님의 치사, 춘광 스님, 설운 스님의 격려사와 백종헌 금정구국회의원, 김재윤 금정구청장, 최종환 금정구의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한편 경선 스님,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 한국불교태고종 경남 문도회, 보신 스님(천명사주지) 등 많은 개인과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현장에서 전달하며 누림주간보호센터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락서암, 제4회 락서암장학금 전달식

장학금 총 1000만 원 전달



청소년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 락서암(주지 수월)이 구랍 27일 락서암 대웅전에서 '제4회 락서암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락서암은 대학생 6명에게 각 100만 원, 고등학생 6명에게 각 50만 원, 중학생 4명에게 각 30만 원,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월 스님은 "육바라밀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게 인욕바라밀이다. 놀고 싶고 마음대로하고 싶고 돈 쓰고 싶고 하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 그 순간만 참고 견디면 다 성취할 수 있다"며 "학생이면 놀고 싶은 마음 견디며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힘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는 보배가 되시라"며 인사를 전했다.

진파 스님은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 계신 수월 스님은 복을 짓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다"라며 "이렇게 복 짓게 해준 공덕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훌륭한 인재기 될 거다"고 학생들에게 법문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 제25대 종무원장

영범 스님 취임법회 봉행



한국불교태고종 대구 · 경북교구(이하 대경교구)는 구랍 17일 대구 팔공산 맥섬석 유스호스텔에서 제25대 종무원장 영범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제24대 종무원장 법운 스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각급 기관장과 신도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경교구 종무원장 이취임식은 총무국장 법안 스님의 사회로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전 종무원장 이임사, 공로패 및 화환 전달, 신임 종무원장 약력 소개, 임명장 및 직인 전달, 표창장 수여, 신임 종무원장 취임사 및 직원 소개, 이웃돕기 성금전달, 내빈소개, 격려사, 축사, 공지사항 전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종무원장 영범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난 시절 우리 교구는 종정 예하와 총무원장, 원로의장, 중앙종회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명문 교구였다"면서 "우리 교구의 전통과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적 종무행정을 통해 종도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을 이끌어 내는 데, 소승과 우리 소임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영천 죽림사 '다문화글로벌 송년축제' 개최

다문화 인식변화 · 지역민간 교류



영천 죽림사(주지 선지)는 국제희망가족다문화정책연구원(이사장 청향지)과 함께 구랍 23일 죽림사 경내 무대에서 '다문화글로벌 송년축제'를 개최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역주민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는 '다 함께 만드는 글로벌세상 아름답게 꾸미자'라는 주제로 제1부 식전행사, 국민의례, 이태원참사 다문화 이주민가족 추모, 대회사 및 환영사, 축하공연, 제2부 표창장 전달과 기념촬영으로 진행됐으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김상훈 국회의원, 황교완 前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다문화글로벌 송년축제는 2019년 제1회 대구경북송년글로벌축제로 시작해 2020년 서울 글로벌축제에 이어 이번에 영천에서 개최하게 됐다.

주관사인 국제희망가족다문화정책연구원은 한국어능력시험 지도와 이주민 여성한국귀화를 도와주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치 · 역사 · 법률 강의 및 다문화가족 2세대 교육, 다문화가족 남편 교육, 다문화가족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성탄 기쁨 함께 나누는 것, 부처님 가르침”

울산 백양사, 이웃종교 화합음악회
구랍 24일 이웃 종교 지도자 초청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백양사(주지 산옹)가 구랍 24일 백양사 특설무대에서 이웃종교화합음악회를 개최했다.

울산 백양사(주지 산옹)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웃종교 지도자들과 신도들을 초청해 이웃종교화합음악회를 개최했다. 구랍 24일 백양사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웃종교 화합음악회는 기독교의 성자인 예수님 탄신일을 불교계에서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울산시민들과 음악회 참석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황룡사 어린이합창단과 YMCA 여성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올린 이날 이웃종교 화합음악회는 개막식 공식행사에 이어 울산YMCA 소년소녀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럴 ‘루돌프사슴코’, 백양사 합창단의 찬불가 ‘밝은 햇살처럼’, 전체 합창 ‘기쁘다 구주 오셨네’에 이어 가수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를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음악회가 열리는 백양사 경내에는 대형트리 만들기,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크리스마스 용품만들기 등의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음악회를 주최한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인의 축제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일 것”이라며 “우리 인간에 있어서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가 다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진리인 것이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성현의 가호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영규 안셀모 신부는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살면서 불교사찰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음악회를 하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획기적이고 신선하며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의미하는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신부는 이어 “서로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소중한 마음이 불교의 정신이고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 정신”이라며 “이 음악회가 의미 있고 많은 것을 전달하는 메시지로 생각하며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도 축사를 통해 “모두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자기의 종교관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 자비사상이 충만하길 서원하며 앞으로도 이웃 종교간의 합창제가 활성화되어 한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울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백양사 산옹스님, 천주교울산대구장 김영규 안셀모 신부님, 울산선교사목국장 김영훈 미카엘 신부님, 월봉사 보화스님, 해남사 혜원스님, 성불사 혜안스님, 신흥사 종현스님, 내원암 진응스님, 화봉선원 기탁스님, 여여선원 효암스님, 옥천암 문성스님, 벽선암 혜진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박창현 프란치스코 울산 평신도협의회 회장, 가수 최백호, 천주교, 교회신자 및 일반시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전주 서고사, 세계평화명상센터 준공

체험 중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예정



전북 전주시 만성동 서고사 일원에 종교 관련 복합문화공간인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가 준공됐다. 전주 서고사(주지 화평)는 구랍 24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에서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이번에 준공된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는 6999㎡ 부지에 연면적 4368㎡,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곳은 명상과 순례의 기능을 구비한 명상생활체험관과 교육복합관, 목조명상체험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져, 향후 교육과 연수,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명상센터가 위치한 서고사는 후백제 견훤이 완산주(지금의 전주시)에 도읍을 정한 뒤 국운 회복과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창건한 고찰로 도심과 가까운 황방산에 있어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람이 찾는 지역 명소다.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는 유네스코 백제역사문화지구로 등재된 미륵사지와 국보와 보물 10점 등 다수의 문화재를 소유한 금산사, 전주한옥마을 등이 인접해있고,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전북혁신도시와 법조타운과도 가까워 전북을 대표하는 한류문화관광과 다양한 명상체험, 휴양이 가능한 전통사찰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가 천주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과 더불어 전주가 대한민국 종교문화 중심지이자 종교관광의 성지로 거듭나는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불교세계명상센터가 준공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명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전북의 종교문화자원과 연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불교교황청 창립기념법회

향덕 스님 대법황 대관식도



(사)세계불교교황청이 구랍 26일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기념법회 및 대법황 대관식을 봉행했다.

민족통일불교협의회장 법혜 스님은 기원사를 통해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야대립현상과 지역갈등, 경제적 불황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처님 원력과 큰스님들의 법력으로 오탁악세를 소멸하고 자유와 평화번영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법황에 추대된 향덕 스님은 “참 성품이 심지에 감추어 있으니 요요하여 가히 얻을 수 없나니 내 이제 참된 성품을 깨달으니 어찌하여서 깨달음을 마치지 아니하는가. 모두의 참 성품은 부처이고 보살인데 탐진치 삼독심을 버리지 못해 범부의 삶을 살고 있다”며 “불보살의 자비행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보살행의 실천을 통해 자기 본래면목을 깨닫기 바란다”고 설했다.

사단법인세계불교교황청장 석능인 스님은 대법황에 추대된 향덕 스님에게 추대장과 추대패를 전달했다. 이어 가요TV 전속악단 성주지회 주관으로 축하음악회가 열렸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한불교종정協, 이태원 희생자 위령재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 · 이하 종정협의회)는 구랍 16일 안성 영평사 추모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대재에는 종정협의회장 월인 대종사(대한불교승가종)를 비롯해 제25대 일붕문도회장 정림 스님(안성 영평사 주지)과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종정 스님 50여 명 및 신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위령대재는 월인 대종사 인사말을 시작으로 어산종장 석청봉 스님과 영남범음범패, 어산종장 도연 스님과 경기범패 스님들이 함께 집전했다. 이번 위령대재를 위해 영평사 신도 20여 명이 하루 동안 도량을 청정히 하는 의식도 진행했다.

월인 대종사는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열린 축제에 참가한 158명의 젊은 생명들이 뜻하지 않은 참사를 당하여 희생되고 말았다”며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원 종단 종정 스님들은 불의의 변을 당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위령대재로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한다”고 위령대재 의미를 전했다.

위령대재에서는 천수바라 등 불교전통의식과 함께 장충열 시인이 추모사를 낭독했으며, 고혼을 위로하는 살풀이도 펼쳐졌다. 한편, 위령대재 후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소속 종정 스님들은 영평사 부설 반야불교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겨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사무실 현판식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통영 용화사, 장학금 전달식



통영 용화사(주지 종묵)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및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용화사는 구랍 23일 초하루법회를 맞아 인제대학교 구본승 학생 등 5명에게 각각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의 장학금 및 장학증서와 불교성전을 전달했다.

용화사 주지 종묵 스님은 “장학금을 처음 전달하게 된 계기는 한 독지가가 불자들에게 회향하라고 보시한 보시금을 세 사람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신도분들도 십시일반 동참해 다섯 사람에게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묵 스님은 이어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 1인당 50만 원을 인상해 각각 1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장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불자답게 큰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종묵 스님은 장학금을 보시한 독지가가 평소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즐겁고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독지가를 위해 박수갈채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인제대학교 4학년 구본승,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학년 김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2학년 강현준, 경상국립대학교 3학년 우승민, 경운대학교 2학년 위수혁 학생이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용화사 주지 종묵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서병찬 가야명상문화원장, 용화사 신도들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산사 사부대중 원탁회의 5차회의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문장 도영)가 주최하는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 제5차 회의가 구랍 17일 전주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에서 열렸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불교 미래를 이야기하다’는 주제로 전북불교 미래예측과 원탁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희대학교 종교시민문화연구소 이명호 박사의 ‘전북불교 미래예측’에 대한 강의와 사부대중 원탁회의 정책기획단 용묵 스님의 원탁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주제 제안 설명으로 이어졌다.

이명호 박사는 전북불교의 종책 방안 제안을 통해 ‘전북불교활성화방안’은 지역 불교의 구성원들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사찰과 신도들이 참여하여 공의를 논의하는 대중공의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출 · 재가 구성원들의 초고령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불교의 영향력은 없었으며 다양한 사회영역과 교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정책기획단 용묵 스님은 사부대중 원탁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교구 · 문중과 지역 사부대중이 연결되는 협력체계 강화, 실무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실험과 연대협력 지속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탑사 · 쌍봉사 등 마이산 겨울동화축제 동참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태고떡볶이 봉사단,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봉사단, (사)장엄, 붓다복지관 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 등 진안지역 사찰과 불교계 봉사단체가 진안 마이산 겨울동화축제에 동참했다.

북부마이산 상가협회에서 주관하고 진안군, 전북도청, 진안자원봉사센터에서 후원하는 진안 마이산 겨울동화축제는 구랍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진안군 불교계 봉사단체들은 진안군자원봉사센터 홍삼찐빵 봉사단, 드림커피 봉사단, 크리스마스 산타복장 체험사진관, 진안단위농협 봉사단 등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태고홍삼떡복이 봉사단, 붓다봉사단, 크리스마스 팔찌 만들기 체험 등의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또 (사)장엄에서는 전통한지등을 전시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은 산타복장으로 등장해 “겨울축제를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짜임새 있는 축제를 만들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어 많은 칭송을 받았다” 며 “보람 있는 축제를 기획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진성 스님은 산타복장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겨울동화축제를 찾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줬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 홍보영상 제작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는 구랍 21일 간담회를 통해 “광주지역 중요사찰 40여 곳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성 스님은 “광주지역 사찰의 영상을 촬영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찰 홍보를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불교연합회는 1차로 원효사, 동원사, 광덕사, 법륜사, 약사암, 신광사 등 6개 사찰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유튜브 홍보영상은 3분 내외의 영상으로, 드론 항공촬영, 중요건물 영상, 사찰 전경 사진, 법회, 기도 사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광주불교연합회는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2021년 6월부터 부설기관인 사진문화기획단(단장 무진, 약사암 주지) 회원들이 각 사찰을 방문해 촬영했다.

2022년 한 해에만 32회의 출사를 통해 사찰 전경을 포함해 초파일 행사, 법회사진, 사찰의 꽃 등 사찰의 모습을 촬영했다.

총무부장 해청 스님은 “사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없는 회원사찰의 홍보영상을 만들어 주어 SNS상의 사찰홍보를 대신하는 의미를 담는다”며, “지난 6년간 사진반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사진문화기획단의 첫 일반사업으로, 회원사찰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광주불교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사진콘테스트 수상작 발표



화엄사(주지 덕문)가 구랍 25일 국보인 사사자삼층석탑을 주제로 하는 ’효(孝), 사랑 휴대폰 카메라사진 콘테스트‘의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수상자는 대상에 박선주의 ‘화엄사에서 빛나는 부모님’〈사진〉이, 최우수상에 이상석의 ‘3대 가족이 화엄사에서’가, 우수상에 김영란의 ‘둥이들과 함께’, 가작에는 조희경의 ‘부모님과 함께한 포근한 화엄사’가 선정됐으며, 입선 두 작품에는 이경민의 ‘코로나를 극복한 엄마와 아들’과 윤봉섭의 ‘딸아이 공직시험 합격 후’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2023년 신년법회 때 진행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인사 동지맞이 자비나눔 행사



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가 우리의 전통 명절 동지를 맞아 합천군 관내 4개면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선물세트와 연탄 등 물품을 전달했다.

해인사는 구랍 23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로면, 묘산면, 봉산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 어르신 810명과 가야면, 야로면 지역 초 · 중학교 학생 210여 명에게 정성을 담은 선물 1020세트를 전달했다.

또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가구에게는 연탄 2000장 등 약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보시했다. 이밖에 다문화가정 40가구에게는 케이크를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거제 신광사, 자비의 쌀 기탁



거제 신광사(주지 선안)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의 쌀 100포(1000kg, 350만 원 상당)를 거제시청에 전달했다.

선안 스님은 구랍 23일 거제시청을 방문해 박종우 거제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비의 쌀 100포를 전달했다.

이어 시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선안 스님은 “거제시와 지역주민들과도 상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의 역할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자비의 쌀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奉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祝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약사사추모관운영) 희망다문화 협동조합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약사사장학회 이사장 화 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1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혜승 종정사서 보명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승정위원 인봉, 은곡, 지민, 지운, 지심, 지공

총무원장 해불 원장사서 성화 사정부원장 성우
종회의장 지경 교리연구원장 남륜
총무부원장 포교원장 해인 포교부원장 지연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자원 수선원장 응진 수선부원장 성혜
사회부장 도일 재무부장 성덕 교육원장 법지 교육부원장 묘현
문화원장 혜관 문화부원장 마애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무원장 충 북 종무원장 정연 충 남 종무원장 성현
대구·경북 종무원장 지화 경남·울산 종무원장 무간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중앙종회
종 회 의 원 지학 성현 성화 근혜 보명 묘현 정연 성각 지화 응진 지연 자원 혜송 무영 해산 성덕 해인 도암 도일
중앙신도회장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불성평등 자유의지의 천부적 권리 우리불자들이 지켜 나갑시다.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원로원장 **효덕**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2023 謹賀新年 계묘년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원
의 장 혜등 보명
부의장 근파 경원
(원로원 의원 일동)

총무원
총무원장 도월 관효
(실 · 부장 · 국장 일동)

중앙종의회
(중앙종회 의원 일동)

전국 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법경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마산교구종무원장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강원교구종무원장 서리 승일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창녕교구종무원장 법상
전라교구종무원장 대행 정각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대표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사)대한불교대승종

종 정 **동건 법경**
총무원장 **법보 일봉**
종회의장 **탄 영**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가원 성각**
포교원장 **법전 법현** 고시원장 **벽산 혜암**

강원종무원장 **영 명** 서울종무원장 **감 우** 경기종무원장 **혜 암**
충청종무원장 **진 산** 전라종무원장 **덕 운** 군산종무원장 **덕 일**
경북종무원장 **탄 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 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진 성**

총무부장 **진 공** 사회부장 **진 성** 호법부장 **진 각** 포교부장 **진 산**
재무부장 **지 안** 연화부장 **정 해** 문화부장 **공 덕** 교무부장 **진 문**
포교부장 **태 천**

종도일동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총 무 원 장 **법응 정관**

연수원장 **용정 일월** 고시원장 **보화 원도**
교육원장 **월화 법봉** 총무국장 **무화 무경**
포교원장 **금화 백담** 사회국장 **용화 해월**
문화원장 **법경 월명**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복지원장 **법수 청운**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기획실장 **진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대한국불교조계종 총연합회

자문위원 **(은덕사)종천 (성덕암)법신 (해원암)지우 (본각사)법우**

총무원장 **호산 성보**

호법원장 **(구천사)상원** 마산종무원장 **(삼선암)정안** 경기종무원장 **(반야사)지연**
감찰원장 **(화엄사)무심** 밀양종무원장 **(약사암)연화** 전북종무원장 **(광명사)대명**
교육원장 **(성불사)무덕** 울산종무원장 **(감로암)동련** 대구종무원장 **(무상사)일불**
문화원장 **(문수암)승태** 경남종무원장 **(수선암)성산**
포교원장 **(양명사)석법성** 비 구 니 원 장 **(관불사)관조** 비구니부원장 **(향적암)지범**
호계원장 **(약사암)보임** 진주종무원장 **상원** 김천종무원장 **(약수암)자운**
재무원장 **(묘음정사)덕운** 총무원중앙신도회장 **진영혜(보리심)**

무연고자 장례 및 선천성어린이 심장병돕기 종단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사부대중 일동

대한국불교조계종(총연합회)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발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광려천북로 208 총본산 불광사
전화 055)232-7819, 010-8540-8209

2023 謹賀新年 계묘년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산불광사

종 정 **정산도정 석청봉 화남**
총무원장 **덕륜 석법경 화남**

종도일동합장



종도모집중 | 가입문의 010-5024-5249 석정현 총무국장

총본산:경남양산시 주진로205 천성산 불광사 전화 055-364-4747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이 사 **인각 법광 만법 도각 법공**
감 사 **대성 혜원**

각 교구장 및 대의원 일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2023 謹賀新年 계묘년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 봉** (흥해 연봉사 주지)

서울	미륵암	지 엄	중앙종회의원	경북	광명사	선 광	문화국장
강원	무애암	성 각	중앙종회원로의원	충북	용문사	도 견	비구니원장
광주	서광사	원 영	원로의원	광주	현법사	혜 명	비구니부원장
경남	심우사	도 광	원로원장	청주	화암사	법 행	규정부장
경남	후원정사	무 상	호법부장	경북	불성사	지 덕	비구니의원
재주	육각사	해 법	문화부장	전주	자운암	묘 정	홍보부장
경북	지장암	적 광	홍보국장	경남	연후암	연 후	포교단장
경남	효심사	해 안	홍보부장	경북	천지암	보덕심	포교국장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540-17
전화 054)262-5060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청년불교, 재중불교, 한글불교

사단법인 재한불교 해인종

www.haiinjong.org

종 정 만허 혜지

종정사서실장 법인 종정사서부실장 정오, 송담

원로위원 : 금광 금강 덕산 공덕 보리 청담 승공 선광 담원 혜철

원로원장 : 법공 종회의장 : 도원 총무원장 : 대호
사정원장 : 혜담 포교원장 : 원진 유천도원장 : 지완
교육원장 : 금봉 비구니회장 : 보원 불무도원장 : 보각
법사단장 : 대공 학술원장 : 운곡 사무총장 : 자륜

총무부장 : 정오 총무국장 : 선덕 교무부장 : 동진 교무국장 : 덕일
재무부장 : 자등 재무국장 : 도현 교육부장 : 인봉 교육국장 : 도운
기획부장 : 청봉 기획국장 : 법봉 사회부장 : 송인 사회국장 : 혜안
규정부장 : 해원 규정국장 : 중광 포교부장 : 보광 포교국장 : 용성
홍보부장 : 송하 홍보국장 : 대향 문화부장 : 지홍 문화국장 : 서진
의전부장 : 은산 의전국장 : 선재 봉사부장 : 법수 봉사국장 : 명진

총무원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433번 가길 82-3(주례동 낙은사) **전화** 051)322-5918, 312-3777
이메일 jalun2545@daum.net **홈페이지 한글도메인** 대한불교 해인종, 해인종

국내최초불교무술종단

사)호국불교무림종

(한국불교무술대학)

방장 약산대종사 종정 인극대종사 학장 법승종사

총무원장 무불 종회의장 혜명 교육원장 용산 중앙연수원장 청호
학술원장 혜광 예술원장 현숙 포교원장 길상 고문변호사 조영웅

각지역 종무원, 연수원장 및 임직원 일동

사)호국불교무림종(한국불교무술대학)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반명함판 사진 등

입 종 시 사암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및 지도자자격증 발행

- 총무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번지 코트디부아르빌딩 10층
- 중앙종회 : 부산광역시 동구 증산로 16번길 30
- 불교무술대학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522-260번지(약호사)
- 중앙연수원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2길 11-8(3층) 한국종합무술원
- 변호사 조영웅법률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8 1303호
- 총무원장 무불법승합장 010-8988-9672

후원 : 주간인물사/(주)성원씨엔디건설/(주)동진특수금속/변호사조영웅법률사무소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총무원장 법정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공** 포교원장 **보아**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자운 보우**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정운**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보림** 포교부장 **보월**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임** 재무국장 **보영** 교무국장 **정향** 포교국장 **법산** 사서국장 **보륜**
사단법인 무예문화원 총재 **정해안**

■ 총 림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11(괴정동) 은암천불정사 전화 :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스님**

종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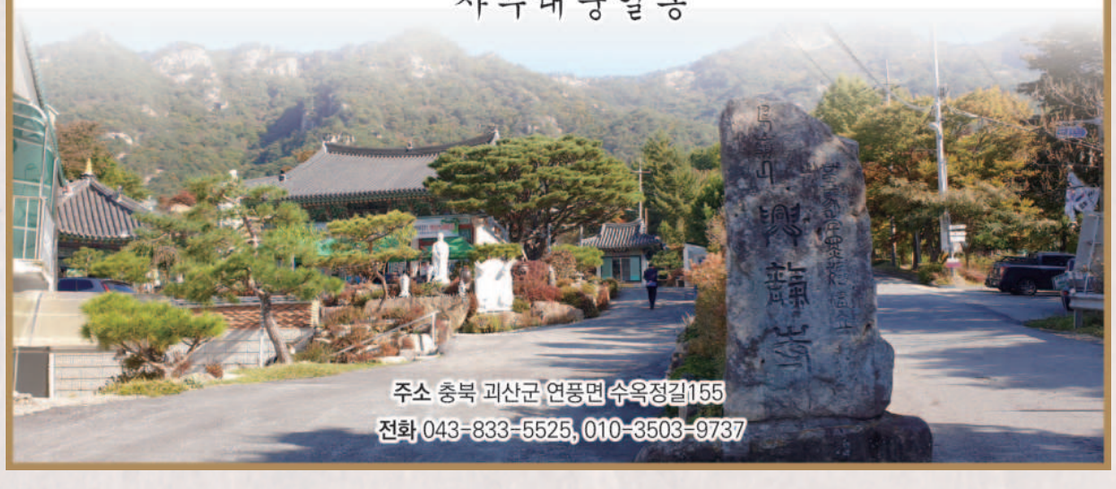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세계불교 육조조계종 총본산

괴산 흥천사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총재
세계불교육조조계종 종정 석동봉
흥천사 조실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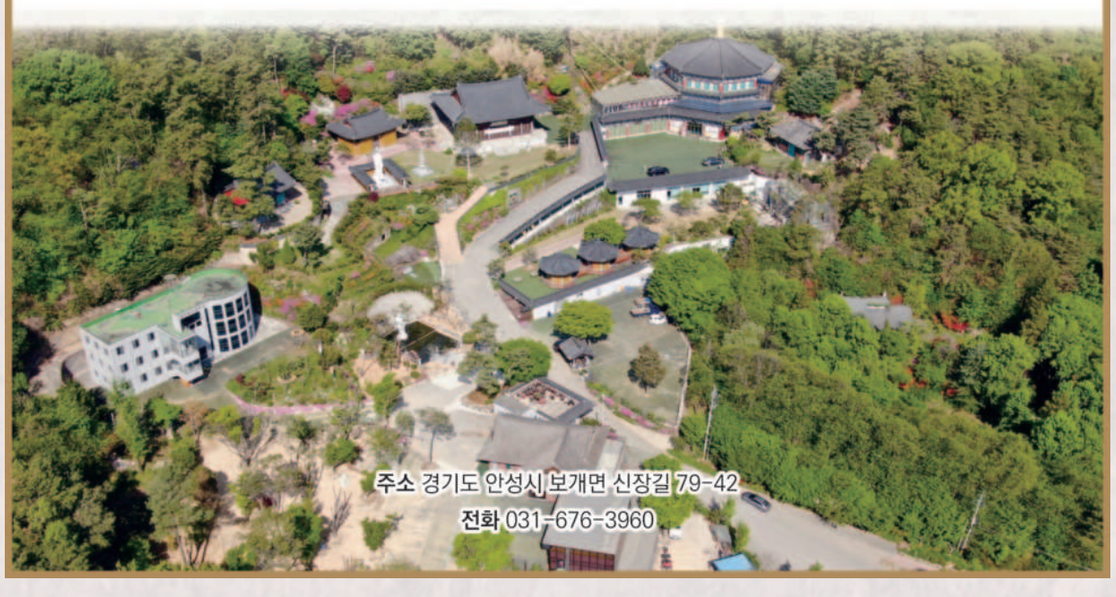


주소 충북 괴산군 연풍면 수옥정길155
전화 043-833-5525, 010-3503-9737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총림

안성 영평사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영평사 주지 정림



주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길 79-42
전화 031-676-3960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 정 호림당 혜원
원로의장 정광

총무원장	법성		명예종정	법경	
교육원장	도원		부종정	법정	
호법원장	홍법성원		종회의장	혜관	
포교원장	진언일		감사원장	보덕	
비구니원장			문화원장	이재	
			비구니부원장	무상	
			비구니부원장	광명	
문화부장	해원		총무부장	법일	
사서실장	벽산				

교(敎)는 배워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선(禪)은 닦아서 육관을 통해 보는 것이니 제대로 된 참선을 배워야만 합니다.
선을 통해 같이 동행할 스님을 모집합니다.

종 도 일 동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전화 053)322-0567, 010-6537-0567

울산 천 만 사

천만사 법왕대왕 향덕 박승억 존자가
7개국의 스님들의 축하 속에 법왕대왕으로 추대됐다.



네팔세계불교승가재단과 룸비니불교협회, 세계불교교황청에서 주관하여 지난 2022(불기2566년) 11월1일 네팔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공원내 대법황 추대식을 위하여 각국대표단 외국고승들과 한국대표 큰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동참하여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을 확립시키고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하였다.

특히 네팔대표스님, 캐나다대표스님, 싱가폴대표스님, 미얀마대표스님, 티벳트대표스님, 스리랑카대표스님, 인도대표스님 등이 참가하여 향덕 큰스님의 대법황추대에 대하여 다같이 경축 불공으로 경하드렸으며 룸비니시장님께서도 축사를 해주시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세계불교교황청 교황청장 석능인 합장

울산시 북구 달천 만석골길 108 전화 052-295-3407 pail3407@daum.net

2023 謹賀新年 계묘년

사)대한불교 관법조계종 총본산 여래사
사)한국불교 사 회 복 지 재 단 여래원

회주 명암 대종사

종도 일동

각 지역교구 및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중공사로 화합하고 상생하실
종도 스님들을 모십니다.
종도가 되시어 치유명상센터, 상좌부교육,
명상지도자양상과정, 다도(茶道) 등을 전문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동공발원 동공성불을 기약해 보십시다.
시절인연에 맞는 불교문화 창조!
[제출서류: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증명사진 등]

명상 힐링 도량!
총본산에서 합동기도 봉행
8개국 불교국가와 MOU 체결
명상/힐링/치유/음악과 함께 하는
약 120평 야외법당 조성

사)대한불교 관법조계종 총본산 **화악산 여래사**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요고3안길 138
접수처: 055)354-0398, 353-0398 팩스: 055)354-0418 회주 스님: 010-3862-0398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12대 총무원장 혜일스님 취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하는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종단 혜일스님이 제12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되어 취임하였음을 제방에 알립니다.

불기 2567년 계묘년 새해아침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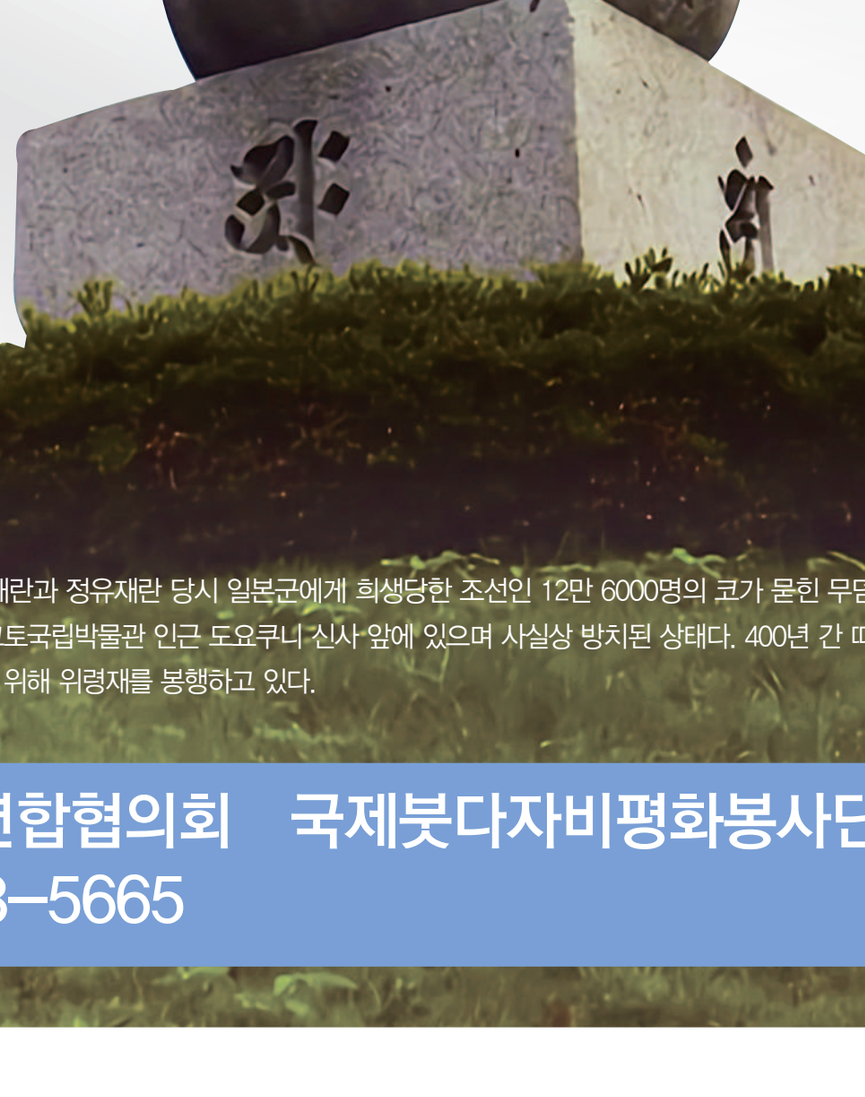
12만 조선인 '限' 서린
교토 '耳塚'(귀무덤)
4월 29일 , 한국불자들이 고혼을 천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 사명으로
지구촌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같이 울고 웃은 43년
땀 흘려 봉사하는 발걸음 멈출 수 없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가
2023년 4월 29일, 선조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교토 '**이총**'(귀무덤)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 및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세계평화와 한일문화교류의 염원이 담긴
한국불자들의 대법회서는 불교전통 천도의식이 집전
300여 순례단, 300여 오사카 현지인이 참석합니다.

그늘진 곳서 봉사활동, 음성공양, 육법공양으로
활동하는 불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려운 이들의 인간방생 도반이 되어 주시길 청합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모집

전국 각 지역 지부장 및 지역봉사단원을 모십니다
국내외 남녀 자원봉사자 환영합니다
지역 불교지도자 : 종단 불문, 포교에 나선 출가자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 남성분과, 여성분과 활동 재가자



*이총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에게 희생당한 조선인 12만 6000명의 코가 묻힌 무덤이다. 교토 이총은 교토국립박물관 인근 도요쿠니 신사 앞에 있으며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400년 간 떠 도는 원혼을 달래기 위해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활동문의 02-733-5665



대행 스님

이 세상만사가 전부 인간 마음의 근본에 가설돼 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죠? 참, 나도 웃기는 사람이죠?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몰라서 그냥 건둥 건둥 건둥 뛰어가는 거예요. 여기 뛰어가서 한마디 하고 저기 뛰어가서 한마디 하고. 그렇지만 들으시는 부처님들이 다 들으십시오. 허허허.

그러니 그 재료가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에 참, 고칠 수 없는 병이 났다 이럴 때는 나한테 광력이 있기 때문에 안의 그 광력으로써 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또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력이 있는 그 자체가 불이 항상 들어온다면, 이건 자가발전소입니다. 꺼졌다가 켜졌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전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북하면 자가발전소라나요. 항상 켜져 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꺼진다 켜진다 이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자력이다 하는 거는, 보세요. 자석이면 한계가 있지만 자력이에요. 자석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자력은 한계가 없다 이 소립니다. 어느 법계의 소용돌이도, 이 땅바닥에도, 우리가 지금 딛고 다니는 것도 자력이 있기 때문에 딛고 다니는 겁니다. 자력이 없으면 우리는 한 치도 여기 붙지 못합니다, 공중에 뜨지.

여러분이 이렇게 또 허공에 그냥 원만하게 다니시는 것도, 이 허공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꽉 찼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포에 생명들이 없으면 어떻게 모든 것을 들이고 내고 가늠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대기권도 있는가 하면 바로 지구의 대기권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집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그 주인이 있기 때문에 바깥의 모든 일도 다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에서 살면 뭐 어디 샐 틈이 있으면 울타리도 하고 들어올 틈이 있으면 잠그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모두 인간에게도 세포 하나하나가 법계죠. 작게 따지면 인간의 몸에도 법계가 있고 대기권도 있고 크게 따지면 어느 큰 혹성에도 법계가 있고 대기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많은 중생들이, 요걸 잘 들으세요. 이 중생의 수효가 이렇게 10억이나 되는 수효가, 11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 곱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11억 중의 하나가 한생각을 하는데 원자에서 분자가 그렇게 많아진다 이겁니다. 입자가 많아지고 분자가 많아지고 즉, 원자에서 입자가 그렇게 수효가 많아지고 그 입자에서 분자가 그렇게 수효가 많아지고 그럴 때에 바깥에서 통신도 할 수 있고 또는 들어오는 거 처리도 하고 나가는 거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레이더망의 그 모든 대기권을 주장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 하고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경전에서만, 이론으로만 그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삼천배 하는 거보다 한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은 절에 가서 기도드린다고 추운데 목욕재계를 하고 또 음식도 가리고 남편도 멀리하고 자식도 버리고 그냥 뛰어가서 기도를 드린다고 백일기도니 무슨 천일기도니 또 삼천배니 백팔배니 하고, 그러고도 주문을 외우고 그러느라고 아침 새벽에도 다복하게 남편한테 오손도손 따뜻하게 해 주지 못하고 애들한테도 못하면서 외딴 방에 가서 주문을 외우고 귀신 노릇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만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귀신 노릇을 해야만 속이 시원하겠느냐고요. 여러분이 귀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 노릇을 여러분이 안 한다면 귀신이 아예 없어요.

어느 때에 어느 신부님이 날더러 이렇게 묻더군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귀신 노릇을 한다면 귀신이 있을 테고 귀신 노릇을 안 한다면 귀신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꼭 물로 인해 해를 볼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물가에 안 갔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신도님들이 모여서 초대를 해서 갔는데 층층대가 이렇게 있는 집인데 아, 신부님이 오시니까는 그냥 말갛게 층층대를 전부 물로 닦았단 말입니다. 물로 닦았는데 올라가시다 그 물에 미끄러져서 그냥 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허리를 못 쓰고 일 년이나 일 년 반쯤이나 돼서 인제 겨우 일어났다는 거지.

그런데 없습니까 이거야, 날더러. 귀신이 없습니까 이 소리지. "아이 참, 신부님 이상하십니다. 아니, 신부님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귀신에 그렇게 말리지 않을 건데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귀신에 말리죠."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끔벅끔벅하더군요. 그러면서 아, 그럴 법하다 하고 아, 거기서 그러곤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고요. 그다음부터는요, 그 신부가요, 야 참, 내가 생각하니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 이름도 간판으로 붙여 놓은 것뿐이지 모두가 둘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책도 나오는 대로 가져가시고요.

그런데 그게 흉이냐. 그게 아니에요. 서로 서로 사랑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한다 말하기 이전에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산천초목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고, 물에서 들에서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새가 울고 물이 흐르고 끝과 종점이 없이 여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진리인데 어찌 인간이 이게 잘못이다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러고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지구가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라면, 내 자리 네 자리 찾겠습니까? 그 버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안에서 더군다나. 아니, 그 버스 안에서 내 자리 네 자리를 찾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리 네 자리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 버스 안에서. 허허, 재미있는 일들이죠?

여러분이 지금 앉으셔서 그 마음으로 집에 한번 횡하게 다녀오세요. 빛보다 더 빠를 테니까요. 어떠세요?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심안의 눈으로써 천체를 탐험할 수 있다는 사실. 마음 안에 그 진짜 마음으로 천체를 들을 수 있다는 거. 나 아님이 없기에 못 하는 게 없고 잘한다 못한다 이게 없다 이거야. 이 언어가 붙지 않는다 이거야.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유스럽다.

이렇게 좋은 법을 이러니저러니 하고, 천만 가지를 갖다가 법당에다 올려놓고 빌어 보십시오. 대가가 오나. 위안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좋은 일이 오겠지.' 하는 위안.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으로 내가 잘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가 봐서 못살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갖다 줘. "이걸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좀 더 보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갖다 주라고. 가다가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쌀도 사 줘.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양 무제가 그렇게 스님네들 옷을 많이 하고 집도 사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왕이. 그런데 달마 대사한테 "저는 얼마나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니까 "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리로서 약사발을 안겼죠. 그런데 달마 대사는 죽어서도 그 양 무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 무덤 속에 묻혔는데 거기 신발 한 짝만 남겨 놓곤 턱하니 주장자에다 신발 한 짝을 꿰어 가지고는 턱 나와서, 즉 말하자면 뭡니까, 왕이 보내는 그, 사신! 사신으로 갔다가 오는 길에 달마 대사하고 턱 만났단 말입니다. 아, 만나서 인사를 깍듯이 하고선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까 난 서쪽

☞ A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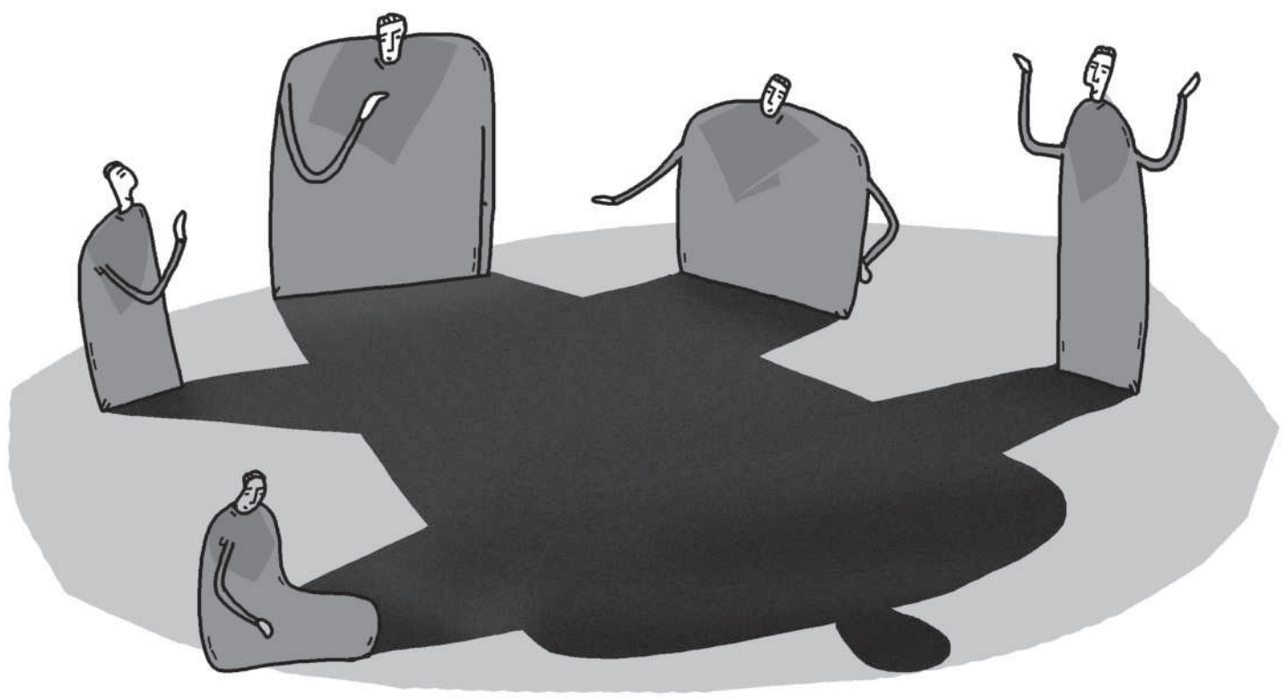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 악이 들어와도 내 주인공에 탁 맡겨 놓고 그냥 지켜보라

☞ A29면에서 계속

으로 간다고 그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양 무제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죽여서 벌써 묻었는데 아니, 달마 대사가 웬일이냐고, 그때에 양 무제가 생각을 한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산소를 파 보니까 거기에 신발 한 짝만 남기고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 무제가 생각했대요. '저승에도 달마 대사가 있고 이승에도 달마 대사가 있구나. 달마 대사가 이렇게 둘이 아닌데 나를 가르치느라고 그런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선 땅바닥을 두드렸대요.

그랬듯이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시주를 하고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내가 가게 갈 때 말입니다, 물건을 사러 갔기 때문에 돈을 그 사람에게 줬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갖다가 주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아니, 돈 갖다 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주상으로 그냥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 게 와, 그 대가가. 그게 공덕이거든. 그런데 내가 꼭 물건을 갖다 주고는 그 값어치를 받아 가지고 가려고 그냥 무진 무진 애를 쓰죠. 저 사람한테 만날 내가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야. 내가 줬다는 거야. 아니, 거기서는 그것 줬다고 그러니 공덕이 있을 법이 있습니까?

공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아파도 이 몸 안에서 한마음이 돼 주는 게 이치고 바깥에서도 한마음이 돼서 그냥 전부 한마음으로 들게 되니 아픈 사람이 따로 없는 거죠. 이 몸이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먼지 앉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병 붙을 자리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병이 붙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냥 병도 나아 버려.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하는 거보다도 항상, 나는 그래요. 우스갯소리도 되지마는 진짜로도 그래요. "그 병 낫게 해 주면 날 뭘 줄 거야?" 그러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고마운데 뭐는 못 드리겠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겠습니까, 내 몸도 버릴 텐데…." 아,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달라시는 대로 드리죠." 이래. 내가 도둑이야, 달라는 대로 주게? 하하하.

그래서 L.A.의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좀 더 화목과 평화와 사랑, 그리고 가환이 없이 병고가 없이 자유스럽게, 여러분 한생각에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막 뿌리는데 거기서 그래도 여러분은 주울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나를 떠나서 믿는다면, 여러분을 여러분이 떠나지 말고 믿으시고,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이 되걸랑 따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나와 이렇게 동등하게끔 될 때까지 나를 따르라는 거지 나를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믿는 거는 반드시 여러분 주인공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을 이익하게 할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이 있걸랑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질문자1(여) 스님 가르치심을 통해서 배운 바가 많은데요, 제 나름대로 근본 그 마음은 저희 마음이나 스님 마음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이나 또는 예수님 마음이나 생명의 모든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 특히 이 미국에는 불교보다도 기독교라든가 이런 종교가 많은데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아서 인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다 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거든요.

이 우주에 있는, 같이 돌아가는 그 마음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로 돌아가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은 대상이 없는 그 자리, 아무것도 때 묻지 않은 그 자리가 결국은 모든 우주를 돌고 돌게 하는 그 원동력이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상당히 격하시키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혹시 또 제가 잘 모를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내가 요거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엊그저께 수박을 하나 사 왔습니다. 그랬는데 수박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과거 씨를 찾는다면 과거 씨를 저 바깥에서 찾는데, 내가 지금 작년 씨를 가지고 올해 심어서 자기 수박이 났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 수박들이 자기 씨 찾는다고 글쎄, 과거에 심은 자리를 가지고 찾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밭에 가서 찾습니까? 어디 가 찾습니까? 그런데 수박이 있다 하는 소리가 말입니다, "내 씨는 내가 과거 씨를 가지고 수박이 됐고 그 수박 속에 씨가 들어 가지고 이 세상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그 씨가 되남아서 내년 봄 오늘에 또 수박이 나서 또 먹이고 또 남고 또 먹이고 또 남고 그러는데 아니, 다른 수박들이 글쎄, 자기 씨를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곤 저 바깥에 심은 자리를 찾아다니더군요." 아이, 수박이 이러더군요, 허허허.

인제 그거는 그렇게 해 두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것도 개입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내 씨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박과 씨가, 씨가 없으면 수박이 되지 않고 수박이 없으면 씨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과 똑같은 얘깁니다. 여러분의 생명 근본, 이 마음 내는 것, 이 육체가 없으면 안 되니 그냥 이거는 불가분득 하나로 뭉쳐져서 일체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일체로 돌아가는 동시에 우리가 한마음이다, 하나님, 이렇게 기독교에서 믿는 거 가톨릭교에서 믿는 거는, 즉 말하자면 하나로 모아서 고상에다가 하나로 집중을 한다고 합시다. 그전에 나도 가톨릭교에 입교해서 좀 다녀 봤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도 되고 주도 되고 그 고상에 다 그냥 모두 일임을 시키는데 뭐, 한 트럭 실었다가도 거기다 그냥 다 맡깁니다, 하나님한테다가. 그런데 그게 틀렸다는 얘깁니다.

나로 인해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벌써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로 이렇게 자꾸 바깥에서 하니까 자기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죠. 자기 영혼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덕도 될 수가 없죠. 아무리 갖다가 시주를 해도, 아무리 갖다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해도 내가 한다는 그 마음이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으니까 자기 주인공에 자기부터, 자기 영혼부터 구원을 받고 난 뒤에야, 자기부터 발견하고 난 뒤에야 바깥의 둘이 아닌 도리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는 거는 내 님입니다, 내 님! 하나의 내 님! 내 님부터 찾아라 이거야. 내 님부터 발견하면 바로 모두 하늘님을 안다고. 그래 하늘님을 알면 한울님을 알아. 내가 없으면 하나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부터 알고 그러고 나면 둘이 아닌 도리, 하늘님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한울님을 알게 돼. 우주간 법계 천체가 들린다 이 소리야. 듣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듣는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반면에 모든 게 하나로 되는 거지. 하나로 되는 거야. 둘이 아니지. 어느 종교든지 마지막에 가서는 둘인가, 어디? 마지막 아니라도 둘이 아니지. 그러나 안으로 해서 내가 실천으로 옮기느냐 바깥으로 찾아서 그렇게 실천을 못 하느냐 이게 문제지.

질문자1(여) 그러니까 동등한 자리라고 봐도 되는지요.

큰스님 동등한 자리건만 그 사람이 행하는 게 동등치 못한 거지. 동등한 자린데 그 사람 개개인이 하나하나 하는 행이 그렇지 아니하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너 나가 둘이 아니면서도 너 나가 뚜렷하게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이거지. 학교는 학교인데 소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지. 그것이 모두가 가르치는 학교는 다 마찬가지건만 그 개개인이 어린애가 있고 조금 큰 게 있고 조금 더 큰 게 있고,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듯이 그렇게 차원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을 따질 때에, 이 지금 마음공부 하고 가는 사람도 탑을 쌓아서 이 봉우리를 턱 올려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새로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 쌓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듯이 인간도 살아나가는 데 그렇다 이거죠.

질문자2(남) 세상을 살다 보면, 주위에서 절대 악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 악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큰스님 반응을 왜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전력은 있는데 이 가설만 만들어 놓고 전력이 없으면 불 안 들어오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만사가 전부 인간 마음의 근본에 다 가설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불을 켜는데 그쪽에 어떻게 불이 안 들어오겠느냐 이거야, 나하고 벌써 근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주인공에 탁 맡겨 놓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 봐요. 그리고 만나걸랑 부드럽게 말해 줘요. 뭐, 이 몸뚱이 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모두 가지고 갈 건가요? 내 몸뚱이도 버릴 텐데 뭐 가지고 갈 게 있다고 그렇게 아웅다웅 그래야만 합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그러니까 어떠한 걸 재산을 하늘땅만큼 가졌다 하더라도 내 이 진실한 마음하고는 바꿀 수 없어. 그게 부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주인공,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는, 즉 말하자면 정(定), 주인공에 다 이렇게 맡겨 놓고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그저 규합돼서 얼굴 붉히지 않고 살게 해 주는 것도 너 아냐, 이 영원한 친구야!' 이렇게, '한마음 친구야!' 이래도 좋아요.

질문자2(남)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부드러움도 곧 선 아닙니까?

큰스님 선도 없고, 이 공부 하는 사람은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질문자2(남) 아니, 참선하는 그 선이 아니라요, 좋다 하는 선. 아까 그것도 이분법 아닙니까?

큰스님 그래요. 그것이 선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선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선이 되지.' 이런 생각조차도 그냥 다 놔요. 행이 중요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그 만 가지, 당신 나무에서 익은 실과가, 한 실과가 만 가지 맛을 낼 때 그 즐거움이란 말로 못 해서 하늘을 보고 한나절을 웃고 땅을 보고 한나절 울었대요. 어때요? 그래서 앞뒤 터진 대피리 소리는 우주 법계를 두루 하더래요.

좀 그렇게 무조건 당신을 믿고 당신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모든 거를 그저 용도에 따라서 오는 대로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거라면 공부할 수 있겠죠. 좌선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이 편안해야 좌선이고, 망상이라는 것도 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참나를 발견하게 이끌어 주는 바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망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망상이라고 하는 관념 그것도 놔 버려야죠. 아, 분별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분별이 없으면 목석인데 목석이 돼도 아니 되니까 분별을 하더라도 분별을 분별이라고 하지 말고 망상을 망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만이 열반으로 직결 들어가는 코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고 괴롭게 사시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라 이거죠.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났다가 한 번 옷 벗기는 마찬가진데 옷 벗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좀 알고나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사람이 한 번 이 세상에 왔다가 한 번 옷 벗기는 마찬가진데
> 옷 벗기 전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 좀 알고나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2월 2일 국외지원법회 법문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2023 謹賀新年 계묘년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자기 근본을 믿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마음의 샘물을 먹을 수 있다.
- 대행선사법어 -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043)877-2900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장 **이병호**

회원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20번길 1 (농민빌딩 4층)
전화 052)271-1310 팩스 052)258-1370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회주 **눌암 지정**
주지 **향원 남수**

신도회일동



울산시 동구 녹수5길 50
전화 052)234-1188

대한불교 능인종

사부대중일동

총무원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905-13(청룡사)
055)585-5300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울산 천마산 **서 장 사**

회주 **진옥** 주지 **불 성**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253
종무소 전화 052)293-0108 010)9741-1188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산 **내 원 암**

주지 **진 응**

사부대중일동

경남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382
전화 052)238-5088



대한불교 원효종

야단법석

벽 선 암

주지 **홍법혜진**

신도회회장 **전순남** (사)야단법석대표 **김은아**
운영위원장 **김영란** 거사회회장 **양범수**
대외협력단장 **김기원** 거사회부회장 **김문식**
총 무 **김복득** 거사회총무 **김효식**
법 당 **주난희**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36-6
HP) 010-5101-0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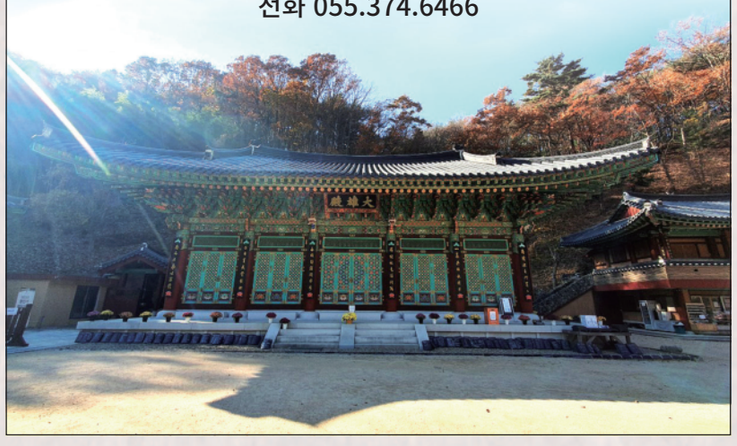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내 원 사**

주지 **지도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207
전화 055.374.6466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울산 **덕 원 사**

주지 **태여 덕원**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길 129-10
전화 052)246-8688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모산 **장 유 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일동

마음을쉬어라 쉬는 까닭에
일체가 내게로 상응하게된다.
- 대행선사법어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해남문화공간

힘들면 쉬었다 가세요
마음이 머무는 곳,
문화공간 **해남**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기상대길 13
전화 052)211-3340, 010-7450-3340

대한불교조계종

행복기도도량

지장정사

주지 **현 우**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7번길 28
전화 052)256-3552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할인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한국불교태고종

불감 정관암

주지 **대활**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발길118(하작마을)
010-4517-0097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 마음 우리의 마음

월봉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운영 울산광역시 시립노인 요양원

주지 **보 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55번지(화정동)
TEL 052-251-4602 팩스 052-235-4602
메일 wolbong sa33@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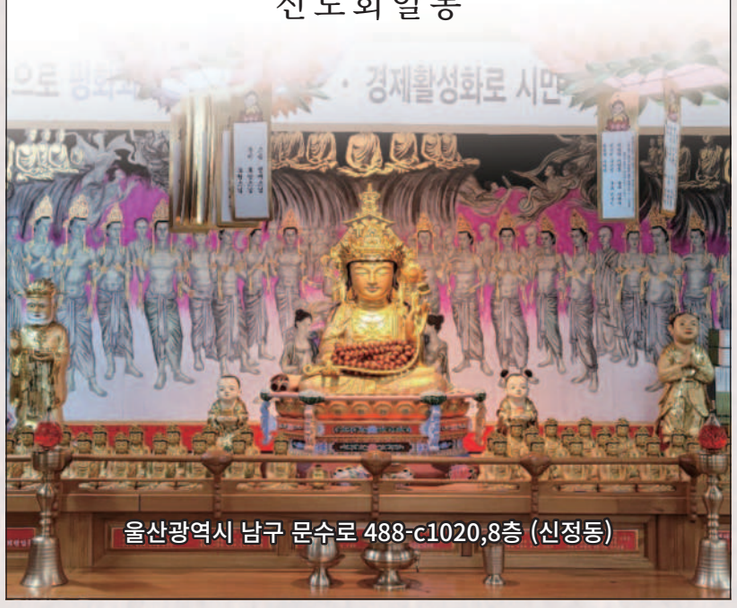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주지 **효 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8-c1020,8층 (신정동)

대한불교조계종

동대산 성불사

회주 **만 상**
주지 **혜 안**

신도회일동

울산시 북구 아랫율동2길 262-70
전화 052)287-7200



대한불교조계종

참선 수행 도량

가지산 석남사

주지 **천 조**

무주상 공덕행으로
복된 새해되시길…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로 557
전화 052)264-8900 팩스 052)264-8908
E-mail : seoknamsa@hanmail.net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와불산 일출봉
약사여래도량

오도암
적 멸 보 궁

회 주 외산 지성

시회대중 합장



경남 고성군 개천면 월곡리446
Tel 055)673-1007

고성 **약 수 암**

주 지 수운 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4길 279-71
055)674-7598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덕 산 사**

주 지 동 조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말사

양산 **미타정사**

주지 여해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대평들1길25-9(소주동)
전화 055)388-3280

보리심은 모든 부처님의 씨앗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천 **사 천 왕 사**

주 지 능륜 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669-3
055)854-0478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원로의원 구하 (관음정사)
원로의원 지현 (해경사)
자문위원 서산 (보광사)
자문위원 월봉 (석봉암)
자문위원 세명 (관음정사)
자문위원 법안 (청량사)
자문위원 옥산 (화엄사)
자문위원 법철 (세심사)
자문위원 석봉 (백운사)
포교위원장 황봉 (관음사)
감사위원장 성각 (기원정사)
교육위원장 석봉 (백운사)
선거관리위원장 만우 (법성사)

중부분원장 혜우 (봉연암)
서부분원장 백현 (금봉사)
남부분원장 자명 (자명암)
밀양분원장 승범 (해광사)
김해분원장 정광 (문수암)

종무원장 환명 (약수암)
종무부원장 도각 (선암사)
종무국장 자명 (석봉암)
교무국장 법조 (보현사)
재경국장 명성 (보광사)
규정국장 혜각 (수도사)
교무과장 법윤 (불정사)

종회의장 정광 (문수암)
종회부의장 자범 (옥골사)
중앙종회의원 정광 (문수암)
중앙종회의원 혜우 (봉연암)
중앙종회의원 보행 (법운사)
중앙종회의원 청호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자범 (옥골사)

중부분원 총무 자명 (석봉암)
서부분원 총무 자운 (여여암)
남부분원 총무 근해 (무상사)
밀양분원 총무 지원 (부은사)
김해분원 총무 무진 (보현정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현대오피스 1201호
전화 055)298-3634 팩스 055)298-3638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망 운 사**

주지 **성 각**합장

신도회일동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서대로 2240번길 708
전화 055)863-3095 팩스 055)863-3096

대한불교조계종 13교구 쌍계총림 말사

남해 제석산 **낙 가 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남해읍 당넘로 82번길 14-16
전화 055)864-4298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용 화 사**

주지 **종 묵**

템플스테이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전화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회주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부설

서림불교대학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167
전화 055)337-0101~5

열려있는 불법마당

(사)진주불교회관

이사장 상전 홍수승

가야불교대학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법화경독송회
진 불 선 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117
전화 055) 747 - 0108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정인사

주지 원 행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어린이집, 정인사불교대학,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금강노인종합복지본관),
경상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전화 055)299-5450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 실 서해 흥교

주 지 법안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Tel 055)262-0108~10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원사

주지 지 태

사부대중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 천웅사

주지 성 우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북로58번안길 12-48
055)545-5598



대한불교조계종

진해 대광사

회주 운성스님

주지 무경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303
전화 055)545-9595

대한불교조계종

성 전 암

주 지 동지 혜찬

신도회일동

"차별없는 세상 모두가 부처님"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로 65번길291
Tel 055)754-7056 Fax 055)753-8662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제13기 신입생 모집

등록기간
2021년 11월~2022년 3월

입 학 식
2022년 3월 5일(토)

주 지 무 아



진불선원·선불교대학
유아어린이청소년법회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12
문의 및 접수. 055)275-3222

新年隨想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유자효
(사)한국시인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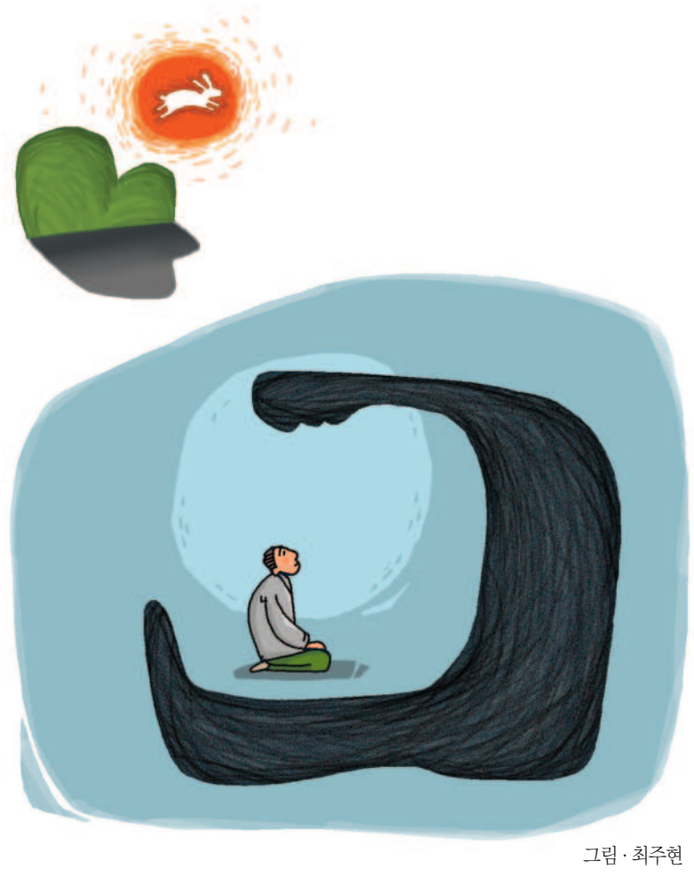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계묘년 새해에는 부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그려봅니다
환난 시대, 淨土 만드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참으로 무상하여 스님께서 가신 지 5년이 되어 갑니다. 불쑥 전화를 하시고는 “지금 뭐하시능교?” “그냥 있습니다.” “퍼뜩 오이소” 하시던 스님께서 어찌 제 꿈결에도 한 번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스님께서 완전한 적멸(寂滅)에 드셨음을 그래서 깨닫습니다. “죽으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야.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조사(祖師) 스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몰라”하시던 그 적멸입니다. 완전한 무(無)의 경지에 드신 것이지요.

스님은 그래서 평안하시겠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상에 스님이 남기신 자취는 날로 커져갑니다. 문단에서는 스님의 문학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고, 매달 시 낭송을 하는 모임도 생겼습니다.

서울에 오실 때면 자주 들렸던 출판사에서는 스님께서 창간하신 잡지의 우수 논문 게재자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스님께서 즐겨 드시던 칼국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모두 스님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스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움에 젖기도 했지요. 이렇게 저는 아직 스님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스님이 계시지 않는 인간 세상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고, 국내에서는 핼러윈데이에 이태원에서 159명의 사람이 깔려 죽는 초현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요. 북한의 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려움에 부딪치면 ‘부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해답이 나오지요.

부처님께서는 왕자님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 출가하셨고,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신 분입니다. 전쟁으로 동족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겪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분입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내외적 상황의 극단을 극복하신 분이었기에 우리가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셨습니다.

우선 새해는 세계가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하여 전쟁에 의한 죽음이 일상사가 되는 일이 없기를,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거리를 방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잦았던 발칸반도에는 적의 존재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해변으로 돌출한 지역은 성벽을 쌓아 도시를 거북등처럼 에워쌌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역은 산등성이를 따라 성을 쌓았습니다. 그 능선이 마치 칼처럼 날카로운 지역도 남김없이 성을 쌓았습니다. 적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으면 사람이 올라가기도 어려운 능선 따라 돌로서 철벽 방어선을 구축했겠습니까?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반도로서는 드물게 70년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 혹여 평화의 신기루에 현혹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동해로, 서해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을 앞에 두고도 방공훈련 한 번 없는 우리의 자세가 오히려 무섭습니다.

그리고 새해는 인류가 팬데믹에서 풀려났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3년 우리가 겪었던 상황은 조상들이 일찍이 겪었던 페스트나 스페인 독감과 진배없는 희생을 치렀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겪는 가족도 간호하지 못하고, 장례도 행정 절차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극을 다시는 겪지 말았으면 합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음을, 늘 치러야 하는 일상사임을 뼈저리게 겪었던 나날. 이제는 그 고통에서 놓여났으면 합니다.

이렇게 병이 무서운데, 어쩔 수 없이 맞아야 하는 죽음도 안타까운데, 새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우리 사회의 어떤 요소들이 자살이라는 막다른 길로 사람들을 몰아갑니까? 이런 요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사회 보장 제도를 세심하게 손보고 구멍 난 곳은 메꿔나가야 합니다. 남들이, 이웃이 모르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회가 무섭습니다. 특히 사선을 넘어온 탈북민들의 죽음은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원시적인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새해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랑하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세계 출산율 꼴찌가 되었습니까?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어른들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는 ‘아이는 온 동네가 키운다’ 는 두레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는 온 나라가 키운다’ 는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동네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동네는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화급하게 노력해야 할 것이 우리의 2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는 그런 나라 만들기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속 질주의 시대에, 마음을 잃지나 않은지 걱정합니다. 마음을 잃은 텅 빈 육신만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지나 않은지요. 새해는 마음 찾기, 마음 챙기기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야 내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며,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 다스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하면 ‘마음’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나의 마음을 찾아 위로하고 끌어안아야 하겠습니다. 남극의 혹한을 끌어안기로 견뎌 나가는 황제펭귄들처럼….

새해는 부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겪으신 부처님, 그 고통을 극복하고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최상의 경지를 보여주신 부처님. 새해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살아가기를 꿈결처럼 그려봅니다. 거기에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社 說

토끼처럼 도약하는 한국불교 기대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한국불교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한 해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당장 2월부터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장장 43일동안 진행되며 조계종의 역점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상월결사 순례의 ‘화룡점정’ 이 될 인도순례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3일간 진행된다. 순례코스는 인도, 네팔의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지까지 부처님 8대성지를 순례하는 길이며 그동안의 상월결사 순례와 마찬가지로 길 위에서 먹고 자고 행선하며 부처님처럼 전법수행을 펼친다.

43일간의 대장정에는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계종이 추진하는 대형 문화교류행사들이 예정돼 있으며, 동국대에서는 인도 나란다대학과 학술대회 및 MOU 체결도 진행한다. 한국불교 역량이 집중되는 것이다. 이 같은 동력들을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조계종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의 슬로건이었던 ‘천년을 세우다’ 를 ‘과거 천년, 미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로 확장됐다. ‘과거 천년’ 은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불사를, ‘미래 천년’ 은 명상센터 건립과 미래세대 포교 등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과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1월 11일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토끼는 예로부터 번영을 상징한다. 한국불교가 추진하는 여러 불사들이 원만성취돼 불교중흥의 기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계묘년, 한국불교의 도약과 굴기를 기대한다.

MZ세대 포교, 공감대 형성부터

‘세상 힙한’ 청년과 예술의 성지 서울 홍대 인근에 게스트하우스를 겸한 명상센터 ‘저스트비 템플’ 을 개원한 준한 스님, 대학생 포교에 뛰어든 진짜 대학생 스님들의 모임 ‘칠불회’ ,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느끼길 바라는 서원으로 ‘감사일기’ 책을 펴낸 한산 스님, 장병들과 새벽 보초를 함께하는 ‘꽃스님 군종장교 범정 스님.

현대불교신문이 2023년 신년에 만난 MZ세대 스님들이다. 청년세대 포교는 동년배인 본인들에게 맡겨달라고 나선 MZ세대 스님들은 “일상생활에서 동년배 간의 공감대 형성”을 포교의 중요한 포인트로 꼽았다.

머리 깎은 스님이 승복을 입고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포교가 된다는 것이다. 스님들은 처음 호기롭게 포교하겠다고 나설 때만해도, 출가할 때 부처님처럼 깨달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처럼 자신감에 부풀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큰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매일 정해진 시간, 누가 오지 않더라도 가사장삼 수하고 예불을 드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활동에 동참시키려 하는 것보다 먼저 말 걸고 스스로 찾아 온 사람을 반기면 된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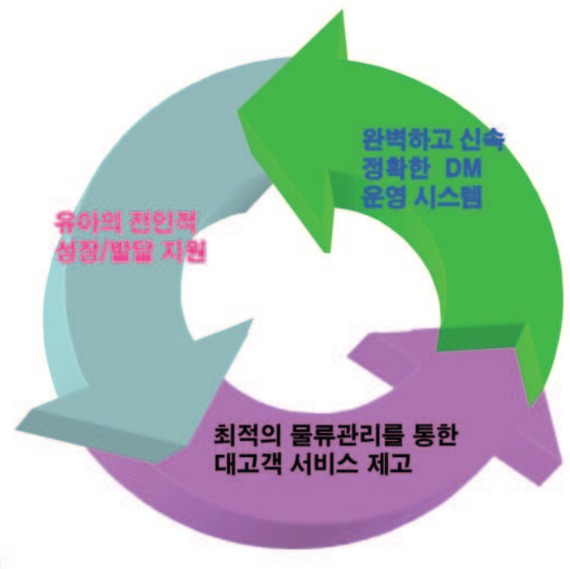
실제 MZ세대들은 합리성을 주장하고 탈권위, 개인의식, 자기주장이 강하다고 말한다. 환경과 평등과 공정, 사회 정의 등에도 관심이 많다. 환경, 건강, 화합 등 MZ세대가 일상생활에서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들은 실제 불교가 지닌 사상과 적절하게 맞닿아 있다. MZ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적절히 활용한다면 MZ세대는 불교에 열광할 것이다.

새해에는 많은 MZ세대들이 일상에서 불교를 알아가고, 또 스며들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4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덕성기획㈜는 ㈜노벨과 개미의 교육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DM 및 물류, 유아교육 사업을 고객의 입장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임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불기 2567년 새해 온누리에 자비와 희망이

마음은 체가 없이
사방이 툭 터졌다
그냥 문 없는 문을
넘어서라

재행선사법이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이동복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

한국 불교음악 르네상스를 꿈꾸며…



리더에게 聽 하다

박범훈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2023년. 새로운 모색과 변화를 기대하며 다시 한 시대를 맞는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을 위한 모색과 변화가 절실한 때라는 점에서 새롭게 맞는 한 시대는 소중한 시간이다. 여전히 힘겨운 숙제와 마주하고 있는 시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공업의 중생을 끌어안고, '중흥'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하는 한국불교는 어떤 모색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문화'가 '시대'라는 점에서 한국불교가 모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희망을 발원하며 새 시대를 맞는다. 오랫동안 한국 불교음악 발전에 헌신했으며, 한국 불교문화를 넓히는 데 공헌해온 작곡가 겸 지휘자 박범훈에게 그 길에 대해 물었다. 음악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문화가 시대를 이끌어 가는 시대에서 한국불교와 한국 불교음악은 어떤 모색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찬불가는 어디에…

2021년 10월, 박범훈이 원장으로 있는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 국·시립합창단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국립합창단의 공연에서 기독교 노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시립합창단 공연에서도 70% 이상의 기독교 곡이 선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국·시·도립합창단 1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합창단의 정기공연 가운데 3.1절과 광복절, 시민을 위한 행사 등 기독교 곡 선정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한 공연에서는 기독교 노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8년 국립합창단 지방순회공연의 경우 13개 공연 중 7개 도시 공연에서 기독교 노래가 100%이거나 필수적으로 편성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종교평화위원회는 "국립합창단 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시립합창단에서 70% 이상의 기독교 곡으로 공연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사실상 공립합창단에서 특정 종교의 선교공연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종교평화위원회는 "이 같은 편중된 선곡의 요인은 합창단 지휘자들의 종교가 타종교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공립합창단 지휘자 모임인 한국합창지휘자협회의 고문과 이사, 사무인력 등 거의 전원이 교회합창단 지휘자와 신학대 교수로 이뤄져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종교평화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특정 종교 편향행위를 하고 있는 전국의 국·공립합창단의 실태파악과 향후 공직자 종교편향 예방교육, 예술단 복무규정 강화, 소통 창구 개설 등 다각적인 개선책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가시적인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온 바 있다. 그 지적들 속에는 한국불교가 노력해야 할 문제도 있었다. 타 종교의 적절하지 못한 행정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지만 그동안 한국불교의 미흡함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었다. 국·공립합창단의 도를 넘은 행보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중요하지만 불교계 역시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이다.

박범훈 원장은 "수준 높은 찬불합창곡 제작과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지원의 부재, 불교음악 인재양성 등에 대한 무관심이 이 같은 현실을 가속화시켰다"며 "클래식의 범주인 대부분의 합창곡이 기독교 문화권인 서양음악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선곡 자체를 문제 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불교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1600년 동안 우리 생활과 문화의 근간으로 이어져왔던 불교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년 전 한국 불교와 한국 불교음악의 숙제를 현장에서 분명하게 목도했던 박 원장을 2023년 새해에 새로운 이름으로 만난다. 그 이름은 자신이 앞서 언급했던 숙제를 풀어야 하는 자리의 이름으로,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는 필연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박범훈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다.

새 역사, 동국대 한국음악과 신설

조계종립 동국대가 한국음악과 문화재 관련 학과를 신설해 해당 분야의 교육연구 특화에 나섰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지난해 3월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설된 문화재학과와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는 한국음악과의 운영방향과 설립 의미에 대해 밝혔다.

2021년 국공립합창단 실태조사 진행
기독교곡 편향 선곡 '선교공연' 목도
"한국 불교음악 활성화 노력도 필요"
한국음악과 석좌교수로 임명 총괄역

문화재학과는 지난해 첫 입학생을 받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고, 한국음악과는 지난해 2월에 열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 제342차 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돼,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았다. 수시모집의 한국음악과 경쟁률은 15:1이었다.

박 원장이 새롭게 받은 중책은 신설된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다. 한국음악과를 총괄하게 된 박범훈 석좌교수는 당시 간담회에서 "한국음악이 곧 불교음악이지만 불자는 매우 적다. 한국음악과가 설립되면 이제 우리 식구가 될 불교음악 전문가들을 양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새해 개강 준비로 분주한 박범훈 석좌교수를 만났다. 그는 동국대의 한국음악과 신설이 주는 의미에 대해 단순히 학과 하나가 신설되는 의미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과 신설의 가장 큰 취지와 의미가 '인재양성'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국음악과 신설은 앞서 언급한 국·시립합창단의 선교공연으로 인해 지적된 문제들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박 석좌교수의 설명이다. 박 석좌교수에 의하면 이번 동국대 한국음악과 신설은 학교뿐만 아니라 종단 차원의 인식 공감에서 시작됐다. 상월결사를 이끌고 있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의 주요 스님들의 공감과 원력이 모아진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음악과'는 불사라고 할 수 있다.

B2면에 계속

박범훈 석좌교수는… 불교음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이끈 작곡가 겸 지휘자이다.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대학 졸업 후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과 대학원에서 작곡과 음악학을 공부했다. 귀국 후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또한 우리 음악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화에 뜻을 두고, 음악과 관련한 철학과 불교연구로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휘자와 작곡가로서 86아시안게임 개막식 작곡 및 지휘를 시작으로 88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음악 등에 참여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중앙국악관현악단, 아시아민족악단 등을 창단해 인재양성 및 우리 음악 대중화에 기여했다. '붓다' '부처님 오신 날' '날마다 좋은 날' 등 다수의 찬불가를 작곡했으며, 〈한국불교음악사 연구〉〈작편곡을 위한 국악기 연구〉 등의 저서가 있다. 중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한·아세안전통음악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 청와대불자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민훈장 석류장, 조계종 불자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인상 등 다수 수상했다. 현재 불교음악원장과 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 등을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INSIDE

B5 신년동화 우승미의 '노을씨의 데생'

B19 기획특집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B23 기획특집 불교인문학 살롱

“찬불가는 다함께 부르는 부처님 노래”



박범훈 석좌교수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수미산 가족음악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2022년 8월 4일 서울 한국의집 취선관에서 열린 ‘한국음악과 교원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한 박범훈 석좌교수(앞줄 우측 첫 번째).

‘박범훈 석좌교수’ B1면에서 계속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한국음악과가 신설된 것은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앞서 언급한 공립 합창단의 행보는 불교계가 불교음악인을 많이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교음악 전공자와 불자 음악인들이 합창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면 앞서 말한 ‘선교공연’이라는 어이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박 교수가 말하는 ‘인재양성’은 한국불교의 미래에 관한 것으로 불교음악을 통한 포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그야말로 십년, 백년, 천년을 바라본 큰 불사인 것이다.

“한국음악과라는 명칭의 학과는 이미 다른 대학에도 있지만 이번에 신설된 동국대의 한국음악과는 교육과정 자체가 전에 없던 것으로 동국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최초로 시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이전의 한국음악과라는 학과 이름도 박 석좌교수가 처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동국대가 신설한 한국음악과의 이름 속에는 ‘불교음악’이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아니 뼈대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우리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음악(K-Music)을 창출하고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한국의 전통음악은 역사 깊은 불교음악과 동일성을 갖추고 있어 불교음악의 전승과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전통음악을 모체로 신한류음악을 창출하고 선도해 나아갈 한국음악과는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학과로 주목받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동국대 한국음악과의 목표는 사회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기능력을 배양해 전통문화예술을 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박 석좌교수는 전에 없던 교육과정을 구상했다. ‘융합교육’, ‘1:1 맞춤형 개인지도’, ‘특화교육’, ‘집중교육’이 그것이다. 전 학년에 걸쳐 가(歌)·무(舞)·악(樂)·희(戱)의 융합적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학생은 인간문화재급의 저명인사로부터 1:1 개인지도를 받는다. 기악 전공자는 작곡과 지휘 실습교육을 받고, 성악 전공자는 노래연기(무용수업 병행) 수업을 중심으로 창극, 마당극, 음악극, 찬불가, 합창지도 등의 전문교육을 받는다. 작곡과 지휘 전공자는 전통음악의 DNA를 새로운 한국음악의 모티브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K-Music을 창출하는 교육을 받는다. 아울러 방학 중에는 전공교수와 불교음악원, 봉은국악합주단 등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통해 집중 교육을 받는다.

“지금 전국의 사찰에 있는 합창단 지휘자들의 8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같은 곡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1학년 때부터 모두 지휘와 작곡을 가르치면서 종합적인 교육을 할 겁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누구나 사찰 합창단 지휘를 할 수 있고 찬불가를 작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 둘 인재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앞서 말한 그런 걱정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국음악과 신설은 매우 희망적인 것으로, 불교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박 석좌교수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시작하는 이번 불사가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나갔을 때 마음껏 불교음악, 불교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단과 재가가 인식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원력을 회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한국음악과 신설은 새 역사,
인재양성이 한국불교음악 넓히는 길”
인간문화재 개인지도 등 혁신 교육
“찬불가는 사부대중 함께 부르는 것”

한국음악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음악교사, 교수, 초·중·고 국악강사 및 자치단체 국악교실 강사, 국공립예술단의 지휘자 및 연주자, 국악방송사 또는 음악관련 언론, 출판, 방송 등의 기자 및 PD, 사찰 및 불교 관련 합창단, 연주단의 지휘자와 연주자, 해외 불교 국가와 연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수진도 그야말로 문화재급으로 구성했다. 박 석좌교수와 동국대는 졸업 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기능력 배양을 위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인사를 대거 교수로 추천 위촉했다.

다함께 부르는 찬불가

박 석좌교수는 불교음악 활성화와 음악을 통한 포교를 넓히기 위해선 법회의 형식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자들 대부분 제대로 알고, 부를 수 있는 찬불가 하나가 없어요. 그것은 법회 때 합창단만 찬불가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에게 찬불가는 그저 듣는 것이지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는 찬불가 하나, 즐겨 부르는 찬불가 하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 음성포교라는 것은 그렇게 노래를 부름으로써 신심을 다지게 되는 것인데 실상 불자들은 아는 노래 하나가 없는 것이죠. 꼭 불자 하나 더 늘리는 것만이 포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자들이 더 깊은 불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박 석좌교수는 법회 때 찬불가를 합창단뿐만 아니라 법회에 참석한 불자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찬불가가 교회의 찬송가처럼 생활 속에서 불려야 찬불가가 대중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석좌교수는 찬불가의 생활 속 대중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한 실천에도 옮기고 있다. 그는 상월결사의 불연맺기 네트워크 ‘수미산 원정대’ 1기다. 2021년 5월 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어 불교중흥의 씨앗을 마련하기 위해 창립된 수미산원정대 참여자들은 총 12강의 불교교리, 사상, 문화 등을 배운다. 교육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성지순례로 신심도 다진다. 박 석좌교수는 불자 외에도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활용해 수미산원정대 참여자들에게 찬불가를 가르치고 있다.

박 석좌교수는 2021년 7월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에 재임명됐다. ‘생활찬불가 운동’을 통한 찬불가 활성화를 이끌어 온 박 원장은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불교음악 확산을 통한 대중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불교음악학회와 봉은국악합주단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불교음악원은 종교 활동에 있어서 장엄한 의식 음악으로써 뿐만 아니라 관대한 포용력을 발휘하는 포교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를 규명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교육함으로써, 대승불교실현을 목표로 2015년 4월 대한불교 조계종 종령으로 설립되었다. 불교합창 아카데미, 불교 음악지도자과정, 찬불가 최고위 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우리민족의 대중생활 속에서 향유되고 전승되어진 다양한 불교음악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창작되어진 창작 찬불가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여 교육함으로써, 불교음악의 본질적 정서를 회복하여 문화변화를 극복하고, 나아가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함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흥’과 함께하는 박범훈 찬불가

박 석좌교수는 1991년 새로운 찬불가, ‘붓다’를 발표하며 한국 찬불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광덕 스님의 요청으로 만든 국악교성곡 ‘부모은중경’을 비롯해 ‘보현행원송’, ‘꽃을 바치나이다’, ‘무상계’ 등 찬불가와 대형합창곡들을 이어서 발표했다. 박 석좌교수는 한국불교음악이 전개된 역사적 배경과 그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그는 그 과정과 성과, 정체성 등에 대해 공부해왔다. 그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찬불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고, 실생활에서 대중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만드는 데 헌신해 왔다. 이제 그는 불교음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라는 원력으로 후학양성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려 한다. 신설된 동국대 한국음악과의 미래에 한국 불교음악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며, 그 미래가 한국불교를 넓히는 불사 중의 불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M. 시어터에서는 상월결사의 수미산 원정대가 상월결사 법인화를 기념하는 수미산 가족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에는 가수 양수경, 김국환 등 수미산 원정대 참여자 등이 출연했다. 박 석좌교수는 작곡과 지휘자로 참여했다. 공연은 자승 스님이 지은 게송에 박범훈이 곡을 붙인 ‘수미산이 사바세계로 구나’를 국악인 김성녀와 봉은불음청년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함께한 무대로 막을 내렸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일어선 상월결사, ‘중흥’이라는 숙제를 다 할 때까지 박범훈의 찬불가가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다함께 부르는 찬불가’가 함께할 것이다.

2023 謹賀新年 계묘년

‘영존· 정심(定心)의 송’

일여의 선념은
사람들의 마음을 눈뜨게 하고
지혜의 눈을 빛나게 한다

- 교도인(敎導院) -

‘영존· 성행(成行)의 송’

가르침은 올곧다
올곧기 때문에 진실이라 한다
진실이기에 귀하다

- 신도인(眞導院)-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은 나를 이끌어
번민의 구름을 없애주시네
믿는 마음에 보여주시는
깊은 자비에 감사하자
기도하라, 기도하라
깊은 자비에 南無眞如

- 원주(苑主) 희망의 노래 -

眞如苑 신뇨엔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4개국 48개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한국정사 : 서울·부산·제주·창원 ▶ e-mail : shinnyoen@hanmail.net
▶ 서울정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6 TEL (02)719-6998
▶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TEL (051)892-6998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41년 전통

부산불교교육대학

2023년 신입생 모집

- 기초교리학과 (수)
- 불교학과 (화)
- 엘리트학과 (목)
- 불교문화학과 (월, 금)
- 부동산융합풍수학과 (화)
- 합창 · 수어 · 다도 · 사물놀이

▶과별 주1회 강의

승려 교육원 개설

- 승려위의, 습의, 의례
- 초발심자경문, 치문
- 사미, 사미니 율의
- 불교문화
- 사찰경영

▶매주 수요일 15:00~17:00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홍법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심산 深山 주지
양 재 생 신도회장
이 영 숙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www.busanbuddhism.net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천년고찰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주 지 무 관
신도회장 여 원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전화 051)727-2393

밀양 사천왕사

주지 대풍범각

신도회장 최금식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4길 29-67
전화 055) 352-3104 핸드폰 010-5009-6449

부산포교원 해운대 대각정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선프라자 419호 / 전화 (051) 731-2300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자 비 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주 지 청 암 자 관
총 무 정 웅

신도일동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전화 051)552-3320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시작되는 곳
복합문화공간, 피아크

PARK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195번길 180 051-404-9200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진철** (숭림사)
회 장 **현엽** (청량사)
기획실장 **자인** (길상사)
수석부회장 **청원** (강서예술촌)
상임부회장 **연담** (용화사)
부 회 장 **정광** (문수암)
진종 (대성암)
사업본부장 **산해** (성불암)
감 사 **심행** (수능엄사)
사무총장 **평산** (산양사)
총무국장 **대일** (여여사)

강서구 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29 전화 051)271-2774

부산광역시 동래구 불교연합회

중명대범주 명해(소림사)
고 문 대원(금불사) 도문(전등사)
월봉(효자암) 월강(금어사)
혜성(금강사) 자관(자비암)
직전회장 효문(효심사)
회 장 용하(용문사)
자 문 혜민(천불암)
부 회 장 해운(용수달마사) 취산(무량선원)
범관(몽불사)
감 사 무상(미타사) 정호(해동암)
사무총장 범천(무량사)
재무국장 성화(용와사)
홍보국장 지훈(영주암)
포교국장 법광(무량정사)
문화국장 혜륜(혜륜정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21 용문사

부산진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월천 혜총
회 장 영제
수석부회장 화산 정현
상임부회장 연산 원타
부 회 장 대유 시광
원상 정사
지명 지원
감 사 태산 보원
재 무 선혜
총 무 해운 도원
의 전 월화 법봉

회 원 백설 인수, 월륜 춘제, 석만 도관, 무심 법지, 승호 원종, 법담, 안국, 우당 무무, 상보, 지공, 원여 도경, 은좌 보현, 지연 보안, 진여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비구니 금 련 회

회장 **혜 덕**

회원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 엄 회

회장 상 화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

기장 청량사

이사장 **보 혜**
후원회장 **황보경**
회 장 **황보승**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회장 **원영애**
기장차문화대학 원장 **김진옥**
청량선차문화원 **장외숙**
기장꽃차문화원 **이숙자**
외 임원진 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 전화 : 051)723-1851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하 현**

사부대중합장

말은 마음 밝은 세상

CM 명상상담센터
CLEARMIND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5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전화 051)253-8687~8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지 목종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광 덕 선 원

주 지 **법 진**
회 장 **이도헌**
총 무 **박윤자**
사무장 **이경연**
화 주 **박해경**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24 광덕선원
전화 010-4435-5660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

우승미 작가의
노을 씨의 데생



그림 · 최주현

노을 씨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을 씨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등받이가 둥근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언젠가 노을 씨가 본 적 있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천장의 에어컨에서 나오는 서늘한 바람과 옅은 소독약 냄새, 가슴 위까지 덮여 있는 이불의 사각거리는 촉감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 앞에 펼쳐진 장면이 흑백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모든 것이 현실과 같았습니다. 노을 씨는 텔레비전 속 배우의 회색빛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노을 씨는 여전히 꿈속의 방에 있었습니다. 회색 의자, 회색 커튼, 회색 벽, 회색 에어컨. 천장의 둥근 조명마저 희미한 회색이었습니다.

"당신 깨어났군요."

노을 씨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노을 씨의 아내는 회색 손을 뻗어 노을 씨의 이마를 어루만졌습니다. 순간 노을 씨의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맙소사!"

노을 씨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의사 선생님은 노을 씨의 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로 뇌의 뒷부분을 가리키며 이곳이 손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을 씨의 눈에는 벌레가 파먹은 작은 콩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단지 색깔만이 노을 씨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림은 노을 씨의 전부였습니다.

노을 씨는 해 질 무렵의 풍경을 사랑했습니다. 해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남은 빛이 하늘을, 땅 위의 모든 생명을 물들일 때, 저마다 자신의 빛깔이 짙어지고 깊어지는 그때의 고요한 울림이 좋았습니다. 노을 씨는 그 풍경을 가슴에 담아두곤 했습니다. 노을 씨에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마음에 스며든 빛깔을 판화처럼 화폭에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릴 수 있다고, 노을 씨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눈이 잊고, 머리가 잊은 빛깔들을 손끝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을 씨는 노을빛을 표현하기 위해 '빨강'과 '검정'과 '노랑'을 어떻게 섞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스며든 물빛을 그리기 위해 '코발트블루'의 농담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노을 씨는 자신감에 가득 차서 화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실에 있는 그림을 본 순간 노을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렇게나 뭉개놓은 검은 얼룩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몹시 추하고 혐오스러웠습니다. 노을 씨는 자신이 그렸던 그림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노을 씨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림이 찢겨나가는 동안 노을 씨의 마음도 갈가리 찢겼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자 노을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웃지도 말하지도 않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 씨는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노을 씨의 아내는 노을 씨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노을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술치료를 하는 교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주제와 상관없이 항상 꽃을 그립니다. 할머니는 꽃을 좋아합니다. 머리에도 가슴에도 꽃을 달고 있습니다. 허공 어딘가에 시선을 두고 다리를 달달 떠는 청년도 있고, 입만 열면 욕을 하는, 눈매가 화살촉처럼 날카로운 여학생도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 입니다. 노을 씨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스케치북만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는 거침없이 그림을 그립니다. 머리를 양 갈래로 땋고 오버롤을 입은 여자아이를 스케치북 중앙에 그려 넣습니다.

"내 이름은 김 선. 열 살이야. 사람들은 나를 써니라고 불러. 써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야. 아저씨는?"

"노을 씨라고 부르렴."

"그런데 노을 씨는 어째서 그림을 그리지 않아? 노을 씨 스케치북은 언제나 텅 비어 있잖아.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지?"

"모든 색깔, 뇌가 인식한 것에 불과
그리 생각하면 색은 본래 없는 것
색깔을 볼 수 없는 노을 씨야 말로
세상의 빛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까"

노을 씨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습니다. 열 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작아서 도저히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림으로 여섯 살이나 일곱 살쯤 되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에게 대뜸 반말을 하며 야무지게 말하는 폼을 보니 열 살도 더 넘어 보였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하며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서 노을 씨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자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써니의 그림 속 여자아이는 한 쪽 다리를 높이 쳐들고 있습니다. 허리쯤 오는 높이에 집과 나무가 있고, 무릎 아래의 높이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아이에게 밟힐까 봐 아이를 올려다보며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써니는 눈을 그려 넣는 중입니다. 두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난 이 교실이 싫어. 그림으로 마음을 읽는다니 정말 웃겨.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선이는 작은 키 콤플렉스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어. 후후, 웃기지?"

"심술궂네."

"나도 알아. 난 심술궂어. 까칠하지. 난 '모난 아이'야. 엄마가 그랬어. 나는 화를 내는 병에 걸렸대.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건데 그게 왜 병일까?"

"써니는 지금도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꽉 움켜쥔 주먹이랑 거칠게 표현한 선을 보면 알 수 있지."

"사실 나를 써니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 엄마, 아빠, 담임선생님, 유치원 때부터 내 친구였던 율이. 다른 애들은 나를 꼬마라고 불러. 꼬마라는 말을 들으면 몸속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아. 어른들은 말하지. 꼬마라는 말 안에는 귀엽다는 뜻이 숨어 있다고. 하지만 내 별명은 접힌 말이야. 꼬마라고 적힌 종이를 펼치면 '꼬마 악마'라는 말이 나온다고."

써니는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합니다. 꼬마라고 놀리는 친구들과 모난 아이라고 자기를 탓하는 엄마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줄 알았던 선생님의 거짓 마음에 대해서.

"선생님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해. 노력하는 마음속에는 그래도 진심이 한 조각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아니! 선생님은 책에서 읽은 말을 그대로 흉내 냈을 뿐이야. 이런 말을 해주면 어떻게 반응할까. 저렇게 대해주면 어떻게 변할까. 실험실의 쥐처럼 나에게 실험을 한 거야. 난 정말 화가 났어.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마음이 거짓이어서. 그 거짓말에 속은 내가 바보 같아서."

써니는 나무 아래에 서 있는 여자에게 덧칠을 합니다. 써니의 손이 거칠게 움직일 때마다 여자의 모습이 검게 지워져 갑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소리를 질렀어. 욕을 하고 침을 뱉었어. 마구 날뛰는 내 손목을 선생님이 잡았어. 꼭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선생님 팔을 깨물었지. 팔에서 피가… 바닥에 후드득 떨어졌어.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진짜 악마 같다고, 그렇게 말한 건 내 유일한 단짝 친구 율이였어. 선생님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진심이 있었을까? 내 마음속에 정말 악마가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진심 같은 건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마음속에 악마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악마가 살고, 천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천사가 살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건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야."

노을 씨는 연필로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작은 물방울 하나를 그렸습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작은 물방울이 되었단다. 작고 무겁고 축축해졌어. 내 마음속의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지. 그래서 내 스케치북은 이렇게 텅 비어 있단다."

써니는 연필을 쥐고 물방울 위에 나뭇잎 하나를 그립니다. 나뭇잎은 작은 우산처럼 물방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노을 씨는 연필을 쥐고 그림을 이어 그립니다. 나뭇잎을 쥐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화난 척하고 있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를.

"마음속의 내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을 거야. 화를 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겠지. 어떤 말로 꼭 집어 표현해야 한다면 그건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닐까."

써니는 말끄러미 노을 씨의 눈을 봅니다. 커다랗고 검은 눈동자를 보다가 노을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고 반들거리는 것들은 모두 싫었는데, 써니의 눈동자는 참 맑게 느껴집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물처럼 맑고 고요합니다. 고요하고 쓸쓸합니다. 어쩌면 써니는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픈 게 아닐까, 노을 씨의 마음에 작은 물결이 일렁입니다. 노을 씨는 슬픈 게 아니라 화가 난 게 아닐까.

노을 씨와 써니는 바통처럼 연필을 주고받으며 스케치북을 채워갑니다. 써니가 구름을 그리면 노을 씨가 태양을 그립니다. 노을 씨는 색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노을 씨가 나무를 그리자 써니가 그 위에 앉아 있는 새를 그립니다.

"그런데 노을 씨 그거 알아? 언젠가 책에서 봤는데, 이 세상에는 원래 색이 없대. 사물에 반사되는 빛이 우리 눈 속에 들어오면 뇌가 그 빛을 노랑이라고 파랑이라고 생각하는 거래. 색은 사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지. 노을 씨는 어쩌면 이 세상의 빛 그대로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노을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울립니다. 노을 씨는 대답 대신 가만히 미소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텅 빈 교실에는 사각사각 연필 소리만이 정적 속을 흐릅니다. 〈끝〉



우승미 작가는 1974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200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빛이 스며든 자리'가 당선됐고, 장편소설 〈날아라, 잡상인〉으로 제33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다.

㈜천호월서희망재단
코로나19 함께 잘 이겨냅시다
이사장 월서 큰스님 합장
https://cwhope.tistory.com/1 [천호월서희망재단]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27, ㉾04185 전화 02)713-4100 팩스 02)701-1705

한국명상진흥원
※ On-line 수업 병행
찾아가는 불교명상학교
어서와! 명상은 처음이지!
心봤다!
교수진
마가스님 월호스님 심산스님 만초스님 금강스님 혜안스님
효록스님 최순애 원정혜 김창기 조희창
명상은 마음을 안으로 몰입시켜
내면의 자아를 확립하는 종교수행이자
정신수행을 일컫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순수한 마음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 명상을 통한 순수한 내면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명상진흥원에 오시면
순수한 자신만의 내면세계와 조우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일정과 장소는 추후공지합니다.
기간
(2023년) 3개월 과정
(3월 첫주~6월 마지막주) 매주 화, 수
장소
부산, 창원, 진주
참가비
3개월(30만원) · 2박3일(15만원)
주관
한국명상진흥원 · 자비명상
후원
옥천사, 홍법사, 석태암, 성주사,
마하야나명상원, 행불선원, 참사람의향기,
진성명상원, 맑은소리맑은나라, 원각사
문의 010.3564.3725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 연**

사부대중일동

자기의 주인공이 바로 부처다.
- 대행선사법어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전화 055)342-6639, 345-9900 팩스 055)346-2179

사상구 불교연합회

회 장 **성 림**(관음사)
직전회장 **성 문**(선광사)
부 회 장 **호 명**(옥천사)
일 도(성불사)
대 둔(용운사)
지 관(약수암)
법 경(광명사)

고 문 **청 강**(옥천사)
혜 지(낙은사)
자문위원장 **혜 산**(봉덕사)
자 문 위 원 **은 적**(괘법동관음사)
항 공(견강암)
감 사 **자 륜**(낙은사)
총 무 국 장 **도 법**(덕포동관음사)

회원사찰주지 대표 운영스님 일동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심 인 택**
부 회 장 **전 수 덕 정 우 상**
자문위원장 **장 성 규**
봉사위원장 **박 유 진**
사 무 국 장 **김 종 현**

각 사찰 운영위원 자문위원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50번 나길 80-42(모라동)
전화 : 327-5095 총무국장 : 010-4181-6049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림선원 동림불교대학 동림선림원

주 지 **은암신공**

신도회장 **김정행심**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68-14
전화 055)325-4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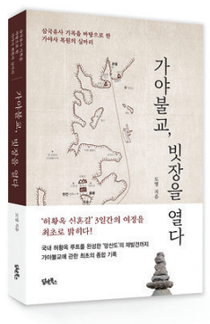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여여정사

불교대학 · 경전반



주 지 **도 명**

신도회장 조성진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전화 055)311-2911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원 장 **인월 원순**
이 사 장 **김경조**
상임이사 **박희채**

이 사 김성규 이인수 안수근 강석진 이재동 조성두
정종원 이희태 홍철우 이욱태 김기환
감 사 황주환 권성열
신도회장 성재곤
부 회 장 이원옥 이상수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전화 051)626-4337, 624-7667 팩스 051)626-4330

대한불교조계종

승학산 약 수 암

주 지 **혜정**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약수불교대학, 생활불교

- 사회복지법인 정향복지재단
- 노인요양원 정향효마을
- 노인요양원 정향행복한마을
- 라온누리(발달장애인 지역밀착형시설)
- 정향재가복지센터
- 황금빛 노인대학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4-45
전화 051)322-3200 팩스 051)322-3205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 강 암

주 지 **향 공**

(사)부산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KUmuda
문화를 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 하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쿠무다가 함께합니다

KUmuda Healing Village
지하 2층, 지상 8층 850평 규모

옥상 SKY BUDDHIST SANCTUARY 하늘법당
8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7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6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5F EDUCATION CENTER/FRONT DESK/MEDITATION & TEA
4F LABXXIV [랩24] by KUmuda
3F Eat:多 [잇:다]
2F cafe KUmuda 갤러리
1F 로 비
B1 문화예술 쿠무다 콘서트홀
B2 사무국/베이커리 교육공간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1
Tel. 051-702-1300

“나를 망각하는 ‘일심삼매’ 느끼는 기적 수행”



스스로 우리절 우여곡절 어리둥절
향산 스님 지음
클리어마인드 펴냄
1만9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우리절 108배’ 창시자인 향산 스님(사진 왼쪽)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우리절 108배’는 합장부터 무릎닿기, 손짚기, 오체투지와 접종례까지 동작을 알아차리게 구성해 놓았다.

다수의 기업을 운영하며 사회적 성공을 이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 여시아문 서울선원장 향산 스님(71). 2년전 늦깎이 출가로 주변을 놀라게 하더니, 이번에는 당신이 30여년 이상 오랜 시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 만든 깨달음의 정수인 ‘우리절 108배’를 통해 ‘절 수행 마스터’로 거듭나 또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 책은 저자가 30여년 전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허무하고 무상함에 빠졌을 때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 108배 수행을 하며 이룬 노하우와 결실을 한데 묶은 것이다.

솔직히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평생 동안 누구나 절 한번 안 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근기 불자가 방석 하나만 있어도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이 ‘절 수행’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향산 스님이 ‘우리절 108배’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이 책 속에 소개된 ‘우리절 108배’를 습득해 보면 기존 절 수행과는 분명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처음 해보는 초심자는 절하기 전 두 손 모으는 합장부터 난관에 봉착해 삼배이상 지속하기 힘들다. 두 손 모두 힘주고 꽉 붙여야 하는지, 적당이 힘빼고 떼어도 되는지 처음에는 몰라서 어색하고 불편하다.

특히 상체의 이완과 하체의 힘을 잃지 않는 것이 기본인 ‘우리절 108배’는 앞꿈치와 발가락 힘으로 모든 동작을 이어가는 것이 특징이라 신체의 밸런스 맞추기가 녹록치 않다. 하나의 연결 동작을 통해 몸으로만 하는 단순한 절과는 달리, ‘우리절 108배’는 각각의 분절된 동작들이 의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다. 저자는 책 속에서 그 흐름에 집중하다보니 절하는 나를 망각했다고 고백한다. 절이 나이고 내가 절이 된 ‘일심삼매’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절 108배’는 하면 할수록 합장부터 무릎닿기, 손짚기, 오체투지와 접종례까지 동작 하나마다를 알아차리고 집중하게 구성해 놓아 절 동작들이 몸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음을 깨닫게 해준다”며 “절을 할 때마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의 몰입이 교차로 일어나고 사라지기가 반복되지만, 그 과정서 잠시나마 몸과 마음이 하나로 집중돼 절 동작조차 잊은 끊어짐 속에서 고요한 선정을 맛보게 해 준다”고 강조한다.

본래 부처인 우리가, 허상인 가짜 나에 속아 참나(진아)를 잃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저자는 “몸과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유기적 과정인 ‘우리절 108배 수행’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본래 부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며 “이를 위해 절 수행시 이 책에 나와 있는 완벽한 자세와 동작, 알아차림 등으로 의식을 열고 우리 몸을 밝은 에너지로 꽉 채운다면 우리 몸은 최적 상태가 되고 저절로 수승화강(水昇火降), 두한족열(頭寒足熱)이 이루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몸 상태가 돼 저절로 마음도 평안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우리절 108배의 장점과 효과를 소개한다.

각각의 분절된 동작 의식 흐름 만들어
‘우리절 108배’ 집중하면 ‘나’를 망각해
절 동작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인간의 기억과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게 다 생각, 감정, 오감과 의식이 하나되어 만들어진 ‘가짜 나’ 때문이다. 가짜 나, 에고 중생은 결국 자기밖에 모른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자신은 더 힘들고 더 불안하고 더 괴롭다.

저자는 이런 이들에게 답답하게 자신을 가둬놓고 괴로워만 말고 ‘우리절 108배 수행’으로 온전한 행복과 자유를 누려 보길 강권한다. 몸으로만 받아들인 감각의 기억은 시비를 분별하고 욕망을 일으킬 수 있지만, ‘우리절 108배’는 안에 숨어있는 진아의 향기를 발견하는 수행이니만큼 한번도 만난적 없는 스스로를 어쩌면 더욱 빠르게 만나게 해 줄지 모른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머리 복잡하고 괴로운 현대인들에게 이 책이 시원한 감로수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아울러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수많은 이들이 ‘우리절 108배’ 수행의 방법과 효능을 체득해 희망과 행복의 길로 삶이 변화되기를 발원한다.

‘우리절 108배’는 특히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더욱더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기에 안성마춤이라고 저자는 확신한다. 이 절은 하는 행위 자체보다 몸과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는 과정을 더욱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즉 지관수행법의 또 다른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마음이 찰나에 밝아짐을 즉석 체험하는 기본수행인 만큼 이를 매일 매일 습관화하면 분명 참선 명상 염불 수행의 효과보다 배가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절 108배’ 수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중심에서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온몸을 순환 시키며 온전히 깨어있는 자신을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에서 또 한가지 더욱더 눈여겨 볼 것은 ‘심우도 108 경구’이다. 심우도는 방황하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야생 소를 길들이는 데 비유해 10단계로 그린 그림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성(佛性)이 있는데 이 불성을 소에 비유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수행자가 인간의 본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목동이 소를 찾는 데 비유했다. 소와 동자가 등장하는데 소는 인간의 본성, 동자는 수행자다. 마음 닦는 일을 소치는 데 빗댄 것이다. 이것처럼 이 책에 소개된 ‘심우도 108 경구’는 불교의 모든 경전과 깨달음을 108개의 간결한 문장으로 녹여냈다. 한 경구마다 각각 모두 스스로를 찾는 과정을 충실히 담은 것이 특징이다. 108개중 단 하나의 울림만 있어도 족할 것 같은 비장한 심정으로 꾹꾹 눌러 써놓아 말과 글의 한계와 경지를 뛰어넘는 선기가 느껴진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문없는 문과 길없는 길, 심우도 108경구와 함께하는 ‘우리절 108배’ 수행은 108지혜를 낳고 깨달음의 세계로 안내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은 크게 총 2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 1장에서는 ‘우리절 108배’의 기본원칙과 종류, 준비운동, 절하는 법 등을 일러스트와 함께 실어 책 제목 그대로 스스로 ‘우리절 108배’를 이 책 한권만 있으면 어디서든 손쉽게 따라할 수 있게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제 2장에서는 책 머리에 제목만 소개된 심우도 108경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다.

저자와 함께 ‘우리절 108배’ 수행을 매일 하고 있는 여시아문선원 묘솔 스님은 “선원장 스님이 긴 시간 몸으로 직접 체험하시고 생생하게 나누어 주신 ‘우리절 108배’는 내가 알고, 내가 과거에 해봤던 절과는 분명 달랐다”며 “합장에서 시작되는 각각의 분절된 동작이 이음새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고, 그 자연스런 순환속에서 절하는 내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누구도 내가 하는 절 밖에 나가지 않고, 절 안에도 들어오지 않으니 절을 하고, 절을 익혀, 절도 나도 잊어 절은 절대로 아름답고, 심우도 108경구는 한 문장 며금는 것만으로도 모든 말과 행위를 그칠 수 있게 하는 마력을 느끼게 했다”고 고백한다.

절하는 행위보다 마음새김 과정 중시해
저자, ‘진아’ 빠르게 만날수 있는 수행법
‘심우도 108경구’ 간결한 문장으로 소개

여시아문 선원장 지휴 선사도 추천사를 통해 “이 책은 ‘우리절 수행’에서 시작해 ‘심우도의 108경구’로 마무리 된다. 책의 두 부분을 이루는 절과 경구가 자칫 결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둘 모두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스스로의 표현이니 두 덩어리지만 나뉘어 본적 없는 하나의 원과 다르지 않다. 꾸준히 이 수행을 하게 된다면 진아를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수행 같이 느껴질 것”이라고 극찬했다.

스스로 ‘우리절 108배’ 수행을 해보면 절하는 과정서 힘들고 어렵고 우여곡절도 많겠지만, 어느새 어리둥절 참나를 만나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한편 (사)클리어마인드절명상센터(이사장 하림스님)는 구랍 19일 부산 미타선원 설법전에서 ‘클리어마인드절명상센터 개원식’을 열었다. (사)클리어마인드절명상센터는 서울여시아문선원장 향산 스님이 30여년 이상 직접 체험 수행해 만든 깨달음의 정수인 ‘우리절 108배’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설립한 법인 단체이다.

이번에 설립된 단체는 2021년 11월 8일 설립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7일 부산시청 문화예술과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서울 종로 여시아문선원내에 지사 설립도 허가받아 앞으로 부산 본원(미타선원내)과 서울 지원(여시아문선원내)서 동시에 ‘우리절 108배 절수행’ 보급화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 본원은 (재)영도문화복지재단 이사장 하림스님이, 서울 지원은 ‘우리절 108배’를 만든 여시아문 서울선원장 향산 스님이 각각 책임을 맡는다.

이사장 하림 스님은 “명상이란 나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알게 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어디에 빠져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며 “참나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호흡을 통해서 나를 보기도 하고, 몸을 움직여 절을 통해서 만나기도 한다. 이를 절명상이라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림 스님은 “우리의 일상서 힘든 마음은 절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땀흘리며 절하다보면 결국에는 내가 힘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도 못할 만큼 번뇌 망상도 사라지고 스스로의 업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해결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것이 절수행이라 생각한다. 이런 좋은 수행법을 대중들에게 널리 전해주고 싶어서 향산 스님께서 책도 내시고 법인도 발원하셔서 오늘 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향산 스님도 “제가 30여년 가까이 직접 해보니까 너무 좋은 수행법이라서 여러 사람들과 책과 영상을 통해 ‘우리절 108배’ 수행법을 나누고 싶었다”며 “절을 하게 되면 우선 하심하게 되고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게 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일상의 온갖 스트레스나 번뇌 망상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마음을 간절히 모아서 합장만 잘 하게 되도 ‘우리절 108배’를 올바르게 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산 스님은 “스스로 우리절 108배 수행은 절하는 행위가 몸 밖으로 안나가는 것이 큰 특징”이라며 “그래서 절 한배를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을 할 때마다 마음 새김이 더욱 중요한게 바로 ‘우리절 108배 수행’”이라고소개했다. 오늘 출범한 (사)클리어마인드절명상센터는 ‘우리절 108배 수행’을 효과적으로 포교할 수 있는 절수행 마스터를 양성하고, 이들을 활용해 공공기관과 기업 특강 및 우리절 108배 잘하기 경연대회, 우리절 108배 수행 세미나, 절수행 커리큘럼 개발 등을 기획해 전국민 108배 운동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저자 **향산 스님**(여시아문 서울선원장)은?

40여년 동안 한국을 비롯한 미국 등 10여 개 국가에서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했다.

30여년 전 예기치 못한 인연으로 고통과 무상함을 통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절을 접하게 되면서 언제 어디를 가든 하루도 빠짐없이 ‘스스로 우리절 108배’ 수행을 하고 있다. 2년전 은퇴 출가해 여시아문 서울선원장직을 맡으며 불제자로서 본분에 충실하며 절과 명상 수행을 통해 전법에 힘쓰고 있다.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암, 지 홍
주 지 상 진
총무(원주) 벽 산
교 무 거 진
내 무 심 곡
서 무 효 능
교무보 효 진
대 중 일 허, 일 겸
일 벽, 다 오, 일 월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상 진
이 사 해 경, 심 곡
벽 산,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감 사 최인귀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업무과장 이진미(소봉)
업무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 지 **상범스님**

신도회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중 현**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 지 **해 청**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약사천일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약 사 사**

회 주 **범 종**

주 지 **무 진**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 지 **법 공**

신도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 주**

주 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주 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월 인**

종무원 사부대중 일동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지 만 당

사부대중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복 암 사

주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생명나눔 문화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보 은 사

주지 도 제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108
전화 062)954-4407

지장도량

미 륵 사

주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전화 062)222-1145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지 시공스님

신도회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57번길 27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전화 062)224-7666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489-22번지
전화 062)951-3562

예공

Total Design 전문회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카다로그/브로슈어/리플렛/BI,CI제작
시각Design/인테리어/환경Design
실사, 현수막출력/옥외광고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54-1
대표전화 _ 062·352·7474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 근일
회주 남전 호성
주지 등운

고금당선원 선덕 항결선사외 사부대중 일동

부주지 정우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도선 교무국장 혜림 재무국장 덕암
사회국장 함흥 호법국장 등화 포교국장 성민

산하기관 안내

선재어린이집 054) 855-6033
풍기어린이집 054)636-8016
안동청소년문화센터 054)841-2324
의성군노인복지관 054)861-1377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855-7801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 054)841-2324
안계노인복지관 054)862-7900
봉현어린이집 054)637-5179
연꽃어린이집 054)673-09108
영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054)633-6414
고운실버노인요양원 054)833-5900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054)634-3251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633-6415
최치원문화관 054)834-8200
의성지역재활센터 054)833-1225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 www.gounsa.net
전화 054)833-2324 템플스테이 054)822-6933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주지 두현
회주 호성

신도회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세계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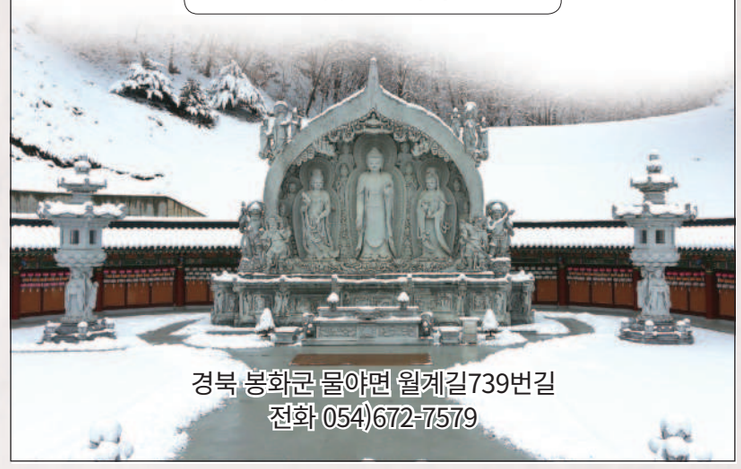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사부대중일동

보궁기도 ·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전화 054)672-7579

대한불교조계종

안동 **금학사**

참선에 대한 법문매월초하루 보름기도

주지 명관

사부대중일동



안동시 북후면 북평로 1003-74
전화 ???

'서해제일 관음기도도량'
'33 관음성지'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능가산 내소사

주지 진성

사부대중일동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전화 063)583-7281
내소사 템플스테이 063)583-3035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주지 청파 진성스님

총무원	정원스님	전북 나누우리 봉사단장	이재현 수암
주무교	김연심화	교도소 교정 봉사단장	박성균 진실행
사회	보문스님	소년원 어머니 회장	정해자 혜안행
포교	대련스님	소년원 어머니 위원장	김도은 청운
홍보	추파스님	탑밴드 봉사단장	천순희 천수행
	정이 손채림 전법사	사랑나눔행복을 붓다 복지관장	김경은 금강행
전국총신도회장	윤복길 감로수	해외구호 복지단장	심용운 다인
		재)갑룡장학회 상임이사	남상준 강암
		사)장엄 상임이사	김성규 혜전
		사)착한벗들	주춘매 센터장
		사)전북베트남우호교류증진협의회 상임이사	박성웅 일여
		사)진안자원봉사센터장	최주연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대표전화 063)433-0012 www.maisantapsa.kr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대종사 정강성웅
주 지 종호

사부대중일동

- 영산회 괘불도 보물 제2007호
  지정 : 야외 불교행사인 영산재에 사용된 불화
- 범패 최초 전래지
- 상주시 종합 사회복지관 부설 보광 어린이집 운영



경북 상주시 남장1길 259-22
전화 054)534-6331

(주)열린기획

대표
정성훈

Stage System Design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06
전화 062)381-7730

연우개발(주)

대표이사
윤상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50-1, 302호
(두암동, 두암2차무등파크맨션 상가동)
전화 062)262-0480 팩스 062)262-0481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2023 謹賀新年 계묘년

한국불교통합조계종

종정 **혜각 대종사**

총무원장	법 경	감 사	혜 광
교육원장	정 관	감 사	지 월
재 무	일 초	거사림회장	종 우
사회부장	덕 운	신도회장	지 덕
		사무총장	송 방

함께 정진할 종도 모집합니다.

총본산 청룡사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이사리2길 15-19
전화 054)873-2748 / 010-3847-4700
종정주석사찰 공덕사 |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승사길 90-7
전화 010-3513-4940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부설 청명노인복지센터

주 지
센터장 **청 명**

육재일 법회안내
(음) 1월 하루 (음) 15일 보름
(음) 7일 아라한재일 (음) 18일 지장재일
(음) 8일 약사재일 (음) 24일 관음재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2길 35
전화 053)621-6237 팩스 053)621-5933
cjdaud6237@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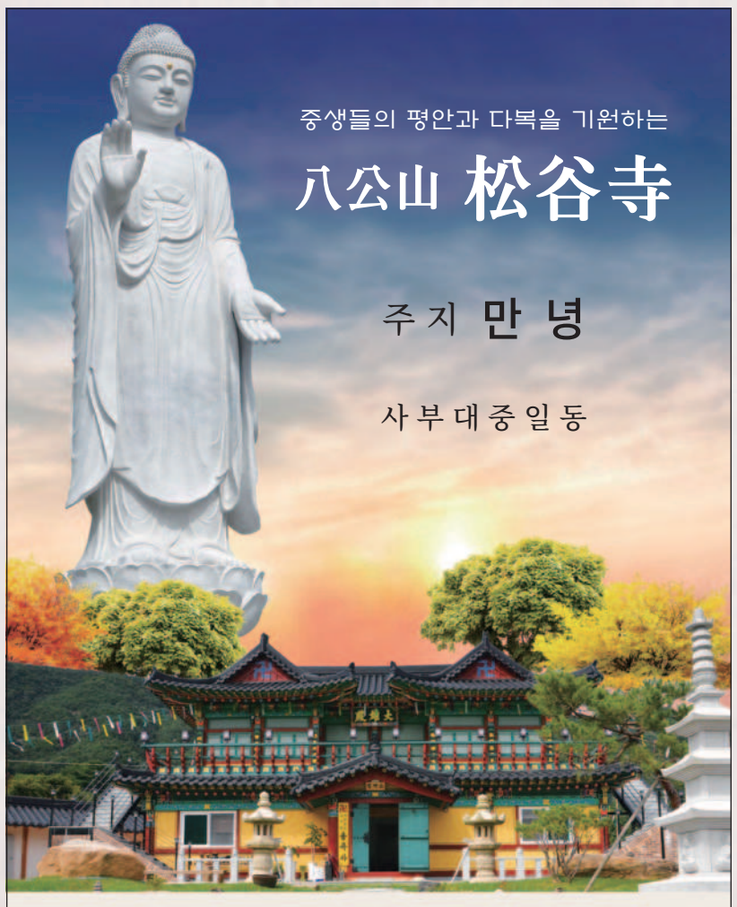
극락도량 **약천사**

무료시설 **포산승가원**

사부대중 일동



전화 064-738-5000 팩스 064-738-5022
www.yakchunsa.org



중생들의 평안과 다복을 기원하는
八公山 **松谷寺**
주지 **만 녕**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209
전화 053)657-0108 / 휴대전화 010-3390-2145
https://blog.naver.com/sm20815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비슬산 **대견사**

주지 **법 희**

일제 강제 폐사 100년 만에 중창 불사한 도량
국운융성과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대도량
(금,토 철야 정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77
전화 053)746-0020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운봉 법광**
교 법 사	**문수·원경**
능인중학교장	**정 영 채**
능인고등학교장	**홍 은 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전화 053-232-9175 / 053-232-9104 / 053-235-4414
법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자연**

사부대중일동

부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대궁 어린이집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백제의미소 원찰

내포가야산 **보원사**

1. 미소불(마애삼존불) 만일기도 봉행(3차 천일기도 중)
2. 내포불교대학(보원사, 간월암, 보령대천사 연합) 운영
3. 내포불교원형 복원(내포 · 홍주골 · 해미읍성 연등회/수륙재)

내포가야산 성역화추진위원장 **정범**
대한불교조계종 보원사 운영위원장 **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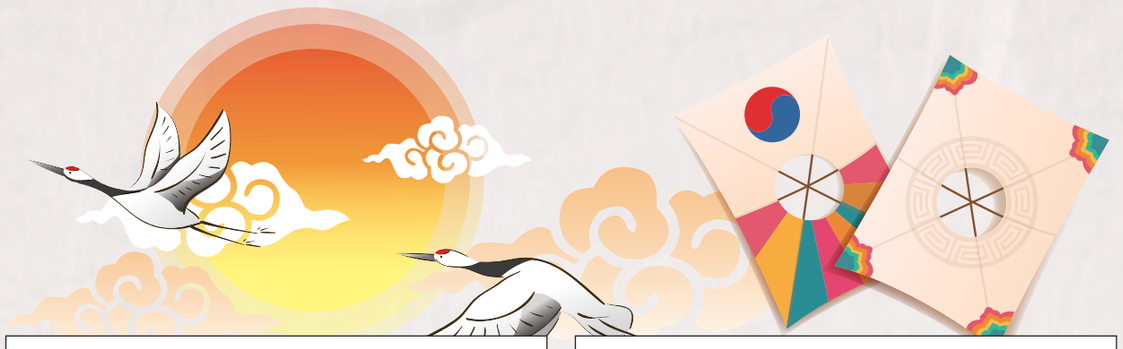
충남 서산시 운산면 마애삼존불길 192-25
전화 041)662-7717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정종원
상임고문 최주덕
고 문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정홍섭 김수현
부 회 장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류재호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이현수
총무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박차수 기획이사 박창근
섭외이사 이헌호 대외협력이사 안병호
자문이사 김상훈
이 사 강갑균 공영석 김선일 김성규 김윤곤 김종한 노종헌 박상호 박효근 윤경석
회 원 강석진 곽방보 김선조 김인석 방택훈 손만형 신기열 신상해 안경수 양승찬 이경칠 이권주 이근욱 이성원 이오식 이정출 이학우 진남일 최대경 최태식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부산광역시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 문수사
수석부회장 **원순** 동명불원
부 회 장 **능후** 대연정사
도오 남도심인당
감 사 **대 각** 옥천암
사무총장 **호 명** 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 대연사
사무국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남부경찰서 경승 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 회장 박화자
수석부회장 광혜 성재곤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전화 051)623-9253

불교TV 염불공양회

고 문 김유리자 강명자 김정순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정승자
부 회 장 윤미자
음악선생 임춘지
감 사 윤정희, 강지원
총 무 강행순
재 무 안상희
팀 장 신미자 최옥희 최말순 김숙희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전화 051)633-4020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

교구청장 현 강
종무국장 도 오
신도회장 안인수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9
전화 051)464-0668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 로 사

조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 지 **혜총**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교 무 **경무**
재 무 **경증** 사 회 **경동**
포 교 **경소** 복 지 **경지**
연 수 **경상** 교 육 **경증**
군포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432(전포동)
전화 051)809-0926

대한불교조계종
대 원 각 사

범어사 정통 호국무예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달빛명상센터

주 지 **안 도**

매월 음 14일 달빛 걷기명상
매월 음 15,16,17일 달빛 다라니기도
템플스테이, 녹차 체험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
전화 051)701-8827

지장기도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천 불 정 사

회 주 **선 묵 고 담**
주 지 **법 경**
누림주간보호센터장 **조민호(범성)**
원 주 **조정자**

신도회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도회총무 **김영애**
거사림회장 **이경철**
고담나누미 회장 **신희숙**

사부대중 신도일동
누림주간보호센터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전화 051)583-9233 팩스 051)583-6362
누림주간보호센터 051)516-2333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현정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찬불가지도 **이복금**
피아노연주 **김순옥**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전화 051)636-4531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령선원(재가선원)

회 주 **금아 혜국**
주 지 **성문**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3일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 **노인요양시설 효림원(부산)**
- **정토노인복지센터(부산)**
- **노인요양시설 정효원(제주도)**
- **무료양로원 법성원(충주시)**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전화 051)802-0130 / 팩스 051)804-1037
www.hjsa.or.kr

대한불교조계종
광 명 사

주 지 **무 아**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전화 051)646-0843

화해의 덕성 길러 인간의 뜰 소생시켜야

원광의 빛 되는 새해 아침 묵은 것 버리고 마음밭 경작을

성파 스님
조계종 종정



신령스러운 광채가 새 아침을 장엄하니 집집마다 무진복락(無盡福樂)을 이루는 門(문)이 열리고 하늘이 天機(천기)를 움직여 한없는 공덕을 풀어내니 萬物(만물)은 秬澤(이택)을 입고 환희의 눈을 뜹니다.

곳곳에서 장악을 무너뜨리는 法雷(법뢰)가 일고 大施門(대시문)이 열리니 十方(시방)에 가득한 障礙(장애)가 구름처럼 사라지고 頭頭物物(두두물물)이 제몸을 풀어 本分消息(본분소식)을 전하니 걸음마다 普門(보문)이요 이르는 곳마다 圓通(원통)입니다.

생각생각은 깨달음으로 이어져 부처를 빚어내고 一草一木(일초일목)은 얽매이는 틀을 벗고 法身(법신)의 面目(면목)을 드러냅니다.

눈앞에 삶의 매듭을 풀어내는 깨달음이 있고 눈빛이 닿는 곳에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出身活路(출신활로)가 있습니다.

일체제불이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밖에서 찾지 말고 面前(면전)에 출입하고 있는 無位眞人(무위진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햇살도 가슴에 담아두면 圓光(원광)의 빛이 되는 새해 아침에 묵은 것을 버리고 빛이 소생하는 마음밭을 경작해야 합니다.

다투며 갈라지고 증오와 분노로 마음밭이 거칠어졌으니 忍耐(인내)와 용서하는 和解(화해)의 德性(덕성)을 길러 인간의 뜰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萬法(만법)을 빚어내는 마음을 통해 푸른 願(원)을 세운 이는 구하고 찾는 것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宇宙(우주)를 세울 것이요

일체를 담아내는 包容(포용)의 큰 그릇을 이룬 이는 萬德(만덕)의 기틀을 얻어 이웃을 넉넉하게 할 것입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 정신으로 어려운 시대 슬기롭게 극복하자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님들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서원합니다.

인간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사람 인(人), 사이 간(間)' 입니다. 즉, 인간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국가를 이루며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성장과 과학 기술,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관계의 형성에 있어 날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도 선언에서 "비구들아 유행하라. 중생의 애민을 위해 중생의 안락을 위해 세간을 사랑하기 위해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애정과 안락을 위해" 전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연기적 존재이기에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하며 함께할 수 있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한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의 종교는 이제 종교 본연의 모습과 함께 사회복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가야하며, 종교시설은 최대한 사회복지와 교도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여가생활 제공, 그리고 힐링의 장소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함께 헤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당당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성도합시다.

진심과 공심으로 소통하는 새해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세계는 한 집안이요 인류는 한 몸이라는 천지동근(天地同根) 만물일체(萬物一體)의 도리를 공유하는 계묘년(癸卯年) 아침입니다. 자비와 상생(相生)을 향한 걸음걸음만이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광명이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은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는 고통분담에 기꺼이 동참하는 바탕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진심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공심으로 사부대중과 소통하겠습니다. 개인개인의 팔만사천 번뇌로 인하여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누구나 선명상(禪冥想)을 통해 평상심을 되찾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대의 지남(指南)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기 위하여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입불상을 제자리에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하고자 합니다.

계묘년에는 화합과 상생의 북을 두드려 진리의 법우(法雨)로써 만물이 모두 새로워지고 하나하나가 순리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믿고 행하는 곳에 대승 보살도가 성취되리라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희망과 행복을 바라는 곳에 여래의 지혜가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에 관음의 자비가 있습니다. 생각의 바탕이 청정하면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고난에서 행복을 건질 수 있으니 모든 사람이 희망과 행복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난과 행복이 공존합니다. 문명의 발달은 삶에 편익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지구를 병들게 하여 온갖 재해가 찾아오고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도 발생하니 이야말로 중생의 공업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립하고, 집단과 집단이 마주 서고,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일체의 생명이 존중되고 상생하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하고 나부터 새로워야 합니다. 자신의 변혁이 세상의 변혁임을 믿고 행하는 곳에 대승의 보살도가 성취되어 정토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새해, 계묘년은 모든 사람이 불성을 밝혀 복덕을 구족하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가 삼독을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발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향하며 나누어 함께 합시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계묘년(癸卯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날을 맞아 우리 모두 지혜(智慧)를 밝히면서 자비(慈悲)를 나눕시다. 복덕(福德)을 지으면서 희망(希望)을 나눕시다.

지혜를 밝히면서 자비를 나누고 복덕을 지으면서 희망을 나누면 이것이 곧 인(因)이 되고 새로운 연(緣)으로 이어지면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는 곧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서원(誓願)을 세웁시다. 실천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면 소원하는 바가 성취됩니다.

서로를 칭찬합시다.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함께해서 좋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심인(心印)으로 연결되고 통하면 인류와 사회의 질서(秩序)는 바로 서고 조화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대자유인이 되자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700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빠른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지구라는 행성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몸을 완전히 맡겨 놓았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에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루에도 8만 번뇌로 갈등하고, 또 욕심을 냅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나 자신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의지하여 대자유인이 되시길 권면합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번뇌도 능히 물리쳐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혜 광명이 충만하여 상생의 삶 펼쳐 지리라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壬寅年)도 지나가고, 새 희망과 기대 속에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토끼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예로부터 영민함을 상징하고, 검은색 역시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처럼 올해는 지혜의 광명이 충만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상생(相生)의 마음으로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을 행(行)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과 불자 가족 모두가 더 힘찬 희망으로 더욱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발원합니다.

더불어 올 한해도 제불보살님의 지혜와 가지(加持)로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보며 무탈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분들께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는 광명변조(光明遍照)요, 제암변명(除暗遍明), 능성중무(能成衆務), 광무생멸(光無生滅)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은 모든 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늘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일상 속에 있는 것이니 부처님의 정법에 의지하여 지심으로 참회하고, 수미산 같은 신심으로 용맹정진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불자들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빛을 밝혀 어둠을 물리치고,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충만한 나날이 되도록 앞서 나갑시다.

밝고 청정한 신심으로 무량공적 지으십시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새로운 시작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회한과 고통을
깊은 참회와 발원으로
회향하고
밝고 청정한 신심으로
발심하여
무량공덕을 지으십시오.

분별하고 구하는 마음 없이 무심으로 기도하며
덕을 베푸는 것이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니
자비롭게 일체를 살려 나감으로
자취 없는 보살도를 완성하십시오.

스스로 짓는 미혹한 생각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윤회를 거듭하니
마음 하나 쉬고 나면 온 법계가 고요해집니다.

지혜와 복덕이 수승하기를 힘쓰며
욕망에서 벗어나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인연으로 바른 법을 만난 우리가
함께 가야할 길입니다.

원융의 도리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인류의 평화와 국태민안이 이루어지기를
지극히 기도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먼저 참회하고 용서하면 안락정토가 도래하나니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우주 운행의 큰 기운을 품고서
또 다시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에 감도는 서기瑞氣를 입어
나날이 생기 넘치는 한 해를 서원합니다.

사바세계 곳곳에서 네 탓으로 다투면서
아픔과 굶주림이 시름시름 깊어갈 때
내가 먼저 참회하고 서로서로 용서하면
안락정토 여기라고 진각종문 설합니다.

중생이 터 잡아서 살고 있는 여기저기
갈등을 넘어 미움의 불길이 치솟아도
참회와 용서의 묘약을 정성들여 받들면
환한 웃음 마주하는 눈길이 기다립니다.

연꽃이 진토에서 고운 모습 피우듯이
의왕은 잡초 약초 분별하지 아니하고
갑남을녀 저마다 본래 빛깔 드러내면
치유의 손길 주고받는 은혜 세상 열립니다.

종교가 근본이 되어 진실로 참회하면
쟁론의 정치도 남 탓의 세파世波까지
인과를 밝게 찾아 시비를 함께 가리고
책임지고 용서하는 사회가 자리합니다.

올해도 내년에 살아남은 사람이
그토록 진지하게 살아간 작년이 되도록
그렇게 뜻 모아서 살맛이 벅찬 나날을
나누어 봅시다.

“토끼의 지혜광명이 나투는 계묘년”

和樂으로 ‘진여’의 영원한 등불을 마음에

신뇨엔 원주
대승정 이토신소



계묘년 새해에 국민 여러분 항상 맑고 상서러우며, 불교계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 질병, 전쟁 등으로 미증유의 위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제에서 벗어나려면 ‘세상과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생명임을 자각, 이타행에 눈을 떠야합니다. 신뇨엔(眞如苑)의 소의경전인 ‘대반열반경’에 “등불은 염념히 멸할지라도 빛으로 어둠을 깨트린다”고 설하시듯, 진여원의 개조와 영조께서 “굴하지 않고 부동의 신념을 관철하는 곳에 길은 반드시 열린다”고 설하십니다. 누구나가 마음에 갖고 있는 선한 힘으로 ‘진여희망의 광명’을 널리 세상에 선포하는데 함께 앞장서서 기쁨의 보살행으로 도약해갑시다. -때는 지금-

실상을 그대로 보면 무상이니라

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청암 도선 스님



나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사바세계에 갈등과 투쟁이 종식되고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삼보전에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법화경의 바른 가르침이 흰 연꽃에 비유한 것과 같이 일심이 청정하면 곳곳에 연꽃이 피어나듯이 바른 진리에 눈을 뜨고 인간본성을 되찾기 바랍니다. 부처님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간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무상(無相)이며, 묘법(妙法) 무생(無生)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정심(淸淨心)으로 실상을 바로 보면 사람마다 진리의 주인공입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해 원융화합의 사회를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중생구제의 인연을 맺읍시다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이사장 목탁 스님



새 장을 여는 뜻깊은 새 해입니다. 7억 불교도들은 중생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서는 인연을 맺읍시다. 가슴을 열어 놓고 언제나 만나고픈 그런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인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되어 겸손하게 행동합시다.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사람이 많고 순수한 마음이 되살아 나길 바랍니다. 돕는 일에 먼저 앞장서고 나보다 남들을 칭찬받게 하셔서 스스로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하나로 되는 행동하는 불제자가 됩시다.

한마음으로 대자대비 실천 나서자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월인 스님
(사)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가 28년 전에 창립돼 그동안 불교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크고 작은 일들을 해왔습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3년여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종정협의회는 불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국군훈련소 훈련장병 위문 및 보살수계식, 국운융창경제발전기원대법회, 독거노인, 고아원, 양로원, 불우이웃돕기 등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정협의회 60여 회원 종정 스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 드립니다.

일상이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날마다 좋은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커다란 아픔이 있었고 경제는 어려움이 생기며 재난과 질병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잘 헤쳐 나가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중생은 나쁘고 거친 마음을 품고 서로 해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완성하여 널리 중생을 위합시다. 불도를 완성 시키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생각하고 참회하며 지혜롭게 정진하는 새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심으로 행하면 공덕 무궁하리라

현대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스님



태양과 같은 부처님의 광명은
평등하게 비추나니
육근(안이비설신의)에서
중생심과 불성이 함께 있도다.
자신을 사랑하며 신심으로 행하면
정각의 공덕은 무궁하리라.

기운찬 계묘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님들 가정마다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지혜를 통해 슬기롭게 현안을 해결하고, 상생 도약하는 기쁨의 광명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3高 어려움, 합심하여 이겨내자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정림 스님
(사)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총림 종정



지금 전세계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어려움이 있으면 태평세월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하여 이 고통을 잘 이겨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불교법왕청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 생존시 창립되어 46년이 된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는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사상을 먼 훗날까지 길이길이 보존하고자 합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해 대한민국이 국운융창하여 경제가 발전되어 살기좋은 금수강산을 이룩하였으면 합니다.

세계불교와 함께하는 한국불교 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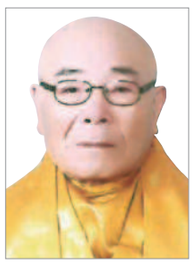
세계불교 육조조계종
종정 동봉 스님



한국불교를 뒤돌아봅시다. 우리만의 불교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화 시대입니다. 다른 나라 불교와 어깨를 같이 하려면 남의 불교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럴 때 올바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불교와 하나가 되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알면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고집을 부린다면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함께 이해하고 공동의 목표를 찾았을 때, 뭔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유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 세계 곳곳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온세상에 자비광명 고루 내리길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두 수암 스님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나라의 안정에 힘쓰고 안정을 바탕으로 번영을 꾀하여야 합니다. 역사와 민족을 우롱하고 부인하는 어두운 땅 북녘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고루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아집 편견 과욕에 의한 갈등 자멸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비 화합 평등 자주의 부처님 정신이 청정무구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처방이며 자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류의 참된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허망된 욕심과 아집을 버리시고 서로 화합하여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흥망성쇠는 일출몰이니라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이빨 빠진 호랑이 토끼에 밀려서
西山 노을 빛에 헐떡이는 도다
榮華는 오래가기 어렵고, 盛衰는
日出沒이라
기력은 점차 쇠진하고 허락된 날
얼마남지 않았거늘
아직도 꿈틀대는 三毒은 여전히
春心을 기다리고 있구나
오호라, 七星峯에 별빛은 변함이 없고
구채봉에 臥佛은 미소짓는데
음흉한 별주부 토끼 싣고 龍宮가는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각자의 본분을 잘 지킵시다

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며 토끼는 남에게 피해 안주는 아름답고 순한 동물입니다. 본래의 성불이란 내가 부처가 되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의 본연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각자의 본분을 잘 지키면 그것이 성불입니다. 국민은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본분을 잘 지키면, 성불입니다. 자신들의 본연의 길을 깨닫는 것이 대자연의 순리며 성불입니다. 모든 종교는 뿌리가 하나라는 이념을 본바탕으로 국민 각자가 믿는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른 객체가 존재할 때, 뿌리의 본체를 알게 됩니다.

복덕과 지혜가 더욱 충만하시길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청암 스님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눈 덮인 들판을 밟을 때에는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말라
금일 나의 행적이 마침내 후인의 이정표가 되리니

귀의 삼보 하옵고, 계묘신년을 맞이하여 각 산사의 큰 스님들께 인사 올리며 사부대중 다 함께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박 수 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사회문화부회장 박수곤
불교경제사회부회장 조용국
대외협력부회장 이수태
정치교류부회장 신상해
사찰문화부회장 최삼섭
섭외부회장 최영호
홍보부회장 이경신
법률부회장 박명진
사회교육부회장 정종원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재무부회장 김원용
총무부회장 박종문
기획부회장 이희태
경조부회장 신기열
행정교육부회장 최대경
행정법률부회장 박도영

■ 무임소부회장

김진수 배재한 이오상 윤종경 김영주 황의순 김홍종
원정희 김선조 송삼종 문 호 최태식 이종우 강경희
김정화 공정근 손정원 류길자 백영선 김옥희 이영숙

■ 고문

김재진 박원양 장복만 조효식 박정오 전광수 설동근 이윤희 김수현 하정선

■ 자문위원

정홍섭 이장호 고영립 박한일

■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사무부총장 김민성
기획이사 김기호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문화이사 하승준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섭외이사 이만수
재무이사 이근욱
총무이사 이현수
홍보이사 손정현
집전 류상영

■ 이사

강근순 강길주
류강렬 심인택
안천일 유지호
이명학 노현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71 정산빌딩 9층 Tel. 051)808-8600

불기 2567년
부산불교
신년하례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새해 「부산불교 신년하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6일(금) 오후 6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이웃과 공덕 나누는 마음밭 일구세”

선한 마음 속에 행복의 길이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각자가 처한 어려움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고, 희망하는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교의 가르침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 자비의 마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계묘년 새해에는 선한 자비를 실천하여 지혜광명을 얻고 행복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집과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합시다.

희망과 지혜를 전하는 불자되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올해 계묘년은 평화와 경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의 새 날을 열 것이냐, 아니면 추락의 고통에 빠질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때 요익중생을 강조하는 불교계의 역할과 기여가 크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불교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격변 속에서도 생명 있는 존재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아픔을 겪고 있는 중생과 고통 받고 있는 현장에선 불교에서 희망을 찾고 불보살님께 의지하려 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복덕으로 우리 국민들이 계묘년 희망찬 새해를 힘차게 열어 웃음이 넘쳐나는 사회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心心難可尋 심심난가심 寬是徧法界 관시변법계
窄是不用針 착시불용침 不是風動 불시풍동
不是幡動 불시번동 仁者心動 인자심동
마음 마음 하지만 가히 찾기 어렵고
넓기로 말하자면 천지에 두루하나
좁기로 말하자면 바늘 끝마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또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다.
계묘년에는 마음의 산란함 자체가 고통이니,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리석은 지혜를 만들지 않음이 행복입니다. 업을 소멸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발원드립니다.

분별심 떠나 정진해가세

대원불교 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다사다난 했던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해가 가고 또 다시 한해가 오는 것은 모두 사람의 기준입니다. 마음 속에 그 기준이 있으니 마음 밖에서 다른 것을 찾을 게 없습니다. 분별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부처님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불자가 됩시다.
탐진치는 마음에서 생겨나니 마음 한번 바뀌면 그 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순간의 깨달음을 이어간다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새해에는 분별을 떠나 자비행에 나서는 부처의 삶을 살기를 두손 모아 합장 발원합니다.

是是非非 없는 世上을 發願하며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옛날 한 스님이 세 상좌를 데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두 상좌가 크게 싸우고 서로 스님에게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스님이 싸움에 진 상좌, 이긴 상좌 할 것 없이 ‘네 말이 옳다’ 하자 옆에 있던 상좌가 스님 태도가 알쏭달쏭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님 대답 曰 ‘그래 네 말도 옳다’ 그 스님은 말 끝에 한편의 게송을 읊어 제자들을 깨우쳤습니다. 시시비비를 다 관계 할 것 없고/산은 산 물은 물 한가로운데 마음이 있네/극락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은들 무엇하리/흰 구름 끊어진 곳에 청산이 나타나는구나. 옳고 그른 시비를 모두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시비를 가리는 이 마음이 곧 중생심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성보 스님



諸佛如來是法界身 제불여래시법계신
入一切衆生心想中 입일체중생심상중
是故汝等心想佛時 시고여등상불시
是心卽是三十二相八十隨形好
시심즉시삼십이상팔십수형호
是心作佛是心是佛 시심작불시심시불 이니라.

모든 부처님은 바로 법계(法界)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중생의 마음 가운데 들어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이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할 때, 이 마음이 바로 삼십이상과 팔십수형호를 갖춘 원만덕상이니라.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이루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니라.

감사의 마음에 날마다 좋은날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계묘년 새해, 건강한 몸으로 새 아침을 맞으니 그 것이 바로 크나 큰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하루 하루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바로 그 것이 날마다 좋은날입니다.
만나는 이 마다 미소 머금고 감사의 말을 하면 발 닿는 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시 없을 소중한 인연입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매일 매일 감사하며 살아 갑시다.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모두 깨달은 이요, 부처가 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마음부터 새롭게 갈고 닦읍시다.

함께 청정한 삶으로 이끕시다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계묘년 새해는 마음으로는 참된 생각을 갖고, 몸으로는 진실한 행을 하며, 입으로는 진리의 참뜻을 전하는 불자가 됩시다. 부처의 보리심을 일으켜 정진해간다면 한량없는 공덕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헛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베풀며 복덕을 쌓아 갑시다. 진정한 복은 지혜로, 탐진치에 물든 나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까지 함께 청정한 삶으로 이끕시다. 미망을 떨치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자비로 행복 만드는 한해 되길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스님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려운 시기 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라고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중생의 고통과 행복을 함께 하는 이가 바로 보살이며, 수행자입니다. 속세를 떠나 있어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진 또 정진 합시다. 자비심은 나와 남이 하나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도리입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습 속에 감화되어 부처님 가르침을 받드는 불자가 될 것입니다. 자비로 행복을 만드는 한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자비광명으로 한해가 되기를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来普本行足好日 중선봉행시호일
行作惡菜常凶日 행작악엽상흉일
悉願成就多福年 실원성취다복년

착한 일을 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날마다 흉한 날이 될 것이다. 바라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해가 되소서. 신구의 삼업 버리고 또 버리니 청정한 마음이네. 신년에도 탐진치 어두운 마음 헐헐 버려라. 올해도 맑은 바람 고요한 이 마음 이 모든 지혜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집착 없는 마음이 바로 부처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혜지 스님



새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혼란한 것은 우리 마음 속의 삼독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디 태어날 때 아무 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갈 때는 아무 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이럴진데, 어찌하여 매순간 집착하는 것입니까.
얻어도 그 자리요, 잃어도 그 자리일 뿐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전도된 현실을 깨닫고 진정한 나의 불성을 찾아갑시다.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저절로 진리에 닿으니 그 순간이 바로 생멸을 떠난 부처의 세계입니다. 인과의 이치를 깨닫고 탐진치를 여의는 수행의 한해를 만들어 갑시다.

마음을 하나로, 국난 극복합시다

호국불교무림종
총무원장 법승 스님



희망이 가득한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천만 불자과 국민 여러분께 지혜와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길 발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계층간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수록 단결해 온 저력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이타와 대비 정신 속에 우리 사회의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정진하며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해 갑시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 리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 (055)862-6500, 6115


(주)보광석재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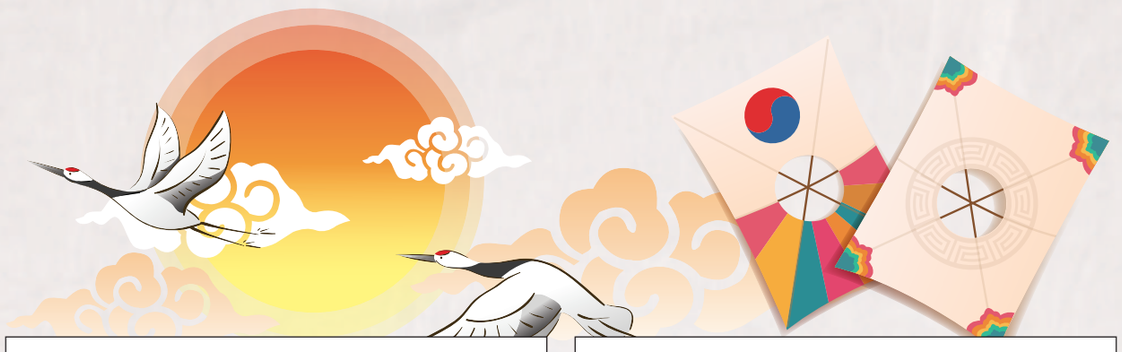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팩스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금정구사암연합회

고 문 보운스님(범어사) 춘광스님(광명사) 계전스님(국청사) 월인스님(승가종 종정) 동원스님(연화종 종정)
자문위원 조연스님(법연원 회주)
회 장 고담스님(천불정사)
수석부회장 지홍스님(보광정사)
상임부회장 홍일스님(법전사)
부 회 장 법일스님(법장사)
사무총장 동암스님(금용사)
감 사 운곡스님(관음사)
기획국장 석산스님(안국선원)
문화국장 지광스님(대운사)
사회국장 혜공스님(구룡사)
포교국장 현수스님(홍법사)
재무국장 박 분 순(달오사)
사서국장 심일스님(천불정사)
회 원 승공스님(칠보사) 진여스님(다보사) 청명스님(분다사)

금정구 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천불정사 內 | Tel 051)583-9233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단 장 송재린
자문위원 최덕수 심재덕 강수대 이승표 정분남
감 사 강재실 이수임
부 단 장 서영우 이양희 임한규 주태돈
사무국장 강태산
총괄팀장 최정자 황용대 조봉례 김영신 천경덕 김옥희 윤영준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전화 051) 633-3011, 3015 팩스 051) 633-3012
www.pogyosadan.org
http://cafe.daum.net/bgpogyosadan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장(대표이사) 정 여
수석부회장 범 산
상임이사 원 광
이 사 명현, 성문, 심산, 정오, 보혜, 김수현
감 사 박용하, 이륭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3층
전화 051)243-3531 http://www.bswia.org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양정시장 꽃상가 5층)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前범어사 주지)

영 도 대 흥 사 주지 정여
대연동 붓다선원 주지 도경
서 울 진여선원 주지 도일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
김 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거 제 여래선원 주지 효산
사량도 관음낙가사 주지 효원
울 산 여여선원 주지 효암
단장면 자모선원 주지 효문
양 산 보현선원 주지 효범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18, 5층(양정상가 아파트)
전화 051)853-5486~7, 팩스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전화 051)702-9944

대한불교조계종

청 심 사

YouTube 밝은마음TV

주지 법 진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39번길 14-8
전화 051)315-7282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회주 법 흥
주지 지 원
신도회장 박화자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용호 종합 어린이집
문수 노인 통합지원센터
문현 노인 복지관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051)624-3754, 7848
팩스 051)623-9253

한국불교조계종

황령산 옥 천 암

주 지 대각 금산
원 주 월하 도진
연등회 회장 김선숙
보현회 회장 이춘화
지장회 회장 김감애
관음회 회장 배기매

사부대중 일 동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90번 나길 23(문현동)
전화 051)634-5689

대한불교조계종

제주 제 석 사
부산 대 연 정 사

사부대중 합장

신도회, 거사림회, 관음회,
지장회, 산우회, 바라밀합창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성로10길 23
전화 (064)725-2123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69번길 8(대연동)
전화 (051)625-3886
홈페이지 www.dytemple.net



대한불교조계종

가 야 사

주지 정 현

✽ 가야사 다도회 모집
(매주 월요일 10시~12시)
: 차의 세계와 문화, 다법과 예절(다례), 차명상과 참선
✽ 금강경 수업반 모집
(매주 1회 19시~21시)
문의 : 051)893-0428

< 운영지원기관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보현어린이집,
부산진시니어클럽, 연제시니어클럽,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복센터

※ 만60세 어르신으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나 어르신들의 채용을 원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부산진시니어클럽 ☎ 051) 893-9060
연제시니어클럽 ☎ 051) 851-2190

(주)하성전력

전기공사
전문소방공사
일반건축
실내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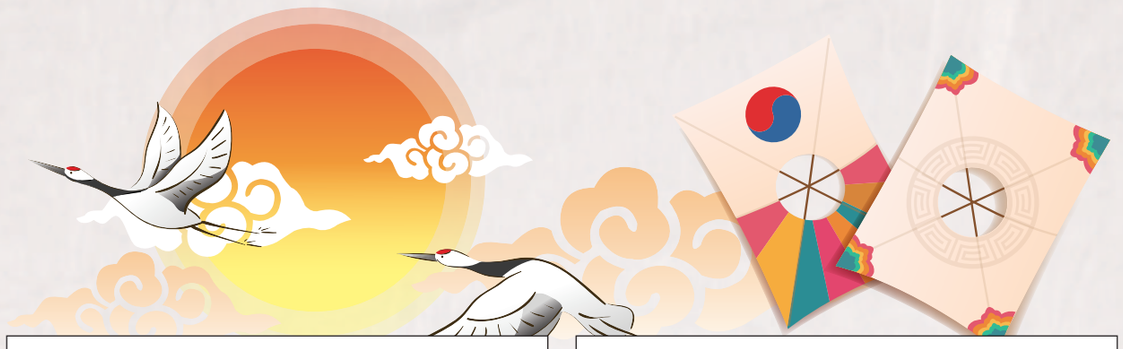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1길4, 102호
전화 051)728-5562 팩스 051)557-5587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불교연합회

고 문 원광스님(정수사)
자문위원 범수스님(금용암)
정산스님(마하사)
회 장 보당스님(보국사)
수석부회장 법승스님(화엄사)
상임부회장 월광스님(보은사)
부 회 장 동선스님
이 사 법호스님(정토사)
희공스님(불심사)
법진스님(고운암)
지원스님(선금사)
사무총장 눌은스님
감 사 지공스님(불이중도사)

그 외 회원스님 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31-3 보국사 內
전화 051)861-6961

자비 실천하는 여성불자회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여성불자회
부산여성 불자회

총 재 혜총스님
회 장 자재천 정분남
고 문 왕선자 류영남
자문위원 정찬스님 흥도스님
백명숙 이성희
감 사 장홍자 박영선
부 회 장 정정자 한순점 황곡자
김정연 이혜숙 이동희
재 무 여소현 여미란
총 무 김미옥 성희강
회 계 이원희
봉 사 이명희 하승우
이 사 전회원

부산여성불자회 일동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도량 원오사

(재)꿈나무가꾸기 명정장학재단
원오사 부설 명정지역아동센터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대원 정관
신도회장 김종흔
부 회 장 김기명

부산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전화 051)542-7949 www.wono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발 원 사

주지 호 법

신 도 회 장 김해림
화 엄 회 회 장 오부상
순 례 단 장 김상욱
다 도 회 회 장 윤선영
총동문회회장 변창숙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Tel 051)405-2326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재)청미단 운암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 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포교사반(1년) · 입문자반(3개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전화 051)271-2774 팩스 051)271-0936

대한불교조계종
여래선원
경산 삼성사

주지 평중효산

사부대중 합장

· 여래불교대학 : 매주(수) 주간10시 야간 오후7시
· 경전반 : 매주(화) 주간 10시 야간 오후7시
목요시민선방 오후7시
금요자비참법기도 오전10시
· 매월 첫째주 금토 다라니기도 오후7시



대한불교조계종
해 인 정 사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233번길 116
전화 051) 291-1176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지 자 인
신도회장 용담 최금식

연등회 회원일동
관음회 회원일동
지장회 회원일동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촌소류지길163-4(송정동)
전화 051)973-0408, 5224
FAX 051)973-3076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관음도량
계 명 암

감원 선 재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전화 : 051)508-4345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 산하시설 및 운영사업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공덕향재가장기요양기관
북구아이돌봄지원사업
독거노인건강음료지원사업

온정의 마음을 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 : 부산은행 255-01-000716-4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 상가동 204호 (금곡동)
Tel. 051)363-2063 Fax. 051)363-2067
http://www.gongchang.or.kr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심산**
부본부장 **자인, 목종, 고담,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최상곤, 이영숙**
총무이사 **성문, 권인자**
기획이사 **마나, 최성은**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배종권**

외 운영이사 일동

〈주요사업〉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63번길1, 2층(은정빌딩)
☎ 051-853-0429
☎ 051-468-042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Fax 051-853-0439

부산광역시

부산불교문인협회

실상문학상운영위원장 **혜총 대종사**

회 장 **차정연**
수석부회장 **이석래**
부 회 장 **김윤선, 명은애, 박숙자, 박혜숙, 서경남, 손순이, 양은순, 윤기선, 윤유점, 이순선, 이초우, 최선희, 보혜스님**
편집주간 **양원식**
사무국장 **홍종원**
재무국장 **김현옥**
편집국장 **이소정**
사무차장 **고순옥, 이석란**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717호
☎ 051)816-4181
http://cafe.daum.net/bulgoy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성불합시다.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농협 301-0169-1519-21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7268-9959 (회장 장상목 교수)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지원장 **김수현**

회원일동



※ 본 사진은 C19 이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종찰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다음카페 cafe.daum.net/gwanumsa1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관음사]
(당리동39-2)
전화 051)294-9300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일번지

사단법인 미 소 원

상담 · 봉사
수행 · 후원

이 사 장 **장유정**

[자원봉사 인증 등록기관]

지역 독거어르신 영양식 반찬봉사
만성질환자 죽봉사 어르신 심리상담
생활상담 및 심리상담
결핵환우 밑반찬 및 후원활동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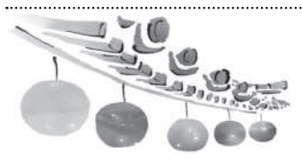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전화 051)338-1008, 337-1080

락 서 암



주지 **수 월**

락서암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227-3
전화 051)254-0820

동 국 한 의 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세요

동국한의원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한나타워 209호
전화 051)413-1155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 진 사

이사장 **전남정**
총 무 **김지오**

신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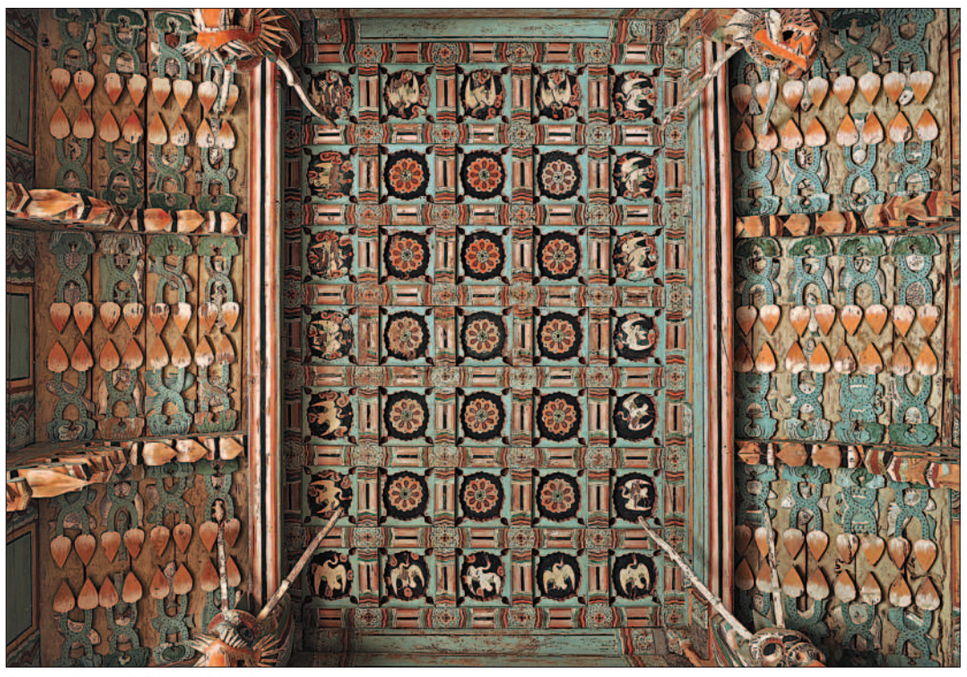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전화 031)591-7710, 팩스 031)591-7121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① 해남 대흥사 천불보전 빗반자



▶노재학 사진작가는 전통사찰, 향교, 서원, 종택, 정려각 등 전통 목조 건축에 남아 있는 단청 문양과 벽화 등을 20년 넘게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 방대한 사진 기록과 함께 전통 건축 장엄세계와 본질을 논증하면서 한국의 전통 문양과 단청 장엄을 집대성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국산사 단청의 미' 주제로 서울 등 전국 순회 사진전을 열었다. 저서는 〈한국산사의 단청세계〉(미술문화, 2019), 〈한국의 단청〉(미진사, 2021)이 있고, 최근에 〈산사명작〉(불광, 2022)을 출간했다.

법당 천정에 조영한 연꽃바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 천정과 빗반자



천불전 빗반자의 X자 꼬인 쌍연봉과 다양한 생명 목조각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 하단 연화장세계 부분

연꽃 형상, 화엄경속 연화장세계
해남 대흥사 빗반자 조형미 걸작
소재다양 · 장대한 스케일 연꽃띠
"조형의 본질은 연화장세계 구현"

연화장세계, 연꽃 속 불국토

여름날이 기다려지는 것은 연지(蓮池)의 연꽃 세상 때문이다. 연꽃의 미학은 '향원익청(香遠益淸)'에 있다.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다는 뜻이다. 성리학의 토대를 마련한 염계 주돈이는 〈애련설(愛蓮說)〉에서 "나는 유독 연꽃을 사랑한다. 늪에 피었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 향기는 멀수록 더욱 맑고 꼿꼿하게 깨끗이 서있어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함부로 가지고 놀 수는 없다."고 표현했다.

한 송이 연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오묘하다. 연꽃의 밖은 바람과 물이 있다. 꽃잎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꽃잎 안에는 노란 수술들이 찬란한 금빛 숲을 이룬다. 금빛 숲 속에 연자방이 있다. 연자방의 육질엔 연자, 곧 연꽃 씨앗이 밤하늘의 별처럼 박혀있다. 연자방은 연꽃 씨앗의 둥지다. 씨앗은 하나의 세계다. 연꽃 안에 청정한 세계가 있다. 연꽃 중심에 세계종(世界種)이 있다.

이 상황 묘사를 연꽃 외부에서 중심으로 한 겹 한 겹씩 동심원으로 표현해보면, 바람-물-꽃잎-수술의 숲-연자방-연자로 이어지는 나이테 형상을 그릴 수 있다. 형상은 〈화엄경〉 '화장세계품'에서 묘사하는 연화장세계와 다르지 않다. 연화장세계는 한 송이 커다란 연꽃 속에 담겨 있는 청정 불국토다. 그 세계는 진리 자체인 법신 비로자나불께서 헤아릴 수 없는 공덕장엄으로 이룬 세계다. 연화장세계는 대연화 안에 일체의 국토와 뭇 생명, 만유를 품는다. 80권본 〈화엄경〉 '화장세계품'에서 보현보살은 연화장세계를 8, 9, 10권 세 권에 걸쳐 세세하게 설명하신다. 압축하면 이렇다.

"이 화장장엄세계해는 비로자나부처님께서 지난날 수많은 세월 동안 보살행을 닦을 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해의 부처님을 친견하였고, 낱낱 부처님 계신 세계마다 큰 서원을 닦아서 깨끗하게 장엄한 것이다. 이 화장세계는 수미산 티끌 수의 풍륜(風輪)이 받치고 있다. 맨 밑에 있는 풍륜은 이름이 평등하게 머뭄(平等住)이고, 풍륜은 그 위에 수미산 티끌 수만큼 많다. 수많은 풍륜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것은 훌륭한 위엄의 빛으로 충만한 수승위광장(殊勝威光藏)으로 보광마니장엄향수해(普光摩尼莊嚴香水海)를 받치고 있다. 이 향수해에 큰 연꽃이 있다. 대연화 안에는 청정하고 견고한 금강륜산(金剛輪山)이 한 바퀴 둘러싸고, 화장장엄세계해가 그 복판에 있다."

풍륜-향수해-대연화-세계종의 구조

연화장세계의 맨 아래에는 풍륜이 있고, 그 위에 향수해가 있다. 향수해 안에 한 송이 커다란 연꽃이 만발한다. 연꽃 속에 금강륜산이 둘러싸고, 내부에 불국토 세계종이 중중무진을 이룬다. 연화장세계는 풍륜-향수해-대연화-금강륜산-세계종의 구조로 중중무진하다. 보현보살은 게송을 통해 천차만별의 세계종들은 중생들의 업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을 갖는다고 말한다. 가만히 살펴보면 경전 속 연화장세계는 여름날 연지에 핀 한 송이 연꽃 형상 그대로다. 〈화엄경〉의 설명에 따라 연화장세계를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한 불화가 예천 용문사 '화장찰해도'(1896년)이다. 한 폭의 불화에 연꽃 속 불국세계를 표현했다. '화장찰해도'는 나이테처럼 겹겹의 동심원 형상으로 화장세계를 그린 불화다. 일종의 평면도 시점이다. 순천 송광사 '화엄경변상도'(1770년)의 경우 불화 하단에 측면도 시점으로 화장세계를 표현했다. 하얀 파도가 일렁이는 향수해 위에 가로로 장대하게 펼쳐있는 붉은 연꽃을 그린 후 연꽃 위에 111개의 불국 세계종을 좌우대칭으로 배치한 구도로 그렸다.

법당 건축은 연화장세계

평면도와 측면도 시점의 연화장세계는 불화의 회화양식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표현기법이다. 입체로 구현한 연화장세계도 있을까? 있다면 어떤 조형원리로 구현하였을까? 한국산사 법당 건축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연화장세계다. 한국의 전통목조건축이 가진 고유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공포구조에 있다. '공포(栱包)'라는 개념은 가로 세로 빗살로 서로 포개 엮은 받침목 꾸러미라는 의미다. 가로 부재 '첨차'와 세로 부재 '살미'를 서로 단단히 결구해서 쌓아올린 모습을 갖는다. 공포는 건축의 외형에 위엄과 아름다움을 살려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둥 위에서 지붕의 하중을 골고루 받아내는 역학적 기능을 한다. 공포의 살미는 처마 밑에서 건축 바깥으로 우아한 곡선으로 뻗친다. 강한 생명력이 발산하는 형태다. 대부분 생명력 왕성한 초록 넝쿨로 장식하고, 연꽃이나 연봉을 새긴다. 법당의 처마와 추녀는 사방 둘레가 커다란 연꽃 세계다. 연꽃 장엄 내부에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 법당 자체를 연화장세계로 조영했다. 그런 특성은 한국산사 법당 조영에서 보편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남해안 법당 빗반자에 조영한 연지세계

몇몇의 법당에선 법당 내부에서도 화엄의 연화장세계를 구현하는 데 온갖 정성을 쏟는다. 통상 서남해안지역에서 그 같은 경향이 많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 나주 불회사 대웅보전,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고흥 금탑사 극락전, 남해 용문사 대웅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등이 그런 사례다. 법당 내부 사방 가장자리에 길게 빗반자를 가설해서 빗반자를 연꽃으로 장엄하는 특별한 형식을 보여준다. 빗반자 장엄에 등장하는 공통의 소재는 X자로 꼰 쌍연봉과 물고기, 거북 등 수생생물들이다. 빗반자가 연지(蓮池) 세계이다. 특수하게는 남해 용문사 대웅전에서처럼 연꽃 밭에서 놀고 있는 동자나 봉황, 용을 조영하기도 한다. 천정 빗반자에 물고기가 유영하는 연지를 조영하는 원리에는 물의 기운을 불어넣는 목적성도 있다. 물의 기운으로 목조건축에 치명적인 불의 기운을 다스리려는 화마에 대한 결계의 방편이다. 하지만 조형의 본질은 연화장세계의 구현에 있다. 빗반자 내부 법당 중심부에 연꽃과 불보살의 상징 범자로 조영한 불보살세계를 펼쳐 두었기 때문이다.

대흥사 천불전 빗반자 연꽃 조각은 걸작

법당 내부 빗반자에 연속하는 연꽃 띠를 조영한 곳은 전국에 열 곳 정도이다. 필자는 그 중에서 조형미를 갖춘 걸작으로 해남 대흥사 천불전의 빗반자를 손꼽는다. 조형의 아름다움과 소재의 다양성, 연속하는 연꽃 띠의 장대한 스케일, 치밀한 조각구성과 배치, 풍부한 서사 플롯 등으로 단연 돋보인다.

천불전은 1811년 화재로 소실한 것을 1813년에 새로 지은 법당이다. 다성(茶聖)이라 부르는 초의선사의 스승 완호 대사가 중건했다. 중건 후 1817년 승려 장인 44명이 참여하여 경주 기림사에서 불석으로 천불을 조각해서 해남으로 모셨다. 모셔오는 과정에 큰 바람을 만나 일본 근해를 표류하다 천신만고 끝에 대흥사로 돌아온 불상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다.

빗반자는 천불전 내부 천정 사면에 모두 빠짐없이 조영했다. 후면이라고 건너뛰거나 형식적으로 대충 조각하는 일은 없다. 후불벽이 없는 천불전 건축의 특성을 고려한 산물이기도 하다. 어느 위치든 한 결 같이 조각 밀도와 소재 구성이 치밀하다. 빗반자 연꽃 띠는 X자로 꼬인 쌍연봉 형태로 연속하며, 이어져 법당 천정 사면을 둘러쌌다. '사경변상도'에서 부처님의 세계 가장자리를 금강저의 띠로 둘러싸서 신성 영역으로 결계하고 있는 원리와 유사하다. 쌍연꽃 띠는 무려 4중으로 두텁고 조밀하다. 4중의 꼬인 쌍연꽃 띠는 나주 불회사 대웅보전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조형 밀도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불회사 조형은 헐거울 정도로 느슨하다. 조형에 생명력 있는 박진감을 불어넣는 긴장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 천불전의 빗반자 조형엔 긴장감 있는 생명력으로 활기차면서 초등학교 운동장처럼 명랑하다. 뭔가 왁자지껄하다. 그런 분위기는 상생의 조화로운 활력에다 시의적절한 자리에 먹이사슬 관계의 조형을 파란처럼 툭 던져 놓음으로써 얻는 긴장 효과에서 나온다.

입체로 조각한 연화장세계

천불전의 꼬인 쌍연꽃 띠는 평균 폭 1m에 대략 사방 총 23m 길이로 장대하다. 쌍연꽃마다 물고기, 개구리, 거북이, 게를 빠짐없이 조각했다. 수생생물뿐만이 아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물고기를 사냥하는 다리 넷 가진 포유류 짐승도 있다. 수달 형상을 닮았다. 게다가 초현실적인 불사약을 찧고 있는 옥토끼도 등장한다. 어린아이 그림처럼 천진난만하다. 조형 내면에 동화 줄거리가 흐른다. 조형에 밴 심상은 가식 없이 순수하고 맑다. 연꽃 띠의 세계는 청정하고 맑은 심성의 세계를 보여준다. 형상에 그림자 따르듯이 대연화 내부에 청정한 세계가 깃든다. 연꽃 띠 내부는 청정 불국토의 세계다. 천정 중앙 우물반자 칸칸이 팔엽연화문을 새겼다. 팔엽연화문은 불국 세계종의 표징이다.

대흥사 천불전 천정 가장자리에 쌍연봉 띠로 이은 대연화의 목조각이 있다. 대연화가 둘러싼 법당 중심부엔 천불이 현현하셨다. 법당건축 가구구조로 '대연화 속 세계종' 개념인 연화장세계를 입체적으로 완성했다. 고개 아프도록 우러러야 마침내 우리에게 오는 앙시도 시점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이다.

〈사진작가〉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조계종

두 타 사

불 사 회
두 타 회
단 나 회
108산사순례단
가릉빈가합창단
통영해병전우회

해병 영혼의집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95-1
전화 055)648-1477, 648-1366

대한불교조계종

울산 옥 천 암

주지 문성스님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225
전화 052)288-1350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심 적 정 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133번길 15
전화 055)973-1388

대한불교조계종

여 래 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주시 진주성로188번길 29(상봉동)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 각(표충사 주지)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사회부장 천주(무봉사)
감 사 성정(수덕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회원사찰일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전화 055)355-4518 팩스 055)354-5622

한국불교태고종
(나누우리 이사장)

밀양 법 성 사

주지 만 우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2길 159-11
전화 055)351-0374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대표이사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

법인 사무총장 홍성표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통합지원센터

직원일동

055)385-2800
봉사자, 후원자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 농협 813037-51-054104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한국불교태고종

남해 금 왕 사

주지 금산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이동면 보리암로 65-23
전화 055)862-3794

대중불교 전법도량

봉화산 정 토 원

원장 법공

총무스님 길상 등명
사단법인 이사장 선건
사무국장 이수홍 감사 장임순, 제효정
고문 김영준, 이재우

사단법인 봉화산정토원신도봉사회

회장 이장명
부회장 박영옥 이수홍, 총무 김지원
지도법사 황재연 조세균, 간사 김대진

메아리음악단 단장 김수복

신도일동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136-200
전화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 련 암

사부대중일동

정토만일봉사회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보리수동산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30-34
전화 055)672-0078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❶ 부처님 깨달음의 가치



▶박희승 교수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20년 동안 일하였다. 지금은 불교인재원과 고양 흥국사에서 참선을 안내하고 있다. 유튜브 "영원한 행복 생활참선"을 운영한다.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로도 활동 중이다.

인생 나침반 된 "너도 깨달으면 부처!"



부처님 초전법륜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우리 인류의 위대한 큰 영웅, 부처님

2600여 년 전, 인도의 히말라야산맥 아래 작은 부족국가의 왕자 싯다르타는 사람이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음에 큰 의문을 품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찾아 출가의 결단을 내렸다. 그는 6년 동안이나 모진 고행을 했으나 여전히 진리를 깨치지 못했다. 싯다르타는 고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보리수 아래에서 고요히 명상에 들어 마침내 큰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영원한 행복을 이루었다.

싯다르타는 이 깨달음 뒤에 '나는 불사(不死)의 문을 열었다' 고 선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출발이다. 싯다르타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하여 깨어난 자, 붓다라 하였다.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불교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란 인도 말로는 '붓다' 이고 우리말로는 깨달은 자란 말이다.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처님을 믿고 불교를 공부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면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죽음마저 초월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에 대하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탈의 길을 깨치고 알려준 분은 부처님이 최초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인간들의 위대한 큰 영웅이시다. 인류 역사에서 불교와 예수교(카톨릭 · 개신교), 이슬람, 힌두교 등 4대 종교가 있지만, 불교를 제외하고 예수교와 이슬람, 힌두교는 모두 인간이 아니라 인간 밖의 절대 신을 믿고 신에 의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종교이다. 오직 불교만이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영원한 행복을 이루는 종교다. 여기에 불교의 특색이 있고, 가치가 있다.

현대사회는 인공지능과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시대다. 설사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는 신이 창조한 인간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었으니 누가 더 위대한가?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지식과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신 중심의 종교는 신뢰를 잃어갈 것이나 인간 중심의 종교는 더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이다.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의 길을 알려준 부처님

부처님의 깨달음과 불교의 출현은 부처님 당시 인도 사회와 종교에 심대한 파문을 낳았다. 당시 인도는 브라만 계급이 브라만교를 통해서 지배하였다. 브라만교는 엄격한 신분제인 카스트제도를 만들어 인간이 전생의 업에 따라 태어나며 끝없이 생사 윤회한다고 가르쳤다. 브라만교는 전생에 선업과 복을 많이 지어야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지은 업에 따라 크샤트리아(왕족, 무사), 바이샤(농상업), 수드라(노예, 천민) 계급으로 태어난다고 하였다. 당시 브라만이 가르친 윤회설은 전생의 업이 금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숙명론이다. 브라만교는 전생의 업에 따른 운명론의 윤회설로 인도인들을 구속하고 통치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업과 윤회설을 받아들이면서도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길을 제시하였다. 이것이 불교의 특색이고 출발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전생의 업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숙명론을 부정하면서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을 하느냐에 따라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는 것' 이라 설하였다. 불교는 업과 윤회설을 받아들이면서도 수행과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길을 강조한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그에 기반한 불교의 해탈설은 인간이 결정된 운명에 따라 속박된 삶에서 바른 행과 깨달음을 통한 대자유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불교는 곧 인간이 그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운명의 주인이 되는 인간 완성의 길이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생로병사와 윤회의 괴로움을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의 종교는 불교 밖에는 없다.

나를 일깨운 한 마디 – "너도 깨달으면 부처다!"

나는 고려 후기 공민왕의 왕사를 지낸 나옹(懶翁, 1320~1376) 대사가 탄생한 경북 영덕 가산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나옹대사의 전설을

산중 선원서 선 전통 지속되지만
일반엔 구복신앙 벗어나지 못해
교육 · 수행 지도 인력 미흡 아쉬워

먹고 자랐지만, 집안은 유교 전통이 강했다. 우연히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나옹대사가 창건한 장육사에서 머물며 공부하게 되었다. 그때 방을 같이 쓰던 대학생이 독실한 불자라 아침, 저녁 예불을 함께 했다. 나는 그때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부처님이 쎄냐, 하나님이 쎄냐 하며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신과 같은 존재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절 생활을 하니 그 대학생을 따라 뜻도 모르고 그냥 예불을 했던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새벽 예불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에서 좌선하던 대학생 형에게 물었다.

"(손가락으로 불상을 가리키며) 저 분이 누구에요?"

"부처님이지!"

"부처님이 누구냐고요?"

"깨달은 분이지,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너도 저 자리에 앉아서 설법도 하고 절도 받을 수 있지!"

나는 이 한 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는 그때 결심을 했다. "나 같은 사람이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니 ... 나도 불교를 공부해서 부처가 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나는 불교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지만, 그때 나도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날 대학생에게 들은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한 마디가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이 글을 쓰는 여기까지 오게 하였다(이때 나에게 불교를 알려준 그 대학생이 바로 지금 과학 대중화운동으로 유명한 박문호 박사다).

한국불교의 현실, 구복(求福)과 깨달음 문제

하지만, 한국불교의 현실은 간단치 않았다. 종립 동국대에 진학하여 불교 공부를 할수록 불교는 더 복잡하고 어려웠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가르침이 있으니 어느 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그리고 선어록의 가르침은 너무나 달라서 혼란스러웠다. 여기에 선과 교의 차이도 그러했고, 참선과 염불, 주력, 절, 기도, 봉사 등 다양한 수행법도 제대로 알려주는 이가 드물었다.

더구나 일반 사찰은 거의 대부분 불공과 천도재 중심의 구복(求福) 신앙에 머물러 깨달음을 갈망하는 젊은 불자들의 지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1980년에 들어서 도심에 불광사, 한마음선원과 같은 사찰이 개원하여 현대적인 포교로 주목 받았지만, 구복 신앙의 벽은 참으로 두터웠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한국불교의 주된 흐름은 구복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구복 신앙 중심의 한국불교의 현실은 청년학생들의 이탈을 낳아 미래가 그리 밝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형태이지만, 실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하여 생사 윤회의 해탈을 설하였지만, 구복 신앙은 생사 윤회 안에서 부처님에게 복을 빌고 받고자 하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한국불교는 템플스테이와 참선 명상붐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지만, 이를 보다 대중적으로 수용할 한국불교의 교육과 수행 체계, 그리고 지도 인력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남방 상좌부 승가의 위빠사나 수행법이 체계적인 안내와 쉬운 체험을 앞세워 대중 속에 스며들고 있다. 대승과 동아시아 선종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불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물론 한국불교가 간화선을 중심으로 참선 수행 전통을 성성하게 전승하는 큰 장점이 있다. 이것은 세계 불교계에서도 찾기 어려운 한국불교만의 장점이자 특색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 선은 사실상 도시 중심의 현대인의 삶과 분리되어 산중 깊은 선원에서 출가자 중심의 수행이라는 한계가 크다. 특히 언어도단과 불립문자의 돈오를 강조하는 전통에서 간화선 대중화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한국불교는 1700년 동안 대승 경전과 선어록 중심의 교학과 수행 전통을 전승하여 왔는데, 현대에 와서 소승이라 비판하던 초기 경전과 남방 상좌부 승가의 위빠사나 수행 전통이 적지 않는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서양에서는 구복을 건너 바로 참선을 받아들여 과학과 결합하여 심리 치유 프로그램화하여 이것이 오히려 한국으로 역수입되고 있다. 산중 선원에서는 간화선 중심의 선 전통이 강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일반 불자들은 구복 신앙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시민과 청년학생층은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을 위한 템플스테이와 참선 명상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지만, 종단 차원의 교육과 수행 시스템과 지도 인력 양성은 아직 미흡하다.

필자는 이러한 한국불교의 현실 인식과 한국선의 입장에서 이번 연재를 통하여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초기경전과 대승경전, 그리고 선어록을 중심으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지혜를 발굴하여 전해보려고 한다. 이 글을 통하여 자기 마음에서 지혜를 밝혀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 선지식들께서는 우리 중생이 어리석음을 비우고 지혜를 밝혀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 불교의 선은 자기 마음에 본래 갖춰진 지혜와 능력을 계발하여 생사의 괴로움을 단박에 건너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라는 가르침이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대한불교조계종 현존 最古사찰 지장도량

삼랑성 傳燈寺

조 실 정암 세연
회 주 학롱 장윤
주 지 여암

정기 법회
초하루 법회 지장재일 – 합동천도재 및 만년위패 봉안식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전등사 유튜브 '전등사TV' 운영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어디서든 온라인 법회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불교학당, 불교대학, 합창단 모십니다.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이메일: 9370125@daum.net TEL: 032)937-0125 FAX:032)232-5450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

이사 : 상우,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동진, 오심, 동주, 수진행

감사 : 영산, 도광록세무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372-3722 팩스 055)372-3723

한국불교태고종

보 현 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055)645-6448

자비나눔 실천도량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1-7731

한국불교태고종

산청 왕 복 사

주 지 **자우스님**

신 도 회 일 동

경남 산청군 금서면 친화경로 2451번길 181-8
전화 055)974-0038

대한불교조계종

함안 자양산 칠 보 사

주 지 **정광스님**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함안군 산인면 산인 운곡리86-153 지양산
전화 055)584-5390

대한불교조계종

신라천명고찰 밀양중심사찰 호국불교성지

무舞 봉鳳 사寺

주 지 **일관(一寬) 천주(天柱)**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영남루1길16-11
전화 055)354-3296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54
전화 052)262 0518

금강산 최남단 천년고찰

대한불교조계종

고성 화 암 사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길 100
전화 033-633-1525

2023 謹賀新年 계묘년

달빛이 운치를 더하는 소박하고 편안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 덕 사

주 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전화 033)661-5878 팩스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불교인문학살롱 ❶ 〈화엄경〉과 소소일상



▶조정은 수필가는 1960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1996년 〈한국 수필〉로 등단했다. 현재 격월간 〈에세이스트〉 편집장이며 문학평론가로도 활동 중이다.

번뇌 불꽃 일으키며 사는 '나'를 만나다

〈화엄경〉은 묻고 답하는 방식이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장엄한 문답이 〈화엄경〉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묻는 자와 답하는 자의 경지는 자리가 다를 뿐 깨달음의 경지는 거의 대등하다. 앎의 깊이가 있어야 자신의 무지를 알아챌 수가 있고 무지를 알아채야 질문을 낳을 수가 있다.

나는 〈화엄경〉의 진리는 통 모르지만 문장에 매료되었다. 역설적이며 모순어법으로 점철된 문장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뜻이 분명해지기보다 아스라이 멀어지는 매혹이 있다.

특히 "모든 번뇌의 불꽃을 끝까지 멸하였지마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의 불꽃을 일으키며, 모든 법이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아지랑이 같고, 변화와 같고, 물속의 달 같고, 거울 속에 영상 같아서 성품이 둘이 없는 줄 알지마는, 마음을 따라 한량없이 차별한 업을 짓습니다"는 경구는 넘치도록 매력적이다. 나와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고 부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나는 2020년 10월 경기도 양평의 맨 동쪽 경계인 양동면 석곡섬실마을로 들어왔다. 이곳은 나지막한 산들이 에워싸고 있는 조그마한 분지다. 산마다 물이 풍부해 정상 근처까지 조붓한 다랑이논들이 이어져 있다.

서울과는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임에도 문명에서 소외된 오지 중의 오지. 잡지 편집 일을 십여 년 하다가 한계에 부딪혔고 내 자신을 유배시키듯 이곳으로 들어왔다.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소개해준 것도 아니다. 그저 여행 중에 길을 잘못 들었다가 매료되어 들어온 것뿐이다. 연로한 화가가 작업실로 썼다는 아주 작은 오두막이 내 형편에 딱 맞는 시세이길래 앞뒤 가리지 않고 이사했다.

"나도 콩 한 말 들고 토굴로 들어가면 안 나올 거예요." 아침마다 두 시간씩 독경하는 남편에게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면 그를 야유하며 협박하는 말이었다. 그럴 때 내가 상상하던 토굴에 비하면 오두막은 궁전이다.

지난 7월 잡지사 발행인 선생이 이곳으로 와서 내 오두막 옆에 붙은 폐허 같은 땅을 매입했다. 수목이 우거진 땅 안쪽에 십수 년간 방치돼 처치 곤란한 쓰레기나 마찬가지인 집 한 채가 있었다. 중장비를 불러 우거진 잡초와 나무를 베어 끌어내는 작업만 이틀이 걸렸다. 그래봐야 겨우 안마당까지 발 디딜 틈이 생긴 정도였다.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포클레인으로 그 무덤 같은 집을 밀어버리자고 입을 모았지만, 선생은 집 꼴이나 구경한 다음 헐자고 고집을 부렸다.

선생은 당뇨 30년 차다. 인슐린을 맞은 지 십수 년, 순환기 여기저기 고장도 다채로웠다. 작년 1월부턴 신장투석이 불가피했고 5월에는 갑자기 심장 박동이 멎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서너 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넉 달 지나 9월에는 뇌출혈로 대수술을 했다.



의사들은 매번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일렀고 깨어나도 육신이 멀쩡하긴 어려울 거라고 했다. 머리 뒤쪽에 구멍을 뚫고 관을 넣어 괴어있는 피를 뽑아내는데 이미 엉겨붙은 피는 쉬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거짓말처럼 육신은 멀쩡했는데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세계 평화의 길은 문학밖에 없는데 이번 저승에서 돌아오는 중에 수운 최제우를 만나 그 길을 열어갈 확실한 로드맵을 완성했다느니, 무극대도는 사소한 사람 사소한 일상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느니, 그러면서 유튜브 도올 티비에서 수운 최제우에 관한 강의를 심취해 들었다. 도올의 신간 〈동경대전〉을 읽다가 문장 하나에 꽂히면 전화해서 내게 쏟아내는 열강은 끝이 없었다.

그렇게 꿈과 현실을 오가는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내 일과가 되었다. 나는 양동 산속에 있고 그는 전라도 광주의 병원에 있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통화를 했다. 깊은 밤에도 혹시 전화가 올지 몰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가족들조차 정상 회복은 어려울 거라는 조심스런 견해를 내놓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섬망 상태에서 외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의 진정한 소망을 다 드러내고 있었다. 멀쩡할 땐 심각한 것 하나 없이 실없는 농담만 실실하던 선생이 갑자기 진지해진 것이다. 그가 생시에 있지 않아도 좋았다. 문예지를 창간할 때 하도 호기롭게 큰소리 빵빵 치며 세상을 깜짝 놀래킬 기세여서 나도 하던 일 팽개치고 올인해본 것인데, 병든 몸으로 그 작은 문학단체를 이끄는 데도 힘겨워 빚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며 헉헉거리다가 이렇게 혼자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인터넷카페나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죽지도 않은 사람을 벌써부터 폐기처분하려는 몇몇 사람의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역설적 모순어법 '화엄경' 경구 보며
내 상황과 비슷… 자신 반추하게 돼
아픈 발행인과 딸 돌보며 감정 격류
번뇌 곱씹는 게 지금 나의 '제1의제'

나는 어디에도 엎드리지 않고 꼿꼿이 앉아 주문을 외웠다. 돌아와라.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돌아와 한 줄이라도 당신의 문장을 써라. 당신의 일을 완성시켜라. 나는 젊어 출가도 해봤고 불자인 남편 덕에 매일 독경 소리에 깨어나곤 했으나, 이 절박한 상황에선 불경의 한 구절도 생각나지 않았다. 모든 진리의 문장이 떠난 자리에 단 하나 '생명'이 들어앉았다. 죽지 마라, 반드시 살아 돌아와라.

그는 두 달 가까이 섬망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이 멀쩡히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투석에 한계가 왔다. 신장 이식이 불가피했다. 그의 가족들이 이식 적합도 검진을 받았으나 모두 불합격. 내가 나섰다. 나는 건강은 좋은데 비혈연이라는 게 문제였다. 돈을 받지 않고 증여할 만한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선생과 내가 함께한 문예지 역사를 서술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200쪽 분량의 책 한 권을 만들었고 타 문예지 발행인들의 인우보증서까지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수술인가가 나기까지 무려 넉 달이 걸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수술하고 두 달 지나 7월 말 이곳으로 오셨다.

선생은 토방으로 올라서서 잠시 추녀를 올려다보고 방으로 들어가 맨살을 드러낸 채인 흙벽과 기둥과 천장 서까래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리곤 신음처럼 토했다.

"으으음,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걸 부셔버리겠다고?"

돌아보는 선생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갔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6.25 때 이 조그만 동네에 네이팜탄 두 발이 떨어졌어. 피난에서 돌아와 보니 집은 잿더미가 되었어. 당장 식솔들 비바람 피할 데도 없었을 거라고. 산에 가서 나무 베고 내에 가서 돌멩이 줍고 논에 가서 흙 파다가 집 짓는 가장의 마음이 그대로 여기 새겨져 있잖아. 이걸 깨끗이 쓸어내면 그만일까."

누군가 말했다.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비용이 훨씬 더 들 겁니다. 집이 99평이나 돼요. 쓸데없이 넓기만 한데 어쩌시려고요?"

선생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너른 방 한가운데 물색없이 서 있는 울퉁불퉁 휘어진 기둥을 손으로 쓰다듬다가 얼굴이 돌 맞은 양재기처럼 구겨졌다. 버려진 집마저 생물로 보는 그의 마음. 어쩌면 그 집은 선생 자신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일 것이다. 당신은 당신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집은 산 채로 고려장된 늙은이였다.

팔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집의 대수술이 시작되었다. 공사를 맡은 이는 한 달 안에 끝낼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눈이 펄펄 날릴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일단 중지하고 선생은 아쉬운 대로 방에 불만 넣은 집으로 들어갔다. 이사하기 전, 빈 집에 중환자인 선생 혼자 기거하는 게 걱정스러워 서른 후반의 아직 미혼인 막내딸을 불러왔다. 그런데 막내딸은 새집으로 들어가길 거부하고 내 집 방을 차지하고 들어앉았다. 나로선 이중 부담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선생의 방은 사방 5m 너비다. 세 면의 벽에 'ㄷ' 자로 책장을 짜넣고 1m쯤 간격을 둔 가운데 덩그러니 침대를 넣었다. 편백나무 책상 하나, 의자 하나, 행거 하나, 작은 냉장고와 콘솔과 약장이 방 살림살이 전부다. 방안으로 들어간 선생은 식사시간 외엔 나오질 않는다. 병원과 서울 본사에 갈 때나 더러 방문객이 있으면 의관을 갖추고 나오지만 나머지 시간엔 늘 잠옷차림으로 방안에만 있다. 나는 선생의 방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세끼 식사는 내 집에서 한다. 식사 준비가 다 되어갈 즈음 전화를 한다. 문제는 거기부터였다. 딱 일 분 거린데 통화한 다음 밥과 국을 퍼놓고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시 데워야 할 때가 많다. 선생이 늑장부리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곧장 딸내미 방으로 들어가 딸을 깨우느라 시끌벅적. 딸내미는 먹느니 마느니 고집을 부리고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함께 나오기도 하고 혼자 나오기도 한다. 딸내미도 아프고 선생도 아프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나마 건강한 게 나뿐이라는 것 잘 안다.

그러나 내 안에 밥 차리던 따뜻한 마음은 간데 없고 짜증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모욕당한 듯 억울하고 분하다. 내가 몸종이요? 내가 식모요? 도대체 그 태도가 뭡니까? 소리쳐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꾹꾹 참는다. 꾹꾹 참는 모습은 고스란히 두 사람을 압박하며 무지하게 불편하게 한다는 것 잘 안다. 그래도 나는 입을 꽉 다물고 갑질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내가 누군가. 토굴에 들어가 공부하고 싶은 서원을 평생 품어오지 않았던가. 그렇지, 혼자 토굴로 들어갔더라면 이런 부딪침은 없었을 거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부딪치지 않고 어찌 닦아지겠나 싶다. 토굴과 인연이 없었던 것, 토굴로 들어가지 않은 것, 나 같은 중생에겐 외려 큰 가피이다. 토굴 수행이라는 내 꿈은 여전하지만, 영영 이루지도 못할 꿈이지만, 절대 이룰 생각도 없다.

내가 모든 번뇌의 불꽃을 끝까지 멸하였을 리 결코 없지마는, 일체 중생을 위하여서라는 목적도 없지만,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은 번뇌의 불꽃을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게 삶이려니,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모가 깎이는 이 시간이 곧 존재의 사건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시간을 차근차근 씹어 삼키는 일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제1의제이다.

꿈이 이루어지는 도량 함안 마애사

천년의 물 흐름 속 영험한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청룡대불

지성으로 기도드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지는 기도도량입니다

미리 부처님 친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어 발원하는 모든 일들
원만성취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완공 예정
2024년 1월 1일 갑진년(청룡의 해) 새해 점안법회 예정
055-585-5114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마 애 사



함안 마애사 청룡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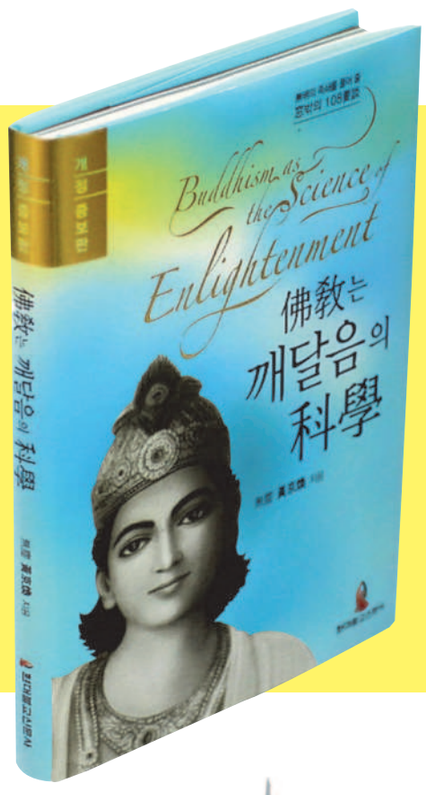
2023 謹賀新年 계묘년 화제의 책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개정증보판과 영문판 동시 간행

"무명(無明)에서 비롯한 '나'라는 관념(觀念)을 깨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면
생로병사(生老病死)란 꿈속의 꿈이요.무명에서 비롯된 '나'라는 관념의 족쇄에 묶여 있으면
그 나라는 존재는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타마 붓다는 이러한 무명(無明) 중생(衆生)의 삶을 처절한 고통으로 보았으며,
그래서 중생의 삶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내 안에 틀고 있는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아다.' 라고 하는
마치 독사와 같은 이 흉측한 Ego(탐, 진, 치)를 밖으로 끌어내어 버리기만 하면,
텅 비어진 그곳에 온전한 우주의식이 충만할 것이니,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영원하고 불멸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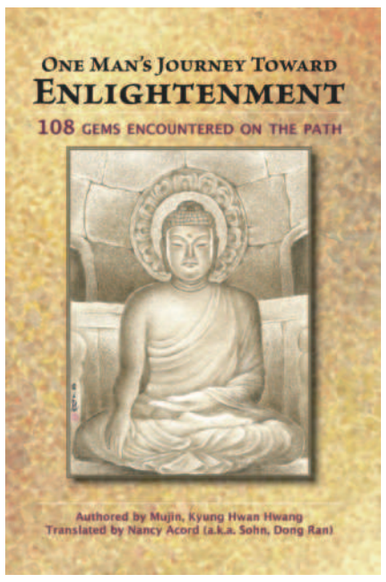
무명의 족쇄를 풀어줄 창밖의 108요담

황경환 지음

현대불교신문사 / 신국판 / 304쪽 / 값 15,000원



근본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핵심 대의에서부터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불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저자가 평생에 걸쳐 수집해 온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영원한 자유의 길을 펼쳐 보인다.



"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영문판 발행, 아마존에서 페이퍼백, 전자책, 오디오북 발매중!

저자 황경환이 한 생애를 투자하여 빚어낸 '108개의 그물코'. 깨달음의 여정에서 그가 건져올린 108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진 이 책은, 허깨비 장난 같은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구도자가 '법의 그물'에 걸려들기를 기다리는 어부 황경환의 평생에 걸친 노작이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물에는 천 코 만 코가 있지만 정작 고기는 한 코에 걸리는 법"이라는 어느 선지식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화두를 품게 된 구도자가 걸려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의 그물코를 장만하게 되었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이라는 영문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불교의 핵심 대의는 물론이고 불교의 역사에서부터 현대물리학과 불교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스펙트럼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저자 자신의 체험이 녹아들어 있는 "이야기의 보석들"이다.

아홉 살 때, 선박업을 하시던 부친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하신 이후 이런 말씀을 하신다. "환아, 너에게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만난 '죽음'이라는 화두는, 그의 인생 여정과 더불어 확대증폭을 거듭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20대 후반에 해상유류판매사업을 하던 그는 바다에 나갔다가 돌풍을 만나 배가 전복되기 일보 직전에 위기를 모면, 밤새도록 성난 파도와 싸우느라 생사를 넘나들다 겨우 살아남게 된다. 재산이라고는 숟가락 몽둥이 하나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거지 신세가 되기도 했고, IMF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환율 인상으로 부채가 두 배로 늘게 되어 파산의 위기에 몰리기도 한다. 갑상선암이라는 병마와도 싸워야 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는 이 모든 둑카((苦)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라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면서, 인연법에 따라 불교와 조우하게 된다. 이 책에 제시된 이야기들은 대부분 초기불교의 경전들과 불교 자체가 과학임을 입증해 보이는 현대의 양자물리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책 속에는 불교의 진리를 과학으로 입증해 보이는 과학자들이 다수 등장한다.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 인류 역사상 최초로 비시공간의 세계를 받아들인 과학자 알랭 아스페, 시공간과 비시공간의 영역이 함께 공존한다는 이론을 발표한 고스와미 박사, 아이작 뉴턴 이후 객관 세계의 담을 무너뜨린 '불확실성의 원리'의 하이젠베르크, 카오스 이론과 나비 효과의 에드워드 로렌즈 등이다.

오감과 오감이 주는 쾌감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나'는 종 노릇하는 처지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태어난 존재의 실존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통찰해야 한다. 고타마 붓다가 45년간 인류에게 전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불교의 핵심 공식이다. 이 책은, 불교의 이 핵심 공식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해설이고 예화이고 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 문

현대불교신문사 마하몰 : 1688-9099(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총판 운주사 02)3672-7181
비움과 소통 031)945-8739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회두피안 NEWS http://www.hdpannews.com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 실 청운 도원
주 지 허주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전화 053)984-4550 팩스 053)985-7118
www.p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비슬산 용연사

주 지 능도

사부대중일동

포교원 인정 용연사
불교대학 운영
법화경 독송 및 관음 염송 법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전화 053)616-8846, 팩스 053)616-0408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 지 성주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전화 054)292-2083 팩스 054)291-4190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 지 선지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전화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회 주 포전 혜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전화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암

'기도와 수행의 천년고찰'

주 지 활안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386-73
전화 053)852-0963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 지 덕현

신도일동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곡로 91길14(지묘236)
전화 053)983-1816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

회 장 조신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 지 운성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전화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임대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전화 054)247-2729(FAX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회 주 지산
주 지 징암

관운사 복지센터 (무료급식)
Tel (054)933-0808

카페: cafe.daum.net/guanunsa

신도일동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전화 054)931-7777 팩스 054)931-3000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 지 태관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전화 054)335-1369 팩스 054)335-2609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용화법원미륵종

불 종 사

종 정 보원 현진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남방1길 5-6 (남방동)
전화 053)802-4043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 굴 사**

신도일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Fax 053)853-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주 지 지안

www.gbbc.or.kr
(우리나라 두꺼비 최대서식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전화 053)792-1353, 1181 팩스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대 전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26
전화 054)873-2908 팩스 054)874-9137

'수행과 교육의 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전화 053)431-5400 팩스 053)255-5629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사부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전화 053)522-7611 팩스 053)522-7612

우리 시대의 힘 인재양성

보광명문화 장학재단

"당신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만원 후원금으로
재단 후원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 : 562-069-8443-4636
대구 : 505-10-201229-4
예 금 주 : (재)보광명문화장학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삼덕동2가)
(갤러리 영도다움 3층)
전화 053)710-3700, 053)523-2886
팩스 053)252-2886

(재)대한불교관음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대덕산 백 련 사

종무원장 법 웅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진밭길 2948-24(백련사)
전화 053)781-3784, 053)781-3111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 구 교 구 청

교구청장 증 혜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전화 053)255-1450,1411
팩스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유튜브 불교대학 비유디

10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등
경전공부 – 육조단경, 금강경 등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
(월 2,990원 / 교재 무료 제공)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보 현 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 (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 (상1가 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 진 규

사부대중 일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054)955-8200 ~ 1
팩스 054)955-8202

2023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희망의 새해를 만듭시다.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김도원**

부설
· 동 해 유 치 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팩스 053)623-0265
www.daesungsa.or.kr

'효' 종찰 기도도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 현**

「길따라 …
土樂 토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전화 054)931-5204

(사)한국불교선조계종

염속산 광 불 사

회주 **혜 원**
주지 **도 광**
재무 **도 웅**

사부대중일동

사훈 비교하지를 말라 | 따지지를 말라 | 의심하지를 말라

경북 김천시 조마면 금감로 678-3
전화 054)435- 988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기관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코끼리 유치원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한문화체험관
- 사.복) 진관무위원
-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지역아동센터
- 구파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한국불교태고종

군 산 성 흥 사

(부설 성흥사 불교대학)

회주 **송 월**
주지 **보 위**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6
전화 063)453-0050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성 불 사

전북지방유형문화재 제238호
석가여래행적송

주지 **월은 종명**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전화 063)445-3266

대한불교청년회
KYBA

전북지구 회장 **장석희**

전주불교청년회 회장 **윤선주**
완주송광사청년회 회장 **허 영**
익산관음사청년회 회장 **이서현**
김제불교청년회 회장 **서정호**
정읍불교청년회 회장 **강명구**
남원불교청년회 회장 **박병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高靈瓦 Goryeong Rooftile Tile Exhibition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전화 054)954-8008(代) 팩스 054)954-5335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회주 **성 일**
주지 **선 관**

부처님교화공원,
청소년수련원
불교대학, 경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전화 031)357-3916, 2695
팩스 031)357-8687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전화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성암

주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일동

음력
초하루 : 신중3일기도
초삼일 : 독성3일기도
16일 : 산신기도
18일 : 지장재일 법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3길 235
전화 02)988-1996, 9300 / www.samsungam.org

대한불교
조계종

포 교 사 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

2023 謹賀新年 계묘년

대한제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부처님 가신 길 ‘붓다로드’를 걷다

부처님!
부처님과 함께 길을 걷습니다.
2600년 전의 발자국 위에
이제야 발자국을 얹어봅니다.

부처님의 집이고 길이며
말씀이고 마음이고
끝내는 깨달음이었던 그 발자국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이제야 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제자들은
부처님의 그 길을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의 마음으로
걸어보려 합니다.
그 어떤 경전이 이보다 좋을까요.
이 세상으로 오시던 길
오직 법 하나로 견디어내신 길
아낌없이 주시고 떠나시던 길
상월결사의 이름으로 만난 저희는
이제 그 모든 길 위에서
부처님이 되어보려 합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INSIDE

B2 특집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의미
B4 · 5 특집 인도순례를 준비하는 사람들
B6 · 7 특집 미리보는 인도순례 43일
B8 · 9 특집 FOCUS ON–부처님 성지
B11 특집 수행으로 본 상월순례

붓다 성지서 우린 붓다 現身 만난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의미는



2600여 년에 이르는 불교의 역사에는 수많은 다사다난과 우여곡절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다사다난과 우여곡절을 관통하는 한마디는 '전법(傳法)' 과 '구법(求法)' 의 역사가 아닐까? 어느 나라의 불교라도 전법과 구법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고,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행과 수행 역시 전법과 구법의 노정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불교 전통들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세한 작용을 하는 것은 전법(傳法)이다. 전법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이 그 나라 불교전통의 특수성을 형성하는 근간이 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불치사리(佛齒舍利) 신앙을 강조하는 스리랑카 불교가 그렇고, 전법승에 의해 번역된 한문불전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변화했던 중국불교가 그렇다. 불교를 수용한 국가의 특수한 사정이나 구법승의 노력도 다대(多大)했지만, 전법승들이 전한 불교가 그 나라 불교전통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그런데 한국불교의 전통이 자리잡는 과정을 살펴보면 전법보다는 구법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최초기의 수용 과정을 제외하면, 한국불교의 역사적 변동을 가져온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주역을 맡은 것은 전법승이 아니라 구법승이었다. 그리고 그 구법승들이 직접 구해온 불교가 한국불교 전통의 주요 기반이 되었다. 원광과 자장은 국가불교의 기반을 닦았고, 의상은 한국 화엄의 독자적인 전통을 일구어냈고, 이들 구법승이 구해온 불교를 통해 한국불교의 사상적 기반을 세워 전법했던 원효까지. 그리고 신라 하대의 승려들은 조계 혜능으로부터 시작된 남종선의 전통을 한국불교의 새로운 사조로 융합시켜 내었다. 구산선문의 개산조들이 그 주역이었다.

5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백제의 승려 겸익은 율장을 구하기 위해 천축을 다녀왔다. 중국의 승려 의정(義淨, 635~713)은 자신이 지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서 천축을 구법 · 순례하는 과정에서 만난 동아시아의 승려 56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 8인이 신라의 승려이다. 이미 7세기 즈음에는 중국은 물론이고 천축으로 구법과 순례를 떠난 승려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들의 순례와 구법에 대한 열정, 곧 붓다에 대한 간절함,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의 한국불교를 만든 원동력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결사는 '동일한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 모인 수행자들이 한 마음으로 이루는 공동체' 이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서원은 깨달음의 근원적인 스승인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결국 불교의 결사는, 어떠한 경우이든,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을 좇아가고, 되살려내고, 시대와 장소에 맞게 재해석하는 작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2023년 새해 벽두, 서원공동체 상월결사가 인도 만행순례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좇는 것 역시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간절함이 빚어내는 당연한 행로일 것이다.

2019년 겨울, 신도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한가운데서 '중생에게 먼저 다가가는 불교' 를 기치로 내건 상월결사가 시작되었다. 임시로 마련된 비닐하우스로 된 천막선방의 차가운 한기를 뚫어낸 아홉 스님과 아홉 스님의 정진에 동참하는 열기가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달구어냈다. 그들이 외친 것은 "상월선원 정진결사,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온 세상 평화결사"이다.

'중생에게 다가가는 불교' 서원하며
2019년 이뤄진 '상월선원 천막결사'
'상월결사' 이어지며 전국 사찰 순례

2월 9일부터 43일동안 인도 대장정
부처님 발자국 따라서 걷는 순례행
그 길따라 불성 충만한 순례가 되길

상월선원 천막결사의 첫 번째 모습은 불교의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결사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천막선방에서 이루어진 아홉 스님의 정진이야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소란 한가운데라는 점, 거기에 대해 동참하는 불자들의 야단법석이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비닐 법당에서 끊임없이 펼쳐졌다. 아홉 스님을 응원하고, 정진의 열기에 동참하는 불자의 행렬이 멈추지 않았고, 세상의 이목이 가득했던 90일간의 용맹정진이었다.

그 열기의 이유는 하나로 모아진다. 스님들의 수행만을 위한 결사가 아니었던 까닭이다. 도심 한가운데로 중생들을 찾아가 중생, 아니 부처님이어야 하는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하겠다는 원력을 담은 결사였기 때문이다.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을 좇아 스님들을 찾아가는 불교가 아니라, 스님들이 먼저 찾아가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불자들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어내었던 까닭이다. 그렇게 한국불교는 '찾아오는 불교' 에서 '찾아가는 불교' 로의 첫걸음을 새롭게 내딛었다. 그것은 한국불교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찾아가는 불교' 의 당위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물길은 격랑이기 마련이다. 격랑이 아니고서야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격랑은 힘을 억제하지 않는다. 부처님이어야 하는 수많은 중생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물꼬를 튼 원력이 그 생명들에게 온전히 다 닿도록 움츠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팬데믹에 고통받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2020년 10월 7일 동화사를 출발하여 10월 27일 봉은사에 이르기까지 511Km에 이르는 21일간의 여정은 그래서 온 세상에 자비가 충만하여 뭇 생명들이 행복해지기를 염원하는 자비의 순례였다. 사찰보다는 이 땅의 생명을 가꾸어내는 산과 강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 위에서 이루어진 정진과 고행의 순례길이었다. 온 세상을 가득 채운 생명생명이 저마다 부처님이며, 부처님이기에 행복한 사람을 성취해야 한다는 서원이 담긴 사부대중의 발걸음이 도시를 지나고 마을을 지나며 원력을 일깨웠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단절된 마음과 마음들을 잇는 염원이 그 걸음걸음에 담고자 한 순례길이었다.

한국불교에는 삼보를 상징하는 사찰들이 존재한다. 이른바 삼보사찰,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가 일구어낸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종찰(宗刹)들이다. 2021년 10월 1일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를 출발하여 지리산 화엄사와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를 거쳐 10월 19일 불보종찰 통도사에 이르는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 가 진행되었다.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인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과 예방조치 가운데 이루어진 천리길에 이르는 삼보사찰 순례였다. 1700여 년 한국불교의 역사에서 전법과 구법에 나섰던 스님들이 가장 많이 걸었던 길이었고, 호남과 영남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화합을 상징하는 길이었다. 스님들이 앞서 걷고, 그 스님들의 원력에 동참하는 대중들이 끊이지 않고 함께 걸었던 구도와 화합의 순례길이 새롭게 한국불교의 성지순례길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순례' 의 상징과 의미가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상월결사의 이름으로 평화방생순례가 전국 각지의 사찰에서 끊이지 않고 진행되었다. 이제는 순례가 수행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순례라는 이름으로 성지를 찾고, 뭇 생명들을 찾아 일깨우는 것이 불자들의 중요한 덕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가장 일찍 순례가 시작된 종교를 꼽으라면, 역시 불교일 것이다. 붓다의 열반 이후에 근본 8탑을 비롯하여, 부처님의 행적이 남은 유적지들이 일찍부터 스님들과 불교도들의 순례대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차츰 성지가 되었다. 불교가 인도라는 경계를 벗어났을 때부터 벌써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붓다의 성지는 순례의 대상이었다.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을 좇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성지보다 더 붓다의 가르침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곳은 또 없었을 것이기에, 당연한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붓다가 새기고, 불교도들이 붓다를 새긴 그 성지에 상월결사가 서원공동체의 이름으로 만행순례를 시작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상월결사가 보여주었던 행보를 생각하면, 상월결사가 보여줄 인도 만행순례 역시 남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버스 타고 하는 순례길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부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걷는 순례행이기에 더욱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순례단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례단이 만나는 성지 한 곳 한 곳에 있는 불탑들이, 부처님을 기념하는 기념물이나 기념비가 아니라는 점을. 인도의 불교도들에게는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불교도들이 순례했던 성지의 불탑은, 불탑이 아니라 부처님 그 자신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말이다. 부처님의 열반 이후, 그 자리에 이르렀던 순례자들은 거기에서 자신들을 찾아오셨던 부처님의 현신(現身)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한 곳 한 곳이 부처님이 우리들 중생을 찾아오셨던 바로 그곳이다. 순례단이 걷는 성지와 성지를 연결하는 길들은, 부처님이 중생을 찾아 맨발이 부르트도록 굳은살이 박혀도 멈추지 않았던 그 길이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은 중생을 찾아 45년 동안 교화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 이제 그 길에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 를 서원하는 공동체 상월결사의 이름으로 걷는 것이기에, 한마음 가득 '부처님이어야만 하는 중생들' 로 가득 찬 발걸음이었으면 좋겠다.

마침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그 50년은 불교가 이 땅에 전해지고, 이 땅의 불교인들이 붓다와 붓다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온 2000년의 역사를 품고 있기도 하다.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길을 되밟는 발걸음이 시작된다. 그 발걸음 안에 '부처님이어야 하는 중생들' 과 그 중생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온 세상 평화결사의 서원이 충만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저마다의 부처님이 온 세상에 충만하는 순례가 되기를 서원한다.



석길암 /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교수



나누면 따뜻해요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

계묘년 한 해,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2020년 만행결사 예비순례에서 참가자들이 도열해 걷고 있다. 상월결사 순례는 '불교중흥'의 기치 아래 정진하고 걷고 있다.

'불교중흥' 원력으로 정진하고 걷다

천막부터 인도까지 상월결사 4년 여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붓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2019년 11월 11일. 아홉 스님의 의지는 결연했다. 눈과 비, 혹한의 추위를 겨우 피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아홉 스님의 치열했던 동안거는 시작됐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무연 · 성곡 · 진각 · 호산 · 심우 · 재현 · 도림 · 인산 스님은 위례신도시 포교거점사찰 건립용지에 마련된 천막법당 '상월선원'에서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용맹정진을 진행했다.

아홉 스님 정진… 상월결사 효시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퇴임 이후 2차례 백담사 무문관에서 동안거 정진을 했던 자승 스님의 "안거 한철만이라도 치열하게 정진해보자"는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들 스님들은 천막법당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옷 한 벌만 허용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 ·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천막 벗어나지 않기 △묵언 등을 골자로 한 청규를 정하고 스스로를 가둔 채 수행에 매진했다.

아홉 스님들은 새벽 2시 기상해 죽비로 예불을 올리고 하루 14시간 정진을 이어갔다. 정진은 50분 참선, 10분 포행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극한 환경에서의 수행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진 대중의 정진력은 날카로워져갔다. 한 끼 공양마저 마다하고 곡기를 끊고, 두부 4쪽 · 방울토마토 3개 · 나물무침 2젓가락만 섭취하는 스님도 있었다. 70여 일이 지날 즈음에는 대중스님 중 한 명이 의식을 잃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했지만, 정신을 차린 스님은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정진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 같은 아홉 대중스님의 정진력은 결사의 원동력이었고, 이는 대중들을 감화시켰다. 2019년 11월 11일 입재 이후 한 달여 만에 5만여 사부대중이 전국에서 모였고, 회향까지 10만여 명이 스님들의 정진에 함께했다. 스스로 체험관에서 무문관 수행을 한 불자들도 110명에 달했다. 2020년 2월 7일 닫혀있던 천막의 문이 열리고 비로소 아홉 스님들이 세속으로 나오며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회향했지만, 아홉 스님의 정진은 불교중흥의 기치 아래 만행결사 자비순례(2020) · 삼보사찰 천리순례(2021) · 평화방생순례(2022) · 인도순례(2023)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됐다.

천막결사 이후 이어진 자비 · 삼보순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회향 후 3개월 뒤 새로운 만행결사가 시작되려했다. 상월선원 총도감 호산 스님과 지객 원명 스님은 2020년 5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월선원Ⅱ 만행결사' 계획을 밝혔다.

'상월선원Ⅱ 만행결사'는 2020년 11월 17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인 녹야원 · 부다가야 · 룸비니 등을 도보로 순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총 거리 1080km, 하루에 평균 30km를 걷는 대장정이었다.

순조롭게 준비되던 상월선원 시즌2 만행결사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인도 만행결사를 위한 준비는 이어졌다. 상월결사는 11월경 인도 날씨와 가장 비슷한 2020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예비순례를 진행했다. 예비순례 참가자들은 예정된 인도 만행결사의 일정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걷고 모여서 토론했다. 하지만 인도로 가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상월결사 4년 연보

2019년

- **11월 11일** 상월선원 천막결사 안거 입재. 자승 · 무연 · 성곡 · 진각 · 호산 · 심우 · 재현 · 도림 · 인산 스님 방부
- **12월 7일** 조계사 · 봉은사 · 봉국사 외호대중 중심으로 첫 철야정진 및 첫 대중 무문관 체험 실시

2020년

- **2월 7일** 상월선원 천막결사 90일 정진 해제. 회향법회
- **5월 21일** 상월결사, 기자간담회 열고 '상월선원Ⅱ 만행결사' 계획 발표. 11월 17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 간 부처님 성지인 녹야원 · 부다가야 · 룸비니 등 총 1080km를 도보로 순례.
- **7월 27일~7월 31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서 인도 만행결사 예비 순례 진행.
- **8월 27일** 상월결사,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500km의 대장정인 '불교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로 전환 발표.
- **10월 7일** '불교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 동화사서 입재.
- **10월 26 · 27일** 서울 봉은사 입성 후 위례 상월선원서 회향
- **11월 11일** 상월결사 1주년 기념식. 62명 순례 완보자들에게 완보증서와 사진첩 수여

2021년

- **8월 26일** 상월결사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정 발표
- **10월 1일** 승보종찰 송광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
-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
- **11월 11일** 상월결사 2주년 기념법회

2022년

- **3월 17일** 조계종 · 상월결사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캠페인
- **3월 23일** 대흥사서 '평화방생' 순례 시작. 평화방생 순례는 4월 월정사, 5월 백양사, 7월 법주사, 8월 은해사, 10월 화엄사로 이어짐.
- **4월 23일**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대웅전 상량식
- **6월 27일** 상월결사,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20만 달러 기금 전달
- **11월 11일** 상월결사 3주년 법회를 이태원 참사 추모 법회로 전환
- **12월 18일** 사단법인 상월결사 창립총회

2023년

- **2월 9일~3월 2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2019년 11월 11일 천막결사 시작
아홉 스님 정진, 만행결사 동력돼
코로나 창궐로 국토 순례로 전환
시대의 아픔 보듬는 순례, 자비행
법인화 통해 각종 포교사업 추진

상월선원 만행결사 대중은 2020년 8월 27일 간담회를 열고 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한 500km 대장정인 '불교 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 계획을 처음 밝혔고,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순례를 진행했다. 동화사에서 시작된 자비순례는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낙단보 마애불-문경새재-서울 봉은사를 거쳐 결사의 시작점인 위례 상월선원을 다시 찾으며 마무리됐다.

순례단은 매일 수십km를 걷느라 힘든 와중에도 한국불교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10월 15일에는 문경 STX리조트에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교계 안팎의 학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10월 23일에는 양평 소노문리조트에서 2차 대중공사가 열렸다.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1년 뒤인 2021년 8월 26일 새로운 대장정 계획이 발표됐다. 상월결사는 이날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불교의 기본인 삼보에 대한 예경과 이를 통한 불교중흥의 발원이 담겨 의미를 더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발원한 것은 불법승 삼보의 존귀함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함"이라며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승보로 출가, 법보로 수행, 불보로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10월 1일 송광사에서 출발한 삼보순례단은 사성암-화엄사-해인사 등을 거쳐 10월 18일 통도사에서 순례를 회향했다.

순례 코스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순례를 입재한 송광사에서는 괘불재가 봉행됐다. 송광사 괘불은 1961년 일섭 스님 등 13명의 화승이 조성한 것으로 60년 만에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사성암에서는 '길 위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스토리텔링 공연이 진행됐으며, 화엄사에서는 화엄음악제가 열렸다.

상월결사, 'Phase2' 준비하다

2022년은 전쟁과 자연재해 등 환난으로 점철됐다. 상월결사는 환난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방생' 순례와 조계종과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캠페인들을 전개했다. 평화방생순례는 3월 대흥사를 시작으로 4월 월정사, 5월 백양사, 7월 법주사, 8월 은해사, 10월 화엄사로 이어졌으며, 매회차마다 2000여 명이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6월 27일 상월결사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구호 기금 20만 달러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했다.

2022년은 상월결사의 수행과 각종 사업의 기반이 놓여진 해이기도 했다. 4월 23일에는 상월결사의 중심터전 될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대웅전 상량식이 봉행됐다. 구랍 18일에는 상월결사 사단법인 창립총회가 열렸다.

사단법인 상월결사 이사회에는 이사장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상임이사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총무부장 호산 스님(상월결사 총도감), 정충래 동국대 이사,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2023년부터 상월결사는 대학생 포교 사업을 비롯해 '상월포럼'과 '상월아카데미' 등을 새롭게 시작한다. 상월포럼에서는 매분기 정기포럼과 지역본부별 포럼, 각종 학술대회와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자료 발간을 진행한다. 상월아카데미는 상월결사 체험프로그램, 상월결사 학술연구, 유튜브와 SNS활성화, 회원사찰 홈페이지 관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묘년 새해에는 3년여간을 준비한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비로소 이뤄진다. '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순례는 오는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43일간 진행된다. 순례코스는 인도, 네팔의 부처님 탄생부터 열반지까지 부처님 8대성지를 순례하는 길이며 그동안의 상월결사 순례와 마찬가지로 길 위에서 먹고 자고 행선하며 부처님처럼 전법수행을 펼친다.

천막법당에서 시작한 상월결사는 국토를 도보순례하며 국난극복과 불교중흥, 세계평화를 발원하는 무차(無遮)의 법석으로 나아갔다. 4년의 여정은 걸음마다 중생 행복을 위한 서원이 담겼다. 그 걸음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2023 謹賀新年 계묘년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 org |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인도 순례 준비 하는 사람들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상월결사 인도순례, 불교중흥 이끌 불사”

3년 동안 준비, “기대 반 걱정 반”
“원불 모시고 순례… 처처가 도량”
청규와 수칙, 결사공동체 이끄는 힘

“상월선원 천막결사 시즌1이라면
인도순례는 시즌2의 하이라이트
모인 동력으로 시즌3 불사 추진”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결사의 시작을 함께한 스님이다.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위례신도시 천막법당에서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함께 동안거 용맹정진한 아홉 스님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천막결사 당시에는 지객 소임을 맡았던 호산 스님은 만행결사로 불사가 확장되며 순례 전반을 책임지는 총도감의 소임을 맡았다.

상월결사 자비순례(2020) · 삼보사찰 천리순례(2021) · 평화방생순례(2022)가 모두 성공적으로 회향할 수 있던 것은 총도감인 호산 스님의 역할이 컸다. 반대로 2월 9일 시작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대한 책임감도 막중하다는 의미다.

사실, 상월결사에게 부처님 성지가 허락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20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됐던 ‘상월선원 II 만행결사’는 45일간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인 녹야원 · 부다가야 · 룸비니 등을 도보로 순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총 거리 1080km, 하루에 평균 30km를 걷는 대장정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인도 만행결사는 국난극복 · 불교중흥 자비순례로 전환됐다. 이후에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평화방생순례로 이어졌다.

“태화산 예비순례를 마치고도 코로나19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절반 정도의 거리를 순례해보자는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국난극복 · 불교중흥 자비순례였죠. 이후에는 불 · 법 · 승 삼보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기획된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부처님 성지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3년을 준비했지만 출발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 등이 걱정되지만, 순례가 기다려집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43일간 진행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조계종이 주최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이는 상월결사가 사단법인이 되고 종단 등록을 했기에 가능했다. 호산 스님은 조계종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대작불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전 순례가 상월결사라는 하나의 결사공동체의 불사였지만, 이제는 조계종이 주최로 함께하는 불사가 됐습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정진불사이자 포교불사이고,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 불사입니다. 사찰 전각을 짓고 외연을 넓히는 하드웨어적인 불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포교와 미래 인재 등 소프트웨어적인 불사가 더 이뤄져야 합니다. 포교를 위해, 불교 중흥을 위해, 사부대중이 일념으로 걷기 정진을 하는 것은 우리 종단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여의 과정에 부침이 많았을 것 같다’는 질문에는 호산 스님은 곧바로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다”라는 답을 내놨다.

“인도로 답사팀이 다녀왔는데 도로 사정이 매우 안 좋고, 치안 등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기에 이 순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그냥 힐링 여행일 뿐입니다. 순례 대중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혼자 걷는 것보다 원력을 가진 10명이, 10명보다는 100명의 대중이 더 힘이 납니다. 저는 상월결사 순례대중의 원력을 믿습니다.”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이르는 곳곳이 모두 도량이고 수행처일 것임을 강조했다. 스님에 따르면 순례단은 ‘원불’을 모시고 인도로 출발하고, 43일의 순례기간동안 항상 ‘원불’이 선두로 순례가 진행되며 숙영지, 숙소마다 원불을 모시고 예불하며 108배를 하게 된다. 호산 스님은 “항상 부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순례단이 가는 곳이 모두 도량”이라며 “순례 원불은 향후 상월선원 법당에 봉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월결사 순례만의 청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번 인도순례에는 △스님은 행선 시 승복과 대가사를 수할 것 △행선 시 묵언 △참가자는 염송, 화두, 진언, 염불 등의 수행을 할 것 △휴식 시 낮은 목소리로 대화 △제공받은 공양물을 남지 않기 △마스크 항시 착용 △행선 시 휴대전화 금지 △대중 화합이 청규로 제시됐다.

15개 조항의 생활수칙도 타이트하다. 행선 시 108염주를 항시 수지해야 하며, 매일 새벽 2시 기상 후 행선 출발은 새벽 3시에 이뤄진다. 아침 공양은 오전 7시, 점심 공양은 정오, 저녁 공양은 오후 6시로 정해졌다. 문란행위, 청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퇴방 조치 등도 명문화됐다.

“천막결사부터 일련의 순례까지 모두 청규가 있는 것은 모두 회주 자승 스님의 영향입니다. 자승 스님께서는 ‘이 같은 결사는 금생에 한 번 있는 일이고, 스님 생활하면서도 한 번밖에 없는 경험’임을 강조하시며 ‘스스로에게 엄격한 수행이 순례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청규와 수칙들은 결사공동체가 함께 정진하기 위한 힘입니다.”

상월결사는 지난해 12월 사단법인화를 완료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순례는 상월결사의 새로운 시즌이기도 하다.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시즌1이라면 인도순례는 시즌2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례를 통해 모인 동력으로 시즌3 불사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즌2가 원만 회향돼야 새로운 시즌3도 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례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영감도 있을 것입니다. 순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가 보일 것 같습니다. 순례를 통해 문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40여 일 남은 순례 일정에 따라 호산 스님도 틈틈이 준비하기 시작했다. 인도 순례를 가는 비구니스님들이 주말이면 수국사를 찾아 하루 6시간 좌선과 2시간 행선을 하는데, 호산 스님도 참여하고 있다. 새벽 108배 수행도 빠지지 않고 있다.

“세수 79살이 되시는 무상 스님도 인도 순례에 동참하십니다.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신의 문제입니다. 설사 수행을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꼭 걸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총도감으로서 순례단이 모두 무사하고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회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원력이고 바람입니다.”

호산 스님은…종진 스님을 은사로 1980년 수계(사미계)했으며, 상원사, 용문사 주지 및 제16 · 17대 중앙종회 의원, 중앙종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부장, 수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상월결사 총도감으로 이번 인도순례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興天寺 사부대중일동

삼각산 흥천사에서 기도하시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흥천사 대방 설경(국가등록문화재)


흥천사 전법회관

주소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전화 02)929-6611~2 팩스 02)921-1626

“내딛는 순례단 걸음이 불교 미래 여는 초석”

2020년부터 상월결사 순례 참여
어려웠지만 대중과 함께해 완주
1167km 인도순례에도 ‘자신감’
틈틈이 다리 근력 키우기 훈련
“인도순례는 불교 중흥 시작점”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3년 전 태화산 예비순례를 마치고 자자회 때 언젠가 현실이 될 인도순례 회향식에 함께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했습니다. 이제 그 희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 보다는 설레는 마음입니다. 구랍 18일 인도순례단 오리엔테이션에서 박기련 지원단장이 언급했지만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순례문화를 창달한다는 자부심이 우리 순례단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습니다.”

정충래 동국대 이사는 2월 9일 시작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에 참여하는 소회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2019년 정년퇴임 후 교단을 내려온 정충래 이사는 은퇴 후 별다른 계획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다가 인연이 닿은 것이 상월결사이다. 그는 천막결사 때부터 상월결사와 함께 해오고 있다.

“아홉 스님이 ‘침몰하는 우리 불교를 되살려야 한다’ 는 절박한 불교중흥의 발원에 재가불자로서 십분 공감했습니다. 그때 야간호법을 책임지는 역할로부터 시작해 공주 예비순례 때부터 국내 순례를 이어오며 재가 참가자를 대표하는 역할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인연은 2020년 자비순례, 2021년 천리순례로 이어졌다. 자비순례가 500km, 천리순례가 423km의 거리. 모두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자비순례 초반에는 매일 장거리를 걷는다는 부담과 풍찬노숙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힘들었고, 천리순례는 날씨로 인해 애를 먹었다. 그래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사부대중이 함께해서”라는 게 그의 대답이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정과 여건이었습니다만 참가 사부대중 모두가 한마음이 되니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죠. 끝날 때까지 발에 생기는 물집의 아픔도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극제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순례단원끼리 서로서로 다독여 주면서 힘을 내기도 하고, 순례단을 응원하며 눈물까지 흘리시던 많은 신도들의 간절함을 이심전심으로 알 수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완보할 수 있었습니다.”

43일간 이뤄지는 인도순례는 총 거리가 1167km로 앞선 두 번의 순례를 합친 것보다도 길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적지 않다. 여기에 정충래 이사는 우바새를 대표해 7조 조장을 맡았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다. 이에 정충래 이사는 “틈틈이,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도리어 순례지원단의 노고에 비하면 걷기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다.

“걷는 거리가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시간을 내서 나름 훈련하면서 다리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이야 있겠지만, 사부대중이 함께 움직이며 불교중흥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잊지 않으면 완보하리라 확신합니다. 오히려 더 강한 극복의지가 생겨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보하리라 확신합니다. 저희보다 더 고생하는 분들이 순례지원단입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지원단의 노고와 희생이 없으면 순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안전 확보부터 궂은 뒷바라지까지 그분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조차 꺼내기 부끄럽지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정충래 이사의 걷기 사랑은 유명하다. 이는 상월결사 순례를 통해 얻어진 변화다. 그는 걷기 전날 밤 다음날 입을 옷을 챙겨놓고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병을 갖고 집을 나선다. 일단 집을 나서면 3~4시간에 걸쳐 약 15km를 걷는다. 주로 걷는 곳은 한강변과 올림픽공원이다. 일주일 단위로 체크해 40km 이상은 걷는다는 목표도 있다. 그가 걷는 것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은 예전에 볼 수 없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다.

“걷기를 하며 느낀 것은 생각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타며 다닐 때는 볼 수 없던 풍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길가에 핀 꽃부터 나무, 풀, 돌맹이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산하대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자비심도 생겨납니다. 걷고 나면 일단 그 날, 그 주의 최우선 과제를 해결했다는 마음이 또 걷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지요.”

상월결사 순례는 정충래 이사를 불교 현장으로 이끌었다. 그는 현재 중앙신도회 임원으로서 포교환경에 더욱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상월결사 순례 이후 중앙신도회 임원으로서 우리 종단의 포교활동 면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수미산원정대 등 신행활동에도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교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직의 불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충래 이사는 상월결사에서 추진하는 일련의 순례인 자비순례, 천리순례, 인도순례를 한국불교 변화의 이정표로 보고 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불교, 그래서 우리 중생에게 찾아오는 불교, 현실 생활과 함께 호흡하는 불교, 신도들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상월결사 순례 시리즈라는 것이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인도순례는 부처님 당시의 불교 유적지를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나부터 변화해야 하듯이, 우리 불교를 바꾸기 위해 그 변화의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의식이라 봅니다. 부처님께서 평생을 강조하셨던 전법의 수레바퀴를 지금 우리 현실 상황에 맞게 다시 힘차게 굴려야 한다는 의지를 부처님께 약속하러 가는 것입니다.”

정충래 이사는 3년 전 자비순례 처음 출발할 당시 삼독심 중 진(嗔)을 내려놓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아무리 어렵고 불편해도 화내지말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이번에는 삼독심 중 탐(貪)을 내려놓을 것을 발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더하는 것에 밤잠을 잊어가며 노력하고 시간을 써왔지만, 이제는 덜어내는 삶을 가질 나이가 되어서다.

“걸으며 늘 생각하고 서원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큰 발원은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불교중흥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것입니다. 인도순례가 끝난다고 내 과업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중흥의 시작점에 서기 위해 가지는 일련의 과정이라 봅니다. 인도순례는 개인을 위해 걷는 행사가 아닙니다. 삼천리 거리를 내딛는 발걸음마다 우리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걷겠습니다.”

인도 순례 준비 하는 사람들

정충래 동국대 이사

정충래 이사는…대전 출생으로 충남고와 동국대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영석고가 동국대 사범대 부속고로 편입된 후 내부공모를 통해 뽑힌 첫 교장으로 영석고가 지역 명문으로 발전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사)날마다좋은날 이사로 활동 중이다.



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

인도순례 하루 일과

02:00	기상
02:40	새벽예불/몸풀기 체조
03:00–07:00	행선 (50분 행선/10분 휴식)
07:00–08:00	아침공양
08:00–12:00	행선 (50분 행선/10분 휴식)
12:00–12:30	숙영지 도착 및 일일순례 회향
13:30–17:00	개인정비 및 자율정진
17:00–18:00	저녁공양 및 108배
18:00–19:00	저녁공양
19:00–20:00	개인정비 및 자율정진
20:00	취침

상월결사 인도순례 청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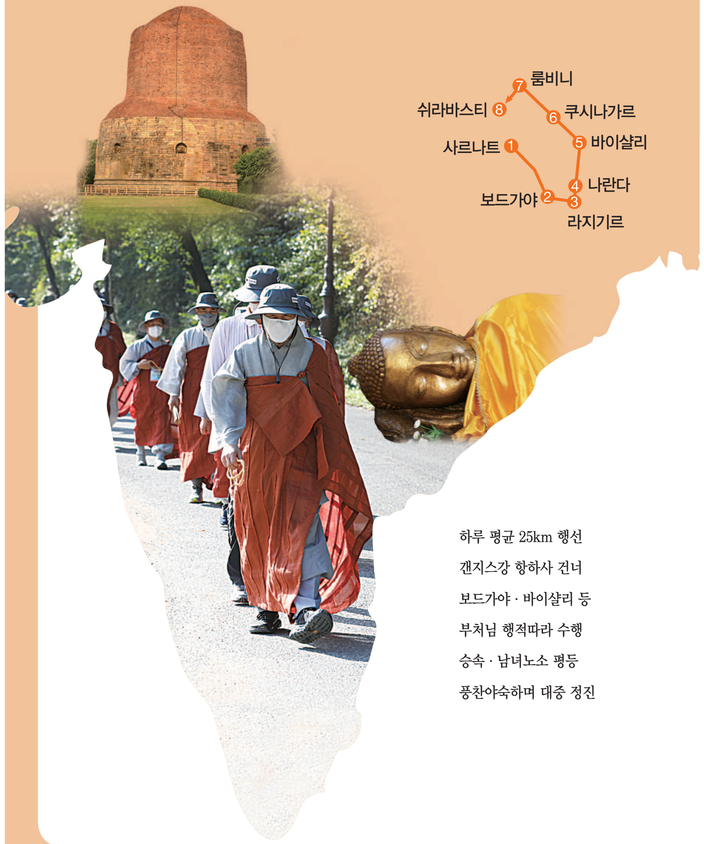
인도순례 청규

1. 스님은 행선시 승복과 대가사를 수한다.
2. 행선시 묵언한다.
3. 참가자는 염송, 화두, 진언, 염불 등의 수행을 한다.
4. 휴식시 낮은 소리로 대화한다.
5. 제공받은 공양물은 남기지 않는다.
6. 마스크를 항상 착용한다.
7. 행선시 휴대전화 사용금지. 야영지 등에서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한다.
8. 대중들은 화합하여 모두가 원만회향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처님 깨닫고 가르침 전한 길”…순례단 108명, 43일 1167km 대장정

〈2, 9~3, 23〉

미리 보는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



하루 평균 25km 행선

갠지스강 항하사 건너

보드가야 · 바이샬리 등 부처님 행적따라 수행

승속 · 남녀노소 평등

풍찬야숙하며 대중 정진

새벽 3시 출발, 텐트서 숙박하며 길위서 정진

부처님이 걸었던 전법길을 따라가는 상월결사 인도성지순례는 43일 동안 1167km를 직접 걷는 대장정이다. 매일 새벽 3시 출발, 하루 평균 25km씩 무더위와 싸우며 강행군을 하게 된다. 기내 1박을 제외한 현지 42박 중 숲과 학교 공터 등에서 텐트로 29박을 하고, 목욕과 빨래 등 개인 정비를 위해 숙소에서 12박을 하게 된다. 출가자 재가자, 남녀노소 모두 차별없이 평등하게 길 위에서 걷고 먹으며 정진하게 된다.

녹야원서 결사 발원

순례는 서울 인천에서 에어인디아를 통해 델리에 도착하는 2023년 2월 9일부터 시작이다. 2월 10일 델리에서는 다시 인도 국내선 비행기로 바라나시로 이동한다. 바라나시에서는 녹야원이 있는 사르나트로 약 25km를 차량으로 이동한다. 이날 순례단은 영불탑과 녹야원을 순례하게 된다.

본격적인 순례는 2월 11일 사르나트 녹야원에서의 ‘원만회향 발원 기도 및 입재식’으로 시작된다. 입재식 후 사르나트를 출발한 순례단은 6km를 걸어 갠지스강 선착장에 도착한다. 하선장까지 약 4km를 갠지스강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는 부처님 전법행에서 갠지스강을 건넌 일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다. 배를 건너 도착하는 모래언덕이 모래섬 항하사로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업을 씻는다고 전해진다. 람나가르에 도착한 순례단은 2월 12일 다시 출발해 카코리아에서 쉬브람푸르, 바부아, 체나리, 사사람, 손나가르, 파르사, 엄어와, 카파시야를 거쳐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에 21일 도착한다. 보드가야에서는 마하보디대탑과 수자타마을을 순례한다. 보드가야에 이르러서 10일만에 숙소에서 숙박을 하게 된다.

보드가야에 도착한 순례단은 2월 22일 기도법회와 함께 막간 휴식을 취한다. 보드가야에서 초반부의 힘든 여정을 잠시 쉬며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순례단은 2월 23일 다시 순례를 이어 보드가야에서 카이야, 비까이푸르를 거쳐 25일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영축산이 있는 라지기르에 도착한다. 라지기르에서는 영축산 기도법회와 함께 죽림정사, 아자트사투르 스투파 참배가 진행된다.

2월 26일에는 라지기르를 출발해 나란다 대학터를 거쳐 케웨이, 나가르나우사, 하지푸르에 도착한다. 이날은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중 하나인 파트마 간디교를 순례 중 건너게 된다.

기원정사서 결사회향

하지푸르에 도착한 순례단은 3월 1일 바이샬리에 도착한다. 1167km의 전체 순례 일정 중 513km를 순례한 사실상 반환점이다. 먼저 바이샬리에서 순례단은 근본사리탑터와 대립정사터를 참배한다. 이어 3월 2일 바이샬리에서 다르파리, 케사리야, 사다우아, 고팔간지, 두바울리야, 삐뻐라까냐나를 거쳐 3월 8일 부처님 열반지인 쿠시나가르에 당도한다. 여기서는 열반당과 다비장 참배가 진행된다. 3월 9일 쿠시나가르에서는 보드가야 때와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기도법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순례단은 3월 10일 쿠시나가르를 출발하여 세마라, 하르푸르, 브랏터와, 코리아를 거쳐 3월 14일 네팔 국경을 통과해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 도착한다.

순례단은 룸비니에 도착 즉시 기도법회를 열고, 룸비니 동산을 참배한다. 3월 15일 룸비니를 출발한 순례단은 다시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와 카필라바스투를 거쳐 피프라흐와 파르사, 지기나마피, 서드와푸르, 두르가푸르를 통해 3월 20일 회향지인 쉬라바스티에 당도한다.

쉬라바스티에 도착 전 천불화현탑 참배가 진행되며 쉬라바스티에서는 기원정사에서 기도 및 회향법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43일 일정요약 : 현지 42박 중 숙소 12박, 텐트 29박, 기내 1박

일자	도시	이동수단	도보이동 거리Km	숙영지	비고
1일차	인천–델리	국제선/차량		숙소	
2일차	델리–사르나트	국내선/차량	25km	숙소	숙소 2곳이용
3일차	사르나트(녹야원)–람나가르	도보/보트/도보	16km	텐트	입재/갠지스강 보트
4일차	람나가르–카코리아	도보	24Km	텐트	
5일차	카코리아–쉬브람푸르	도보	25Km	텐트	
6일차	쉬브람푸르–바부아	도보	26Km	텐트	
7일차	바부아–체나리	도보	29Km	텐트	
8일차	체나리–사사람	도보	30Km	숙소	숙소 2곳이용
9일차	사사람–손나가르	도보	24Km	텐트	
10일차	손나가르–파르사	도보	26Km	텐트	
11일차	파르사–엄어와	도보	23Km	텐트	
12일차	엄어와–카파시야	도보	22Km	텐트	
13일차	카파시야–보드가야①	도보	21Km	숙소	
14일차	보드가야②			숙소	
15일차	보드가야–카이야	도보	25Km	텐트	
16일차	카이야–비까이푸르	도보	27Km	텐트	
17일차	비까이푸르–라지기르(영축산)	도보	24Km	숙소	
18일차	라지기르–케웨이	도보	28Km	텐트	나란다대학터
19일차	케웨이–나가르나우사	도보	26Km	텐트	
20일차	나가르나우사–파트나–하지푸르	도보/차량/도보	61km	텐트	파트나/간디교(7.5Km)
21일차	하지푸르–바이샬리	도보	25Km	숙소	
22일차	바이샬리–다르파리	도보	28Km	텐트	
23일차	다르파리–케사리아	도보	26Km	텐트	케사리아 대탑
24일차	케사리아–사다우아	도보	26Km	텐트	
25일차	사다우아–고팔간지	도보	24Km	텐트	
26일차	고팔간지–두바울리아	도보	24Km	텐트	
27일차	두바울리아–삐뻐라까냐	도보	24Km	텐트	
28일차	삐뻐라까냐–쿠시나가르①	도보	24Km	숙소	
29일차	쿠시나가르②			숙소	
30일차	쿠시나가르–세마라	도보	27Km	텐트	
31일차	세마라–하르푸르	도보	24Km	텐트	
32일차	하르푸르–브랏터와	도보	26Km	텐트	
33일차	브랏터와–코리아	도보	26Km	텐트	
34일차	코리아–룸비니(네팔)	도보/차량/도보	42Km	숙소	인도–네팔국경통과
35일차	룸비니(네팔)–피프라흐와	도보	26Km	텐트	제2의국경 협조
36일차	피프라흐와–파르사	도보	27Km	텐트	
37일차	파르사–지기나마피	도보	27Km	텐트	
38일차	지기나마피–서드와푸르	도보	25Km	텐트	
39일차	서드와푸르–두르가푸르	도보	24Km	텐트	
40일차	두르가푸르–쉬라바스티(기원정사)	도보	26Km	숙소	천불화현탑/회향
41일차	쉬라바스티–럭나우	차량	178Km	숙소	
42일차	럭나우–델리	차량/국내선			
43일차	델리–인천	국제선			

생활 수칙

1. 행선시 108염주를 수지한다.
2. 새벽 2시 기상, 행선 출발은 새벽3시, 취침은 오후8시
3. 행선 출발과 회향 신호는 죽비 3타로 한다.
4. 아침공양은 오전7시 점심공양은 낮12시, 저녁공양은 오후6시
5. 모자는 자비순례 문구가 새겨진 통일된 모자만 착용한다.
6. 휴식을 위한 멈춤이나 출발은 호루라기로 하고, 갑작스런 멈춤이나 행위시에도 호루라기를 사용한다.
7. 공양시 한줄로 거리 간격을 두면서 조용히 질서를 유지한다.
8. 우천시 판초우의 착용을 우선하며 우산 사용은 자제한다.
9. 새벽 행선시 손전등 또는 헤드랜턴을 반드시 사용한다.
10. 스틱 사용시 앞사람과 뒷사람을 배려하여 안전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11. 순례에 중대한 누를 끼치거나 문란행위 또는 상습적인 청규 위반시 퇴방한다.
12. 청규에 없는 상황이나 규칙은 운영위를 통하여 변경 또는 제정되며, 회주 스님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13. 조원이 다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시 조장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조장은 지원단이나 도감 스님 내지 회주 스님께 직보한다.
14. 꼭 필요한 물품 구입시 조장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15. 가능한 빨래와 사워는 숙소 이용시에만 한다.







순례 코스서 만날 주요 불교성지



순례처 곳곳마다

총 길이 1,167km. 서울과 부산을 편도로 3번 가는 만만찮은 거리이다. 그 고행의 순례길 43일간의 대장정이 2월 9일 드디어 닻을 올린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걸었던 붓다로드의 궤적을 직접 좇으며 발자취를 새긴다.

〈C9에 계속〉



순례자들이 모이는 도시

바라나시(순례단 도착지) 바라나시는 강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도시이다.

여기에서 시간의 흐름은 강가와 같은 장구한 윤회를 걷는 것 같고, 모든 작은 길은 강변으로 통하고 있어서 설사 길을 잃는다고 해도 순례자들을 어느 사이엔가 강변으로 데려갈 것이다.

힌두 신앙에 의하면 강가의 성스러운 물에서 목욕 하면 모든 죄가 씻기고, 이곳에서 죽어 그 재를 강가로 흘려보내면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얻는다고 믿는다. 이것은 힌두교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처님 머물며 法을 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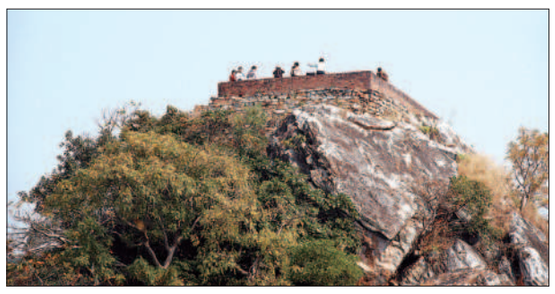
라즈기리(영축산 기도법회/죽림정사, 아자트사투르 스투파)

라즈기리(王舍城)는 석존 당대 강국이던 마가다(Magadha) 왕국의 수도였다. 부처님께서 이곳에 도달했을 때, 당대의 왕 빔비사라가 그의 거룩한 모습에 감복해 자기 국토의 일부를 떼어줄테니 이곳 라즈기리에 머물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이에 빔비사라왕은 이후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이곳을 방문해 그 깨달음을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깨달음을 얻게 된 부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곳에 와 빔비사라 왕과 12만명의 바라문 및 장로들에게 설법을 펼쳤다.



인도 대표하는 성스러운 강

갠지스강 힌두교도들이 성스러운 곳으로 숭배하는 강이다. 우타르프라데시 주 북쪽 끝에서 발원하는 바기라티 · 알라크난다 · 만다키니 · 다울리강가 · 핀다르 강의 합류로 형성되며, 우타르프라데시 · 비하르 · 서벵골 주에 걸쳐 있는 갠지스 평원을 가로지르며 남동쪽으로 2,510㎞를 흐른다. 우타르프라데시 중에서 야무나 · 람강가 · 가가라 강, 비하르 중에서는 간다크 · 부르히간다크 · 코시 강 등 주요지류를 받아들인 후 방글라데시 중부에 들어선 갠지스 강은 북동쪽 하구에는 이 많은 분류들이 벵골만으로 유입되면서 형성된 너비 320㎞의 삼각주가 인도와 방글라데시 양국에 걸쳐 펼쳐져 있다.



부처님 대표 경전 설법처

영축산 부처님께서 라즈기리에 머물때마다 즐겨 주석하셨던 곳으로 법화경 및 보적경, 대집경, 허공장경등 대승경전에 속하는 많은 경전이 행해진 곳도 이곳이다. 현재 이곳 영축산 정상부에는 1903년에 복원된 설법좌, 즉 여래향실의 기단부만이 남아있고 출토 유물들은 나란다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이곳으로 올라오는 길은 부처님의 편의를 위해 빔비사라왕이 닦았다는 것으로 두개의 작은 탑이 남아 있다. 첫번째 탑은 석존을 뵈러 오르던 빔비사라 왕이 수레에서 내려 걷기 시작한 자리임을 알리는 것이고 두번째 탑은 빔비사라 왕이 시종마저 배재하고 홀로 부처님께 향했던 자리임을 알리는 것이라 한다.



처음으로 불법 전하다

녹야원(사르나트)=원만회향 발원 기도 및 입재식

석가모니가 최초로 불법을 전한 땅으로 유명한 녹야원(사르나트)은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같이 수행한 5명의 형제들과 처음으로 불법을 이야기한 곳이다. 그 안에는 다메크 스투파라 불리는 불탑과 큰 수도원의 흔적, 고고학박물관등이 함께 위치해 있다.

초전법륜(初傳法輪)지라고도 불리는 녹야원은 옛 경전에 녹야원으로 기록돼 있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왕이 이곳에다 사슴을 풀어놓고 살도록 했다고 해서 이름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포교활동 전초기지

죽림정사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 현 인도땅의 동북지방에 있던 (마가타)국의 수도인 라자그라하(일명 왕사성)는 부처님께서 최초로 본격적인 불교 포교활동을 벌이신 곳으로서 이곳 영축산은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법하신 것으로 유명하고 또 당시 마가타왕국의 국왕 빔비사라왕이 기증해 부처님과 제자들이 우기에는 이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모아 가르쳤다는 죽림정사터가 이곳에 있다. 당(唐)의 현장 스님은 〈대당서역기〉에서 죽림정사 서남쪽으로 5~6리 가면 남북쪽 큰 대나무 숲 속에 커다란 석실이 있다고 언급하고, 이곳이 마하가섭 존자가 대아라한 999명과 함께 삼장을 결집했던 곳이라고 소개했다.

부처님, 정각 이루다

보드가야(부처님 성도지 마하보디대탑 기도법회)



불교 성지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 바로 이 성불의 땅, 보드가야이다. 부처님께서 구도의 일념으로 부귀영화를 버리고 29세의 나이로 출가한 이래, 고명한 선인들을 찾아 가르침을 청했으나 만족한 답을 듣지 못하자 입산해 6년간 모진 고행을 수행하였음에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육체를 괴롭히기보다는 육체를 맑게 가짐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하산한 바, 그때 네란자다 강으로 내려가 목욕을 하시고 마을 소녀 수자타가 공양해 준 우유죽으로 체력을 회복하신 후 지붕처럼 가지를 드리운 큰 나무밑에 앉아 명상에 잠기시어 마침내 정각을 성취, 성불하신 곳이 바로 이곳 보드가야이다. 부처님의 성불 이래 그 나무는 보리수라 불리워졌고, 현재는 부다가야에 있는 보리수나무는 득도 당시의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의 손자뻘 되는 보리수이다. 아쇼카대왕이 스리랑카에 불법을 전파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나무의 묘목을 보냈으며, 지금도 스리랑카 북방의 아누라다푸라시에 살아있어 2000년이상의 수령을 자랑하는바 스리랑카의 그 보리수 묘목을 다시 인도로 들여와 부다가야와 사르나트(녹야원)에 심었다고 하니 현재의 보리수는 제 3대인 셈이 된다. 보리수나무 아래에는 부처님께서 좌선 하고 있었다는 금강보좌가 있고, 그 돌에는 아쇼카시대 양식을 전하는 기하학무늬의 릴리프가 조각되어 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장소에 건립된 높이 52m의 9층 탑 내부에는 부처님의 좌상이 안치돼 있고 주위에는 4개의 소탑이 둘러싸고 있는바 이곳을 대보리사라 칭하며 보리수, 금강보좌와 함께 성지순례자 필견의 명소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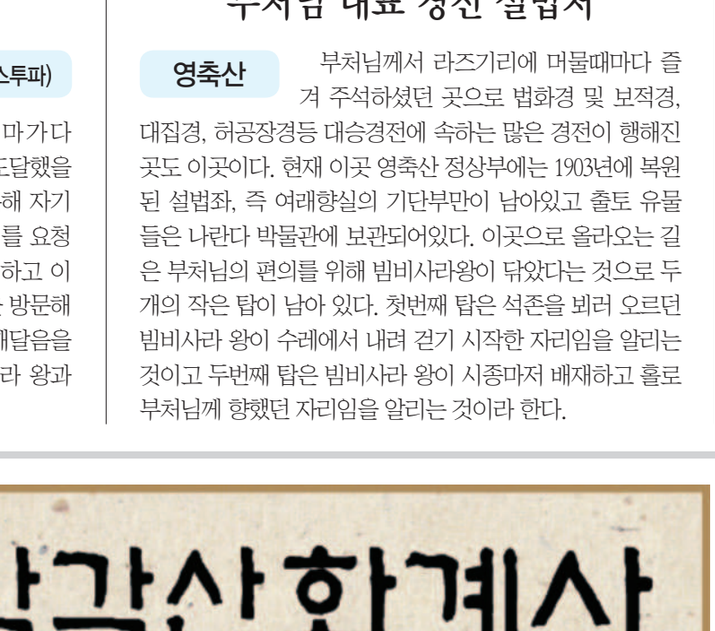
이곳에서 순례단은 부처님 성도의 상징인 마하보디 대탑을 참배하고, 수자타 마을도 방문한다. 보드가야는 조계종서 건립한 첫 인도 사찰인 분황사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인도순례단은 보드가야 마하보디 대탑서 기도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癸卯年 밝아오는 새해에도 각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선 덕 견향
주 지 우봉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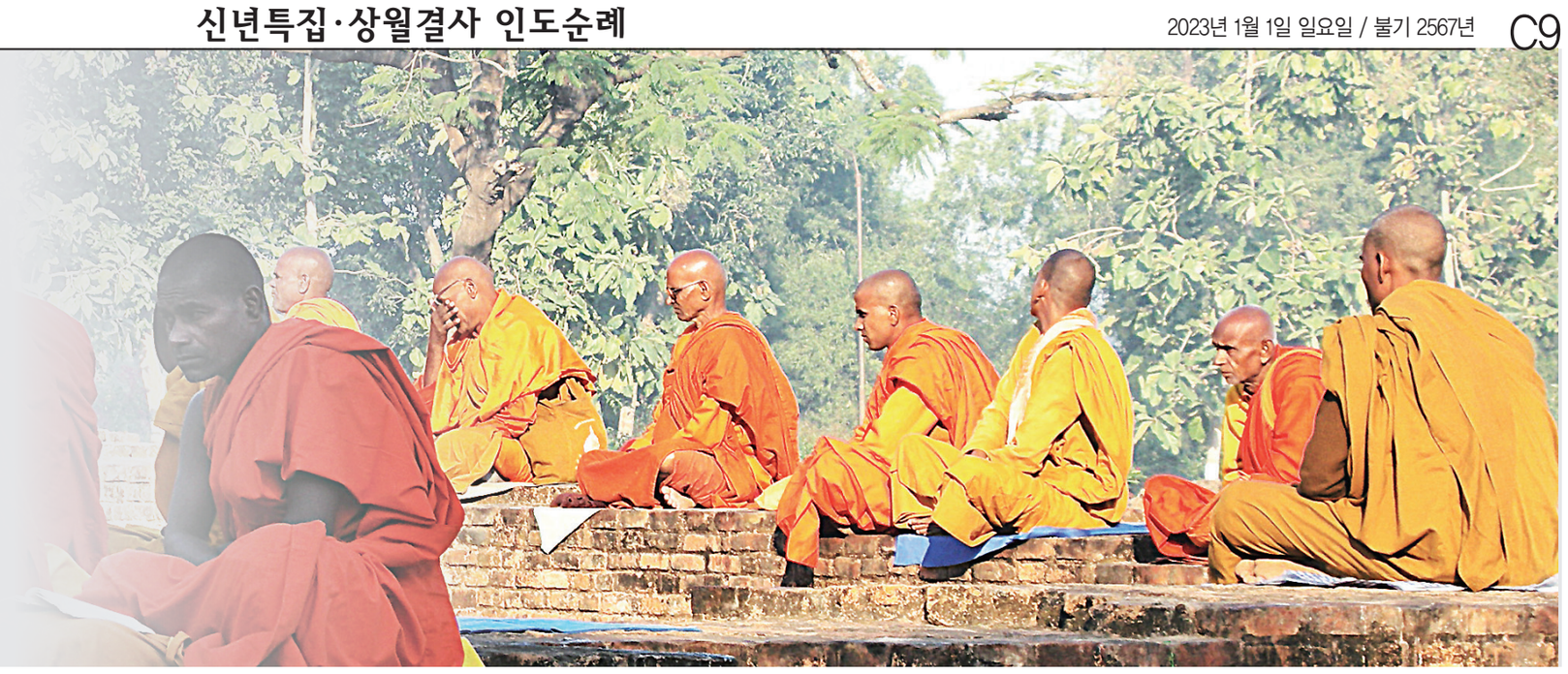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02)902-2663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호암산 호 압 사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호압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암로 278 (시흥동) www.hoapsa.org
전화 02)803-4779 팩스 02)891-0770

부처님 향훈이…



이번 상월선원 인도순례는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부터 열반지인 쿠시나가르까지 불교사에 있어서 상징적인 성지와 유적들을 두루 찾아간다. 이번 순례자들이 순례 여정중 고행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며 만나게 될 성지와 유적들은 어떤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정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년前 불교연구 중심지

나란다대학터

약 1500년 전 굽타왕조의 쿠마라굽타왕 시대에 건립되어 12세기 회교도들이 파괴 할때까지 전 아시아의 불교연구 중심지인 이곳은 당시 인도 각지와 한국 중국 일본 몽고 스리랑카 등 각국에서 온 약 1만여 학생들과 승려들이 기거했으며 중국의 현장법사도 5년간(AD.637-642)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부처님도 여러 번 방문하셨다는 기록이 어떤 문헌에 전해지는 이 곳에는 현재 동서 2,500m 남북 600m의 광대한 대학터에 11개 절과 14개 사원터가 남아 있으며 벽돌로 된 'GREAT STUPA'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치장벽토의 작품 및 유적을 감상할 수 있다.

비록 폐허화 되었으나 아직도 그 웅장한 위용을 간직하고 있어 그 당시 불교의 융성이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며 사리불 존자의 사리가 모셔졌다는 사리자 스투파가 대학터에 우뚝 솟아있고 또 이 박물관에서는 굽타왕조시대의 불교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불교 제2 결집지

바이샬리(대림정사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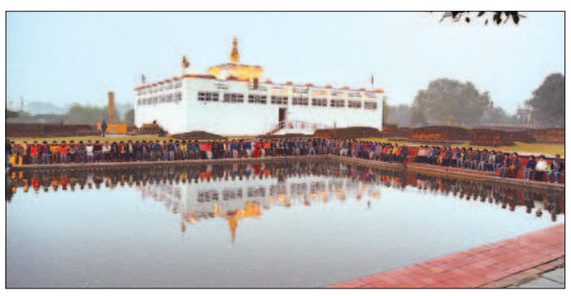
파트나서 갠지즈강을 건너 북쪽으로 40㎞ 가면 바이사라왕이 건립한 도시 바이샬리에 이르는데, 부처님 생존 당시의 북인도에는 마가타와 코살라를 비롯한 16개의 왕국이 있었다고 한다. 그 16왕국 중의 하나인 리차비국의 수도로 부처님 당시에는 상업이 번영한 대도시였다. 부처님은 자주 이 도시를 방문, 설법을 행하셨고,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시기 전의 마지막 여행때는 창부 암파바리의 정성어린 대접을 받아들여 귀공자들의 분개를 사면서까지 교화를 시켰다는 등 부처님과 관련된 일화가 많은 곳인데, 오늘은 한적한 농촌에 지나지 않는다. 아쇼카왕이 건립한 돌기둥 중 하나가 아직도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으며 마우리아시대 이전에 만든 스투파와 원숭이들이 부처님께 꿀과 과일을 공양하면서 부처님께 바치기 위해 팠다는 넓은 못(목욕지)도 있는 이곳은 불교 제2의 결집지이며, 아쇼카왕이 세웠다는 높이 7m의 네 마리 사자의 석주가 있다.

아기부처 나투다

룸비니(부처님 탄생지 기도법회)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다. 현재 네팔의 영토에 속하며 인도와의 국경서 약 20킬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네팔 국내선 항공편이 수도 카투만두와 이곳을 연결하고 있으나 승객이 많지않아 결항이 잦다. 대개 육로로 카투만두 또는 포카라에서 (6-8시간)룸비니를 연결하고 있다.

(또는 인도의 고락푸르에서 육로로 북상) 약 2600년전 석가족 왕국이 이 지방에 있었고 국왕 정반왕(슛도다나 왕)의 부인 마야데비왕비가 산일이 가까워지자 친정을 향해 길을 가던 중 그 일행이 카필라성과 콜리성 경계 근처의 룸비니동산에 이르러 휴식을 취하게 되었던 바, 이때 백화만발한 꽃동산을 거닐던 성모 마야데비 부인이 꽃이 만발한 무우수 나무가지를 잡는순간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가 탄생했다는 부처님 탄신 설화의 고장으로 불교 성지서 빼놓을수 없는 곳이며, 이곳에서 북쪽으로 20킬로 지점에 석가족 거성인 카필라바스투



가 있다.

지금은 마야데비 부인을 기념하는 사당과 연못만이 룸비니를 지키고 있고 B.C 249년경 아쇼카대왕이 이 성지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아쇼카대왕 석주가 성지임을 입증하고 있다.

카필라바스투는 부처님이 고타마 싯달타라는 왕자로서 지낸 카필라성을 이른다.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팔상도 중 '사문유관' '유성출가'가 이뤄진 곳으로 인간 고타마가 붓다가 되는 계기를 만든 장소이기도 하다.

부처님, 무상을 보이다

쿠시나가르(부처님 열반지 기도법회)

45년간 가르침 여행을 계속하시어 80세가 되신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던 그 해 우기에 병을 얻어 죽음이 가까워진 것을 아시고는 아난존자만을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시는 바 풍요로운 도읍 바이샬리를 지나 파바마을에서 대장장이의 아들 춘다가 공양한 식사로 이질의 증상을 얻으셨다. 병을 헤아리신 부처님은 당시 마라족 도읍인 쿠시나가르로 발을 옮기셨다.(고향인 카필라바스투 방향을 목표) 쿠시나가르 교외에서 45년 동안 끝없는 교화와 설법전파의 활동을 마감하고, 제자 아난다가 지켜보는 가운데 두 그루의 커다란 사라나무 사이에서 80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입적하셨다고 전해진다.

이때 비통해하는 제자들에게 부처님 입적후에도 부처님을 의지하고 또 법(진리의 가르침)을 의지하도록 당부하시고 가르침에 의문점이 있으면 물으라고 재촉하신 후 모든 사물과 현상은 지나가는 것, 게을리하지 말고 수행을 완성하라고 이르신 후 열반에 드신바 이때 사라나무는 때아닌 꽃을 피워 부처님 유체를 장식했다는 이곳은 의의 깊은 불교성지이다. 그 옛날에는 수많은 거탑과 승방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없고



유적에서 발견되는 불상 등이 버마의 불교도가 이곳에 건립한 마하팔리니르바나 사원에 모셔져 있다. 사원 주변에는 열반탑, 절터 등의 많은 유적이 있으며 동쪽 1㎞ 지점에 있는 라마바르 흙무덤(높이 46m의 벽돌탑)은 부처님의 유해가 다비(화장)된 터로 유명하고, 이 흙무덤의 서북방에 부처님이 마지막 목욕을 하신 히라니야바티 강이 흐르고 있다. 열반의 그림에서 보는 부처님 모습은 일생동안 이루어야할 업을 완전히 끝내고 육체를 떠나 우주의 영원 속으로 빠져 들어가시는 듯한 장엄한 광경인 바, 경전에서는 진리와 일체가 되어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되신 부처님께서 생사의 본질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 '금강경' 설하다

쉬라바스티

쉬라바스티는 석가모니께서 24안거를 지내면서 '금강경' '원각경' '능엄경' 등 현재 전하는 경전의 3분의 2가량을 설한 곳이다. 안거란 우기동안 한 곳에 머무르며 수행하는 것으로 당시 인도에는 우안거(雨安居)만 있었으므로, 부처님 평생에 걸쳐 24년 동안 이 곳 기원정사서 안거를 지냈다.

아난존자가 보드가야에서 묘목을 옮겨 심었다는 아난다 보리수, 수닷타장가가 세운 최초 승원터인 코삼비쿠티와 경행터를 지나자 기원정사의 중심 유적인 향전(香殿)이 나온다.

향전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경전을 설했던 현장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금강경'도 여기서 탄생했다.



부처님 24안거 나신 곳

기원정사(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식)

기원정사(사헤트)는 중인도 교살라국 도성이던 사위성(쉬라바스티) 남서쪽에서 약 800m 지점에 있으며 당시 교살라국 상인 급고독(수닷타) 장자가 부처님께 귀의하고, 도시 남쪽에 정사를 세우기에 적당한 땅을 발견하고는 국왕의 태자인 기타 왕자의 요구대로 그 토지에 황금을 깔기도 하는 열의를 보여 건립했고, 여기서 부처님은 24회 우안거를 지내시며 설법을 하셨다. 이곳은 부처님께서 제자 스부우티에게 최고의 대승경전 금강경을 설 하신 것과 여러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대좌가 남아있고 후대에 생긴 많은 절터가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謹賀新年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신 도 대 중 일 동

상월결사 '순례 수행' 패러다임 열다



불교 순례사와 상월결사 순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신행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순례(巡禮)'다. 불교에서는 붓다의 발자취가 담겨있는 성지를 순례하는 전통이 있고, 기독교는 예수가 활동한 이스라엘 여러 도시와 초기 교회 사도들이 활동한 성지를 순례한다. 순례를 종교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이슬람의 경우 일생에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해야 하는 하즈(Hajj)의 의무가 있다.

성지 출현과 순례의 시작

종교적 순례가 정확하게 시작되는 시점은 교조가 부재하면서다. 교조가 살아있을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교조를 친견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교조가 부재하게 되면 교단 구성원들은 교조의 가르침을 회상하고 신앙심을 고양시킬 행위를 고민하게 된다. 그 고민의 산물이 '성지순례'의 형태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불교는 길 위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길과 밀접하다. 교조인 석가모니 부처님은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깨달음을 얻고, 길 위에서 전법을 했으며, 길 위에서 열반에 들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길 위에서 이뤄진 구법 · 전법 순례에 가깝다.

실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정각을 이룬 부다가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열반처 쿠시나가라를 4대 성지로 삼고 있다. 여기에다 스라바스티, 상카사, 라즈기르, 바이슈리 등을 더해 8대 성지로 꼽고 이곳들을 기리고 있다.

〈대반열반경〉에는 부처님 4대 성지에 대한 순례를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어떤 공덕을 쌓을 수 있는지가 설해져 있다.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장소가 있다. 첫째, 여기에서 여래가 태어나셨다. 둘째, 여기에서 여래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으셨다. 셋째, 여기에서 여래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 넷째, 여기에서 여래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열반하셨다. 아난다여,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선남자가 친견해야 하고 절박함을 일으켜야 하는 네 장소이다. 아난다여, 믿음을 가진 비구들과 비구니들과 청신사들과 청신녀들은 이 네 곳을 방문할 것이다. 아난다여, 누구든 이러한 성지순례를 떠나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모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문 · 사 · 철〉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순례는 이 세상에서 붓다의 자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의 바른 이해를 가져오는 내적순례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순례는 원심에서 출발하는 외적 순례로부터 구심으로 나아가는 내적 순례에 의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佛滅 이후 성지화… 순례 이어져
구법승 '구법순례' 불교발전 견인
근대 이후 성지순례, 관광과 결합
걸으며 수행 · 정진 상월결사 순례
부처님 강조한 순례 정신 맞닿아

동아시아 주류 순례, '구법행'

부처님의 일생을 회상하며 기리는 순례뿐만 아니라 덕 높은 선지식을 찾아 자신의 수행을 점검받고, 법을 구하기 위한 구법행도 이뤄졌다.

대표적인 것인 실크로드를 통한 구법승들의 구법순례다. 오로지 법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구법승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를 길을 나섰다. 2~8세기 중국을 통해 인도로 간 구법승은 약 131명으로 집계된다. 이 중 한국의 구법승은 11명이다.

이 중 유명한 구법승을 꼽자면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다. 중국 고전 〈서유기〉의 삼장법사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현장 스님은 국외 여행을 금지한 국법을 어기고 629년 인도로 떠난다. 고창국과 천산산맥을 넘어 중인도 나란다 대학에 이르게 된다. 그는 5년을 머물면서 그토록 얻고자 했던 〈유가사지론〉을 비롯한 유식의 교학을 배우게 된다. 또 각지에 구법과 불적 순례의 여행을 계속해서 다수의 불전을 얻어서 귀로에 나섰고, 17년만인 645년에 이번에는 환영을 받으면서 장안으로 돌아왔다. 현장 스님은 구법 여정을 통해 불사리 150개, 불상 8체, 경전 520권 657부를 중국에 전했다.

한국의 구법승 중에는 〈왕오천축국전〉의 저자 혜초 스님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혜초 스님의 인도로의 구법행은 당시 항해술로는 목숨을 건 대장정이었다. 725년 초 동천축에 도착한 혜초 스님은 그때부터 4년 동안 인도 전역을 돌며 붓다의 탄생지, 득도처, 최초의 설법지, 최초의 절, 열반지 등을 돌아보았다. 특히 스님은 마하보리사 대탑을 비롯한 8대 영탑을 참배하고 기록으로 남겼는데 8세기 당나라 불교계에서는 밀교승들을 중심으로 이 순례가 수행 일환으로 강조된다.

스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스님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옛 소련의 국경 지대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와 파미르 고원 등 총 8년에 걸친 만행을 이어간다. 혜초 스님이 중국으로 돌아온 길은 바로 실크로드였다. 육로로 실크로드는 해로에 버금갈 만큼 험했다. 편도에 약 2년이 걸리는 악조건이었다. 당시의 교통수단과 환경 등을 짐작해 볼 때 한마디로 스님의 구법순례는 죽음을 담보한 것이었다.

이처럼 목숨을 걸었던 구법승들의 구법 순례는 동아시아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자 단초가 됐다.

한반도 내 불교성지 순례는

한국불교 내에서 성지순례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원효, 의상 스님이 낙산사 관음성지 순례를 했다고 전해지는 등 한국불교 순례의 역사는 길다. 고려시대에는 금강산으로 기도 순례를 떠난 회정 스님이 송라암에서 관음기도를 드리다가 3년 기도 끝에 문수 · 보현 · 관세음보살을 모두 친견했다는 기록이 있다. 태조 이성계의 경우 국왕이 되기 전 전국 명산을 기도 순례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근대 이후 교통이 발전하면서 현대의 성지순례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70년대까지는 한국사회에서 일반 서민들에게 자신의 생활공간을 떠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과 숙박의 해결이라는 사회적인 여건의 발달되며 성지순례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국민 문화 향유와 복지증진의 차원에서 관광 활성화 사업이 전개됐고,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일상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교통의 발달과 함께 이뤄진 숙박시설 확대는 불교 신도들의 성지 접근성을 높였다. "사회 현실과 맞물리면서 성지가 된 사찰은 신앙과 관광을 겸하는 추세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효원)"이라는 분석은 이에 부합된다.

일선 사찰들도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으로 순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서울 불광사가 성지순례 신도 신행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는 전국 사찰로 전해졌다. 2006년에는 서울 삼각산 도선사에서 108산사순례기도회가 첫 시작을 알렸고 2015년 회향했다. 이들 모두 교통과 숙박이 용이해지면서, 순례에 '관광'의 요소가 결합된 것들이다.

상월결사 순례, 21세기형 구법행

상월결사가 천막 정진 이후 진행한 자비순례(2020) · 삼보사찰 천리순례(2021) · 평화방생순례(2022) · 인도순례(2023)는 '길을 걸으며 수행하고 전법하는' 순례의 기본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순례 관광 프로그램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2020년 자비순례 당시 이뤄진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주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수행과 전법의 길로서 상월결사'를 통해 상월결사 순례가 부처님이 강조한 순례의 정신이 연결돼 있음을 강조했다.

자현 스님은 상월결사 순례가 〈유행경〉 등 8종의 열반 문헌에서 그 기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현대사회에 들어와 걷기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는 중요한 포교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내포한다"면서 "당나라의 현장 스님은 유식학의 수학과 천제도수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상월결사의 순례가 하루 30km의 순례와 더불어 매일 같이 1~2시간의 교육 및 토론이 진행되는 구조는 진정한 구도의 길을 상기시킨다. 이는 21세기의 진정한 구법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길에서 수행하고 대중을 만나는 상월결사 순례와 정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혜명 스님은 상월결사가 "중생과 유리된 불교가 아니라 중생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는 불교가 되겠다는 서원을 표출한 것이며,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상월결사 순례를 1930년 '사띠야그라하'를 표방하고 24일동안 390km를 걸었던 간디의 '소금 행진'과 연결된다고 봤다. 간디의 소금 행진은 식민지 영국 정부의 소금 독점과 과세에 대한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78명의 지지자로 시작해 행진이 끝날 즈음에는 동참자가 6만 명으로 늘어났다.

황 교수는 "간디의 소금행진은 정치 · 사회적 요구로 출발했지만, 만행결사는 지극히 불교적인 발원과 오랜 순례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이번 만행결사는 한국불교가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하는 장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 謹賀新年 계묘년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희망찬 한 해 되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불자지도자 네트워크
불교 리더스 포럼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상 임 대 표 이기흥(대한체육회장, IOC위원)

공 동 대 표 이귀남(前 법무부장관) 주호영(국회정각회장)
이진복(대통령실불자회장) 육현표(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김민배(TV조선 사장) 차승재(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
최영현(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윤종원(IBK기업은행장)
한자경(이화여대 철학과 교수) 김춘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인정(아시아산악연맹 회장) 최현국(공군예비역 중장)
고유환(통일연구원장) 정연만(前 환경부차관)
윤성이(동국대 총장)

감 사 선상신(아시아투데이 사장) 김정만(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

상월 순례, '중생무변서원도' 실천행

수행으로 본 상월결사 순례

상월결사는 2020년 불교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이어 2023년에는 인도순례를 진행한다. 일련의 순례는 풍찬노숙을 하며 사찰과 성지를 걷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행선이 결합된 순례는 관광상품이 된 작금의 순례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불자들은 순례라고 하면 정월 삼사순례로 1년의 평안을 빌거나, 봉정암이나 갓바위와 같은 성지를 일생에 반드시 세 번은 가야한다고 믿고 있을 정도로 성스러운 행위로 여기고 있다.

목숨마저 걸었던 '구법 순례'

전통적인 순례는 구법과 전법으로 나눠볼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스님들이 구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인도로 여정을 떠났다.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 현장 법사의 〈대당서역기〉 등의 기록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왕 석주가 주요 성지에 세워진 것을 미루어보더라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과거로 올라가면,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안거를 마치면 매번 부처님을 친견하러 이동한 것도 구법을 위한 순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법의 순례지는 초기에는 주로 부처님의 탄생지, 성도지, 열반지 등을 중심으로 순례하던 것이 대승불교 시대로 오면서 중국의 지장성지인 구화산, 관음성지인 보타산, 문수성지인 오대산, 보현성지인 아미산을 찾았다.

우리나라는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 삼보사찰, 그리고 33관음성지 뿐만 아니라 선지식들이 주석했던 도량 등을 순례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일본의 경우 시코쿠 지역의 88사찰을 순례하는 '오헨로' 문화가 정착됐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전법 순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전법(轉法)은 모든 불자의 사명이다. 부처님께서는 아라한과를 이룬 제자가 60명이 넘자, 전법선언을 하셨다. 수행자의 순례는 부처님의 전법정신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비구들아,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아, 그대들도 천신과 인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비구들아,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동정하여,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마라.

비구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자를 갖춘 법을 설하라. 아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2022년 10월 2일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제6차 상월결사 생명평화순례에 정광중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다양한 계층이 향유할 수 있는 순례 수행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남방에서는 지금도 탁발순례하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나서야 가족들이 식사하는 문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코쿠에서는 전통 순례복장을 갖춘 사람에게 보시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상과, 순례자가 방문한 사찰에서 받은 납경장을 자손대대로 가보로 모시는 문화가 전해지고 있다.

순례자에게 보시하는 것으로 복밭을 삼는 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아함경〉의 〈복전경〉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학인과 무학인은 존숭할 만하고 받들어 공경할 만하도다. 그들은 능히 그 몸을 바로하고 그 입과 뜻 또한 그러하니. 거사여, 그들은 좋은 밭이다. 그들에게 보시하면 큰 복 얻으리."

순례하는 수행자에게 보시하는 것이 복을 심어 싹을 틔우는 좋은 밭인 이유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인천의 이익, 행복, 안락을 위하여 스님들에게 전법의 길을 가게 한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도 아니라 혼자 떠나라"고 한 전법선언은 순례길에서 만나는 일체 중생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이익을 주고자한 데 그 뜻이 있다.

수행자의 순례는 그 자체만으로 교화의 방편이다. 대표적인 예로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불을 출가시킨 마승비구의 일화를 들 수 있다. 마승비구는 여법하게 걷는 모습만으로도 사리불에게 감화를 일으켜 사리불과 목건련을 비롯한 외도 250명을 귀의하게 만들었다. 수행자의 순례길 한 걸음 한 걸음은 구도와 동시에 자리이타의 실천이다.

결사 공동체 형성, 순례 정진하는
상월 순례, 한국불교 새 패러다임
순례는 치유 넘어 지혜 증장 수행
대상, 주제 맞춤 순례 수행 개발을
순례 공덕 회향으로 세상 평온하길

상월결사 순례, 자비와 회향의 길

세계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발원으로 국토를 걸으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수행하는 상월결사의 순례들은 순례 수행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며, 온 세상과 하나로 연기됐음을 마음 깊이 체득해 타인에게 자비와 회향심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마음을 여실지견하게 되면 경계에 대하여 흔들리거나 물러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수행자에 대해 〈대반야바라밀다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선현아, 만일 물러나지 않는 지위의 보살마하살이면, 들고 나고 가고 오고 할 때에 마음이 헷갈리지 않고 언제나 바른 기억과 바른 앎에 편안히 머무르며, 나아가고 그치는 위의와 가고 서고 앉고 눕고 발을 들고 내리고 하는 데도 역시 그러하며, 온갖 다니는 곳에서는 반드시 땅을 살피면서 조용히 생각을 매어 두고 앞만을 보면서 걸어가며, 움직이거나 말을 할 적에는 난폭한 일이 없나니 선현아, 만일 이와 같은 행과 형상과 모양을 성취한 이면, 그가 바로 물러나지 않는 보살마하살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상원결사 순례는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로, 중생무변서원도를 실천하는 길이다. 이는 또한 부처님의 법을 구하러 떠나는 구법의 길이자 부처님의 전법정신을 이어받아 한국불교를 세계로 확장시키는 일인 것이다.

상월결사 순례에 대한 제언

상월결사의 순례수행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상월결사의 순례는 △'결사'를 통해 공동체를 결성하여 △'순례'를 통해 함께 정진함으로써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는 수행이다.

승가공동체는 도반들이 서로가 스승이 되어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반과 함께하는 순례는 그 자체가 정진이다. 순례하고자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곧 발심이며, 발심한 보살의 깨끗한 마음은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으로서 근거를 삼는다.

〈화엄경〉에서는 "온갖 공덕 중에도 보리심의 공덕이 최상이니 걸림없는 지혜를 얻기 때문이요, 그것은 불법의 교화로부터 생기네. 보살이 낸 보리심으로 모든 부처님 세계를 다 장엄하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미묘한 지혜를 모두 갖추게 하네"라고 하였다. 순례수행을 통해 일으킨 보리심은 곧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상월결사 순례가 현대적 수행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제언한다. 우선, 한국의 성지순례지를 발견해야 한다. 경주 남산, 제주도 등에서 순례지를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다. 경주 남산은 지금도 여전히 부처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지이다. 제주도 관음사에서 법화사로 이어지는 길을 제주도민들이 함께 걷는다면 환희심으로 인해 치유에서 지혜로 거듭날 것이다.

둘째,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상월결사 순례단이 경주 남산이나 제주도를 지속적으로 순례한다면 머지않아 시코쿠나 산티아고와 같은 세계적인 순례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전국 불자들이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계층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동 및 청소년, 대학생, 중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년이 순례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순례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속 운영된 뒤에는 학술적 연구를 통해 순례 명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가장 먼저, 순례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이다. 순례의 정의, 순례명상, 순례수행의 정의 등을 개념화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순례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대상의 경우 산만하거나 폭력적인 아동 및 청소년,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위기의 중년 및 은퇴자,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순례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내용의 경우, 자살예방을 위한 순례 프로그램, 예비 부모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대상과 내용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기반이 된 프로그램의 연구결과를 2~3년 정도 축적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한국적인 명상을 널리 알릴 수 있다.

순례는 치유가 아니라 지혜를 증장하는 행위이다. 이제 우리는 순례를 통해 치유에서 '지혜'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부처님께서 마련해주신 복밭을 대중에게 알리고, 지혜를 기반으로 부처님께서 사용하셨던 대기설법의 방편으로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상월결사 순례는 많은 선지식과 사부대중이 함께 정진하는 수행의 장이며 정진을 통해 지혜와 복덕을 확장시키는 일이다. 또한 결사공동체는 순례수행을 통해 사람들에게 여실지견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삶의 지혜를 스스로 찾아가게 돕는다. 선지식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께 나아가는 순례 공덕의 회향으로 온 세상이 평온하고 따뜻해지기를 발원한다.



손강숙 /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지 진 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천은사
주지 대 진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종무소 061-781-4800

謹賀新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중흥 동국발전

불기2567(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며 힘차게 정진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총재 해봉 자승

상 임 이 사 성 월 | 이 사 장 성 우 | 건학위원장 돈 관

WISE캠퍼스총장 이 영 경 | 동국대학교총장 윤 성 이 | 의 료 원 장 채 석 래





WISE캠퍼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



서울캠퍼스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



의료원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교육기관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의료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흥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DUICA